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사점

**SUPER
CONNECTOR**
HONG KONG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http://hkg.mofa.go.kr>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사점
SUPER CONNECTOR
HONG KONG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사점

SUPER CONNECTOR
HONG KONG

펴낸곳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5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 Kong
香港金鐘夏愨道 16號 遠東金融中心 5-6樓

Tel : (+852)2529-4141, Fax : (+852)2861-3699
hkg-info@mofa.go.kr

디자인

고려문화사

비매품

SUPER
CONNECTOR

HONG KONG

홍콩 특별행정구는 미 헤리티지 재단이 주관하는 경제자유도 평가에서 전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21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귀속된 이후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에서 주역으로 자리잡고 부상하였는지에 대해, 본인이 2001년 처음으로 주홍콩총영사로 부임하였을 때 “아시아의 작은 거인 홍콩”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발간하는 책자는 그 후속편으로 이후 홍콩이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하였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본인이 국내 우수 금융기관 사외이사 등 실물부문의 경험을 토대로, 공직을 통해 미처 감지하지 못하였던 현장감을 갖고 새로운 시각에서 주홍콩총영사관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홍콩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즉, 홍콩을 받쳐 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집중 검토

하면서 법의 지배^{Rule of Law}와 효율적인 시스템, 실용주의적 태도와 정신, 고도의 도덕성^{Integrity}이 중국본토의 경제성장과 잘 융합되면서 홍콩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홍콩은 한국과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가운데, 탐과 열정, 전문성으로 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콩도 창조경제산업, 정보통신^{IT}, 문화산업, 물류서비스 등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한국과 홍콩은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경제에도 각별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을 운영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면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 법의 지배,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공공부문이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역동적인 시장과 견실한 시스템이 지금의 홍콩을 유지하는 힘이라는 점은 한국 입장에서도 눈 여겨 볼 대목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중국경제는 1978년 개방 이후 초고속성장을 달성하여 왔지만, 최근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성장감속



이라는 뉴노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고속성장에 따른 지역 간·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홍콩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향후 중국정부의 최우선 정책 의제로 자리잡을 전망이고, 중국본토와 홍콩간의 긴밀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흐름을 한국의 기업과 동포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과 홍콩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책자에서 주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금번에 발간하는 보고서는 홍콩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본인을 포함한 주홍콩총영사관 직원 여러분들과 산업연구원(KIET) 연구진 여러분의 고민이 담긴 자료로서 한국경제의 도약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시아 무역 및 금융 중심지로서 서비스 주도형 경제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홍콩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다음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첫째, Super-Connector로서의 홍콩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홍콩의 모습, 성취와 국제적 위상 및 홍콩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도 다루었습니다.

둘째, 홍콩의 성장기반은 민간부문의 경쟁우위에 있는 만큼 무역과 물류, 금융, 관광의 아시아 허브인 홍콩의 주요 산업의 주요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공공부문도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 요건입니다. 이에 홍콩의 행정, 교육시스템, 질병관리체계, 사회복지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넷째, 홍콩 입장에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주강삼각주 경제통합 등 최근 중국 중앙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다섯째, 홍콩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및 금융회사의 중국 및 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 국내 기업의 중국 및 아시아 시장진출 효율화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우리 정부 및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나, 우리 정부,



국민 여러분 및 기업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참고자료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완결본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예정임을 약속드립니다. 격무에도 불구하고 발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주홍콩영사관 직원 여러분과 산업연구원(KIET) 연구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튼튼한 책자가 나오기 까지 힘써주신 고려문화사 권영석 사장님과 (주)오리콤 관계자들도 심심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

김 광 동

I. Super-Connector로서의 홍콩의 모습과 위상

01 Super-Connector로서의 홍콩의 모습과 위상	17
----------------------------------	----

II. 민간부문의 경쟁우위

01 서비스산업 주도형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	41
02 아시아 무역허브로서의 홍콩	51
03 교통 및 물류	71
04 홍콩의 금융시장	83
05 전문직 서비스산업	109
06 여행 및 관광산업	130
07 문화 및 예술	141

III.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공공부문

01 기본법 및 정치체제	155
02 홍콩의 재정 및 조세제도	161
03 홍콩 정부의 조직 및 경쟁력	165
04 홍콩의 인구구성 및 인력유치	171
05 언론 및 미디어	180
06 정부 및 시장 투명성 제고	185
07 효율적인 공공질서의 유지	195

08 교육제도	207
09 공공연금제도	221
10 의료 및 보건제도	224
11 식품안전, 환경위생, 농업 및 어업	234

IV. 미래의 성장동력 : 주요 프로젝트

01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 홍콩	249
02 주강삼각주 경제권 발전전략과 홍콩	277

V. 홍콩을 활용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진출 효율화 방안

01 한국기업의 중국 및 아시아 진출 현황	299
02 글로벌 가치사슬과 홍콩	303
03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323
04 진출 유망업종 검토 및 진출 전략	354

VI. 참고자료

01 홍콩의 역사	377
02 홍콩 기본법 주요내용	384
03 마카오 카지노산업	394



한 눈에 보는

HONG KONG



고용동향

업종별 고용 비중

- 수출입 · 숙박업 · 요식업 32%
- 공공부문 26%
-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 관련 20%
- 운송업 · 창고업 관련 11%
- 건설업 8%
- 제조업 3%



거시경제지표 (2014)

- 경제성장률: +2,3%
- GDP: 2,879억 미불
- 1인당GDP: 39,800 미불
- 노동인구: 379만명
- 실업률: 3,2%
- 중위임금: HK\$ 14,800/월(민간부문)
- 최저시급: HK\$ 32,5/시간(* 15년)



물동량

- (항공) 연간 이착륙 항공기 39,1만대,
항공기 이용객 6,330만명,
항공물류 438만톤
- (선박) 도착기준 연간 대형선박 3만척,
중소형선박 15,9만척,
화물처리량 2,98억톤
- (컨테이너화물) 연간처리량 2,223만 TEU



면적

전체 1,105,68 sq. km

- 홍콩 섬: 80,68 sq. km(7,3%)
- 구룡지역: 46,94 sq. km(4,2%)
- 신계지역: 978,00 sq. km(88,5%)
- 인구밀도: 6,690명/sq. km



인구

전체 726만명

- 홍콩 섬: 134.3만명(18.5%)
- 구룡지역: 214.2만명(29.5%)
- 신계지역: 377.5만명(52.0%)
- 남성 335만명, 여성: 391만명



기후 · 날씨

아열대성 몬순기후

- 연평균 기온: 22~23°C
(최고 36.1°C, 최저 0.0°C)
- 평균 강수량: 2,638.3mm
- 최대풍속: 259km/h
(1962년, 태풍 Wanda)



언어 (영어공용)

광둥어: 인구의 89.5%

- 북경어: 인구의 1.38%
- 영어: 인구의 3.5%
- 중국 타지방 언어: 인구의 4.02%
- 기타 언어: 인구의 1.57%



교통

대중교통 1일 이용객: 1,200만명

- MTR&공항철도(460만명), 버스(391만명), 페리(13.5만명)
- 등록차량수: 69.9만대(개인용 49.5만대)
- 도로표장 길이: 2,099km
- 주요교량: Tsing Ma Bridge 등 5개



주택

주택부문 예산지출: 전체의 6.3%

- 민간주택: 54%
- 공공임대주택: 29%
(78.2만채, 211만명)
- 보조금 지급대상주택: 17%



의료

- 보유병상: 37,400개
- 등록의사: 13,400명
(인구1,000명당 1.9명)
- 공립병원: 42곳
(1일병실료 68~100달러)
- 사립병원: 11곳
(1일병실료 수백달러 이상)

I . Super-Connector로서의 홍콩의 모습과 위상



Super-Connector로서의 홍콩의 모습과 위상

1. 홍콩의 위상과 성장동력

(1) Super-Connector로서의 홍콩의 위상

1978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홍콩 제조업의 중국 본토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홍콩은 중국 등 아시아와 서구를 이어주는 HUB 전략을 꾸준히 질서 있게 추진하여 왔다. 제조업 기반 경제였던 홍콩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서비스 주도형 경제(service oriented economy)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고, 경제 전체가 순조롭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 결과 조용한 바위섬이었던 홍콩은 과거 제조업 기반 경제에서 서비스 기반 경제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서 현재 1인당 GDP가 4만불에 달하는 선진국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홍콩은 아시아 무역 및 금

용의 중심지이자 해외기업들의 중국 진출교두보이자 세계경제의 요충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즉,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를 이어주는 Super-Connector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홍콩에는 외국자본과 함께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전문인력 등 해외 손님들이 끊임 없이 홍콩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

홍콩은 중국, 아시아 국가 등 주변 국가나 지역에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바, 주변 지역의 경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존립 근거를 확보하였다. 즉, 중국, 아시아 국가 등 주변 국가나 지역이 제공하지 못하는 무역·물류·금융·교육·미디어·관광에 특화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아시아에서 교역과 서비스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홍콩경제는 무역, 유통, 물류, 금융 및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중 93%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의 자유로운 시장질서하에서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축적되는 가운데, 홍콩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홍콩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본토 경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역·물류·금융·전문직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특화하는 전략이 홍콩의 생존과 발전의 방정식인데,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 경제전체를 최대한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따라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 확보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경제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치원리 Rule of Law가 작동하여야 한다. 법치는 모든 경제주체의 재산권을 가장 가장 보호해 주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이 고취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될 수 있다. 3% 수준의 완전고용을 항상 유지하는 홍콩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홍콩은 경제구조 자체가 매우 유연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경제로서,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 4시간이면 접근하는 지리적·문화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경제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최근 홍콩은 서구 등 해외자본 → 중국 및 아시아에 투자하는 전초기지이면서, 최근에는 중국자본 → 해외투자의 발판으로 진화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2) 홍콩의 성장동력 : 제도와 신뢰

홍콩은 왜 해외의 다국적기업과 금융회사가 홍콩을 선택하는 지에 대해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Superconnector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홍콩은 해외 자본과 자원이 끊임 없이 홍콩으로 유입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고급인적자원이 홍콩에 터전을 마련하고 홍콩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취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외국 손님과 해외자본이 홍콩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확고한 믿음과 신뢰 confidence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

는 단순한 수사로만 그쳐서는 지속될 수 없으며 명확하고 분명한 제도적인 프레임워크와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홍콩은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 등이 찾아 오는 곳이 되었고 무역, 물류 및 금융의 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홍콩에 거점을 두고 모여들면서 응집효과^{cluster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역·금융서비스 ↔ 법무·회계·IT·마케팅 등 서비스 산업간의 튼튼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업종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다. 즉, 홍콩은 법치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국 시장 진출기지라는 특성이 잘 융합되어 있다. 즉, Super-Connector로서의 홍콩은 아시아와 서구를 이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홍콩내와 홍콩밖 value chain상의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

2. 주요 전략산업별 Super-Connector 모습

홍콩은 무역·물류·금융·관광·전문직 서비스 등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집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균형 있게 발전하였다. 전통적 무역·물류서비스를 기반으로 금융·전문직 서비스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내실 있게 발전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1) 무역 : 아시아 중개무역의 허브

홍콩은 중국 등 아시아와 해외를 이어 주는 효율적인 중개무역의

허브로서 중개무역비중이 1970년 19%에서 2014년에는 98.5%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홍콩은 글로벌 유통 브랜드의 허브이자 중국진출의 교두보로서 글로벌 유통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 도시 순위에서 홍콩은 6위를 기록하고 신규 진출 도시 순위에서는 3위(2014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홍콩이 중국 등 아시아와 해외를 이어 주는 효율적인 중개무역의 허브로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홍콩은 판매창구, 대륙은 제조기지로 역할이 분담되면서 홍콩이 무역, 유통 및 물류 기능에 특화한 데 기인한다. 광둥성 등 중국 남부에 위치한 공장지대 내에 홍콩 거주자들이 다수의 제조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 본토의 공급자와 글로벌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즉, 홍콩의 수출입 무역회사들은 중국 본토에서 필요한 원자재, 기계 및 부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들을 활발하게 소싱하는 데 우위에 있으며, 전체적인 가치사슬중 제조업만 중국 본토로 이전한 상태에서, 제품 소싱, 주문, 품질관리, 배송 및 판매 등의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홍콩이 아시아 지역의 유통 허브로서 자리잡은 데에는, 대규모 중국 관광객의 유입과 및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홍콩의 입지로 인해 글로벌 유통업체가 홍콩에 대거 진출하였다.

(2) 물류 서비스 : 효율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자유무역항

이와 같은 중개무역의 허브로 홍콩의 위상이 확립된 결과, 홍콩항은 2014년 현재 홍콩항은 상하이, 싱가포르, 선전에 이어 세계 4위 구

모로서 1992년~2004년에는 13년 연속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구로 성장하였다. 홍콩의 공항과 항만은 세계적인 규모로 조성되어 간단한 통관절차와 더불어 편리한 인프라 스트럭처 시설은 수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홍콩 물류서비스의 강점은 자유무역항-Free Port 정책을 기반으로 물동량 창출 능력, 우수한 물류 인프라, 효율적인 운영능력에 있다.

그 결과, 홍콩 공항은 세계 1위, 항만은 세계 4위의 화물처리실적을 보이면서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의 물류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3) 금융 서비스 : 세계 3대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위상은 런던, 뉴욕에 이어 3위로 아시아 지역내에서 독보적인 위상과 입지를 확립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홍콩의 완비된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중국과 아시아 등에 투자하는 기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은 중국 본토와 해외자본을 이어주는 국제금융중개(international financial intermediation)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 5월말 현재 202개의 은행이 홍콩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계 100대 은행중 70개 은행이 홍콩에 진출중이다. 홍콩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6위, 아시아 2위에 달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홍콩 IPO 규모가 미화 334억 달러로서 런던과 뉴욕을 넘어서기도 하는 등 중국 본토기업을 중심으로 한 IPO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한, 아시아는 세계에서 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축적되는 지역으로 홍콩에는 자산운용회사, Private Banking, 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이

모여 들면서 글로벌 자산운용 센터 지위도 확립하였다. 특히, 홍콩은 세계 최대의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 위안화 무역결제, 파이낸싱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 홍콩 내 위안화 예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위안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홍콩은 해외자본의 대중국 투자 채널로서 중국 및 아시아에 대한 자금 조달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발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4) 전문직 서비스 : 무역·금융서비스와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

홍콩은 아시아 지역내 법무·회계서비스 등의 중심지로서의 독보적인 위상과 입지를 확립하고 있다. 홍콩이 아시아 및 중국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를 두는 거점이 되면서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아시아 비즈니스를 위해 홍콩에 거점을 뒀으로써, 글로벌 로펌과 회계법인들도 홍콩에 동반 진출하였다. 특히, 기업공개IPO, 자금조달 등을 비롯한 금융거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법률·회계서비스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데, 법무·회계 분야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들이 홍콩에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의 IPO 등 충분한 규모critical mass의 서비스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바, 글로벌 로펌과 회계법인들은 홍콩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즉, 홍콩에서 진행되는 대형 딜과 금융서비스는 홍콩이 제공하는 효율적인 법무·회계 서비스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법무·회계 서비스산업의 수요 기반이 되기도 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다고 평가된다.

(5) 관광 서비스 : 무역·금융서비스와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

홍콩은 천연관광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 유입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여행 및 관광 경쟁력 평가에서 홍콩은 전 세계 15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5위로 평가되고 있다. 홍콩은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문화적 친숙성과 이국적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홍콩의 높은 지리적 접근성으로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 방문객 비중이 가장 높지만, 천연 관광자원이 부족한 홍콩은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Wine & Dine Festival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홍콩의 관광산업은 해외에서 홍콩으로 오는 인바운드 관광과 홍콩에서 해외로 가는 아웃바운드 관광을 합쳐 홍콩 전체 GDP의 5% 내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인바운드 관광은 2002~2012년 사이 연평균 12.1% 수준의 고속 성장을 실현한 바 있다.

● Super-Connector 홍콩의 주요 모습

 홍콩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중국의 성장스토리
<p>Pillar 1 실용주의+자유경쟁시장</p> <p>Pillar 2 개방형 파트너십</p> <p>Pillar 3 법의 지배(Rule of Law)</p> <p>Pillar 4 깨끗하고 정직한 관행</p>	<p>Story 1 10조 USD에 이르는 중국의 GDP 규모</p> <p>Story 2 새로운 성장동력</p> <p>Story 3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주강삼각주</p> <p>Story 4 중국경제의 Rebalancing</p>

● 홍콩의 비즈니스 라인 : 아시아 서비스 Provider



무역·물류서비스	금융서비스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도소매 및 관광서비스
세계적 수준의 효율적인 공항·항만 중개무역의 중심 재수출 비중(98.5%)	아시아 금융거래를 총괄 200여개가 넘는 은행 전세계 IPO 1위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집적	아시아 법률서비스 총괄 글로벌 로펌, 회계법인 및 컨설팅 회사 집적	연간 6천만명 관광객 유입 MICE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 도소매 및 관광산업간 선순환 구조

3. Super-Connector로서 홍콩의 시스템

(1) 홍콩인들의 땀과 노력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Super-Connector로서의 허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자본과 외국인 등 손님들이 끊임 없이 홍콩으로 밀려 들어와야 한다. 또한 이들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홍콩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바위섬인 홍콩에서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실현한 근본적인 동력은 홍콩인들의 땀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홍콩인들의 깊은 열정 *can do spirit*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도로서 구체화되고, Super-Connector로서 홍콩의 역량과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홍콩의 기업가정신과 비전 그리고 혁신은 홍콩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홍콩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을 누려왔고,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홍콩인들은 비즈니스에 전념하면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면서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홍콩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정치적 여건하에서도 필요시 대담한 비전을 제시하고 큰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즉, 손쉬운 단편적인 개입주의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위험을 감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홍콩경제와 시장이 보다 정교하게 발전해 나가면서 해외투자자 입장에서는 홍콩의 매력도 *attractiveness*가 높아지고, 관련 규제와 제도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하고 있다. 홍콩이 경제적 번영을 받쳐 주는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보고자 한다.

(2) 홍콩의 시스템 Main Pillars of Hong Kong

가. Pillar 1 : 실용주의와 자유경쟁시장에 기반을 둔 홍콩경제

홍콩은 경제적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하는 자유경쟁시장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홍콩의 경제자유도 수준은 21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평가되고 있다. (미 헤리티지 재단) 기업가의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제한 없이 발휘되면서 기업가의 능력과 판단이 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실패가 나타나지 않는 한, 경제 프로세스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 스스로 공급하기 어려운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 교육 등 인적 자원 투자에 주력하는 정책을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정부개입과 자유시장 원칙을 준수하는 확고한 정책 스탠스 강조하면서 재정건전성 및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홍콩의 성취는 크게 보면 자유시장 근본원리를 충실히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의 규제완화를 통한 실용적이고 시장을 존중하는 태도와 mentality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정부는 국제학교 등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력과 자본이 홍콩에 유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홍콩은 국제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홍콩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인접국인 싱가포르를 물론, 뉴욕, 상하이 등 주요 무역과 금융중심지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홍콩의 번영이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홍콩 정부는 홍콩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홍콩을 둘러싼 대외여건의 변화를 항상 주시하면서, 다극화되어가는 글로벌 경제환경하에서 선제적 대응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뉴스와 정보면에서 홍콩은 전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지역중 하나로써 모든 종류의 미디어 매체가 존재하며, 뉴스와 정보의 흐름이 자유롭고 유통되는 뉴스의 중심지이다. 홍콩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정보에로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고 있어, 자유로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가운데, 효율적인 통신시설과 정보처리기술 고도화를 통해 신속한 정보 유통이 가능하다.

홍콩의 세율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법인세 16.5%, 개인소득세 15% 한도)일 뿐만 아니라 조세체계가 매우 간결하고 단

순한 구조이다. 즉,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와 같은 자본 소득에 과세하고 있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 상속·증여세가 없다. 또한, 국내거래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역외소득 비과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다국적 기업 및 글로벌 금융회사 등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홍콩에 두는 데 조세상의 부담이 없다.

홍콩의 노동시장은 인력채용이나 근로조건 결정시 사적 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 시장이다. 또한, 홍콩의 노동력은 규율이 있고 근면하며 잘 숙련되어 있는 데다 저렴한 인건비도 장점으로서 해외 자본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Pillar 2 : 개방적이고 튼튼한 파트너십의 구축

홍콩으로 해외자본과 손님이 지속적으로 밀려 들어 오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홍콩은 이와 같은 개방형 파트너십이 홍콩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홍콩 전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개방형 파트너십은 단지 법의 지배, 자유시장 경제체제 및 자유로운 시장접근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전통과 영국의 유산이 어우러지면서 동서양 문화가 조화된 문화적 다양성과 복합성을 통해서도 실현되고 있다. 홍콩의 개방적인 라이프 스타일, 국제학교와 외국인도 편리하고 익숙한 생활여건으로 해외전문인력이 활발히 유입됨으로써 금융·법률·회계 등 풍부한 해외

전문가 풀 확보가 가능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의 홍콩시장 접근상에 아무런 장벽이 없으며 내·외국인 동등대우 및 강력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홍콩에 주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와 개방적 태도가 해외자본과 각국의 유력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홍콩으로 유입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본통제 및 국경간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본자유화도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홍콩달러화와 미달러화간의 연계환율제(페그제)를 통해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떤 제한도 없이 자국통화를 외국 통화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의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고 해외자본의 유입에 대한 장애 요소를 제거하였다.

홍콩은 작지만 응집력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로서 유기적인 연결망 connectedness을 갖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의 다양한 서비스 산업간의 value chain은 외견상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경쟁우위 요인이다.

홍콩내 관광·호텔업 ↔ 컨벤션 산업, 무역업 ↔ 물류업, 금융업 ↔ 법률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산업간의 연계가 깊고, 서로가 꼭 필요한 거래상대방이 됨으로써 시장이 조성되는 등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견고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였다. 일례로, 금융산업이 고객들에게 필요한 채권발행 주선, IPO 지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도 완결된 솔루션이 필요한 데, 홍콩에 진출한 글로벌 대형 로펌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고객들에게 B2B 또는 B2C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상품내의 스트럭처링을 받쳐 주는 정교한 법률서비스가 필수

적이다. 아울러, 홍콩내 먹거리 산업인 음식소매업은 관광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부족한 관광자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홍콩은 다채로운 국제행사와 전시회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호텔업은 물론 관광서비스업과 음식소매업에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홍콩은 해외자본 → 중국 및 아시아에 투자하는 전초기지이자, 최근에는 중국자본 →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바,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로펌 등이 홍콩에 모여 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무역 및 물류서비스 뿐만 아니라, 법률·중재·회계·컨설팅서비스, 디자인, 마케팅, MICE 등 전문직 서비스업이 발전하여 나가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홍콩에서 주요 거래는 영어로 진행되는 바, 영어의 보편적인 사용은 금융, 무역, 관광,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홍콩의 핵심 경쟁력이다. 또한, 영어는 영미법제인 보통법(Common Law)을 기반으로 한 법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영어는 홍콩과 같은 소규모 경제가 글로벌 차원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는 바, 홍콩은 일상생활에도 영어를 쓰면서 영어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다. Pillar 3 : 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홍콩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속하게 접근이 용이하며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

다. 즉, 항공편으로 4시간이면 아시아 주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홍콩의 시간대도 북미와 유럽지역의 시간대 차이를 메꾸는 위치에 있어 세계시장에서 하루 24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이 있는 데다, 수심도 깊어서 홍콩항이 세계적인 무역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여건이 홍콩의 아시아의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만약, 아시아 주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깊은 수심이 없었다면 홍콩이 무역과 물류는 물론 금융과 전문직 서비스 중심지로 자리잡기 어려웠을 것이라든 지적이 있을 만큼 지리적 위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경쟁력 원천이다.

홍콩이 지리적으로 중국 본토와 가깝고 중국의 일부라는 점 때문에 홍콩은 중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무역 및 금융 등 다양한 중개 및 비즈니스 기회가 자연스럽게 창출할 수 있다. 즉,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중국 본토와 지리적·문화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1978년 중국의 개방이후 본토로의 관문으로서 중국시장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본토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바, 홍콩은 중국과 인접하여 있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였다.

홍콩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는 중국경제의 개방과 성장-China Growth Story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자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동력을 확보하여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홍콩 서비스 부문의 빠른 성장은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들로부터 기업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창출된 데 기인한다.

중국은 제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성장에 수반되는 고도화된 서비스 수요를 받쳐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콩의 서비스산업은 그 격차를 메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홍콩이 제조업 주도형 경제에서 서비스 주도형 경제로 진화한데는 홍콩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길 이외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던 점도 큰 요인이었지만, 홍콩은 완비된 법률시스템, 낮은 세금 및 항만·공항·통신 등 효율적인 인프라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무역·물류·금융서비스에서의 다양한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였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홍콩은 이와 같은 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국의 성장스토리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함께 동반성장하고 있다. 즉, 홍콩이 보유한 법률시스템, 낮은 세금 및 홍콩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중국본토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크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결과 해외자본이 매력적 투자처를 찾아 홍콩으로 몰려 들어오고 홍콩이 아시아의 국제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라. Pillar 4 : 일국양제 및 법의 지배 Rule of Law

홍콩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경제, 보편적 홍콩의 법과 제도는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즉 홍콩의 경쟁력의 근간은 일국양제 하에서 독립된 사법부와 재산권 보장 및 법의 지배 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효과적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홍콩의 사업자들은 비즈니스에만 전념할 수 있다.

홍콩에서의 재산권 보장과 법의 지배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데, 홍콩의 무역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등은 본질적으로 재산

권과 의무를 수반하는 법적 계약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완비된 법적 체계(legal framework)와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이 필요하다. 홍콩의 성공 스토리의 이면에는 홍콩에 진출하는 외국자본과 동일한 법 체계인 영미식 보통법(common law)에 기반하고 있는 견고한 법률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홍콩의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홍콩의 법원은 내외국인 차별 없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한다는 대외적 평판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정한 사법제도는 사유재산권의 확실한 보장과 홍콩에서 사적 계약이 완성되고 미래의 비즈니스 활동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의 지배 원칙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이 완벽히 보호되고 있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행위에 의해 침해 받지 않고 있다. 시민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호,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원칙이 굳건하게 지켜지면서 홍콩이 아시아의 무역과 금융의 허브로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였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노동력과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풀이 없이는 국제적인 무역과 금융허브가 작동할 수 없다. 홍콩의 개방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잘 정비된 생활여건으로 해외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이들은 국제적 허브로서 홍콩을 유지하는 주춧돌이다. 홍콩은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길러 내고, 과감하게 해외인재를 유치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홍콩 정부는 수준 높은 국제학교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홍콩대, 홍콩과기대, 중문대 등 세계적인 대학을 보유하고

등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마. Pillar 5 : 깨끗하고 정직한 관행의 정립

무역과 금융 및 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responsive government*도 빼놓을 수 없는 경쟁 원천이다. 홍콩 정부는 단편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최소한의 정부개입과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준수하는 확고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낮고 간결한 세제, 법의 지배 등 적극적 불개입주의 *positive non-interventionism*로도 표현되는 홍콩의 일관된 정책스탠스도 홍콩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홍콩 정부를 포함한 홍콩의 공공부문은 시장친화적인 정책기조하에서도, 금융·전문직 서비스 등 주요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세제 개편 등 과감한 정책 대응도 구사하고 있다. 해외자본을 포함한 시장의 요구에 대한 세심하고 정교한 배려를 통해 전세계 가치사슬상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있다.

홍콩의 페그제와 함께 재정건전성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시설에 집중투자하면서 효과적 대중교통 시스템 및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항만·통신 등 주요 인프라 스트럭처가 마련되었다.

홍콩의 서비스 주도형 경제구조 전환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지위는 정부 주도라기 보다는 시장에 있는 민간 경제주체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홍콩의 경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하부구조를 제공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주택, 보건, 교육 등 인적자본의 생산 및 개발을 위한

분야와 항만, 공항 등 인프라 분야에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경제구조 조정 등의 정책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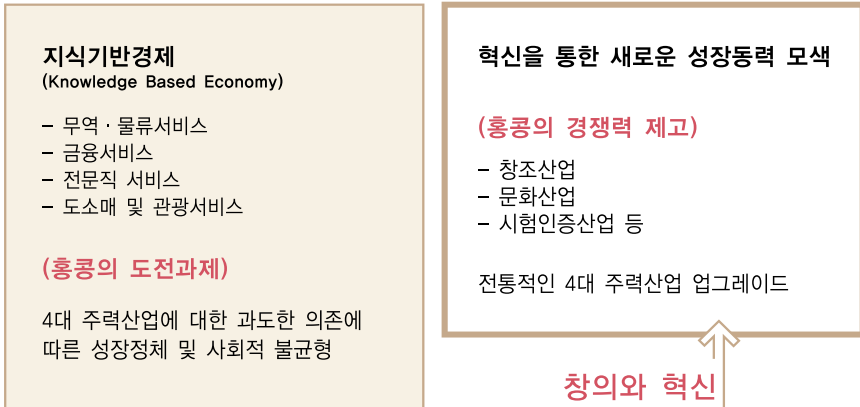
홍콩의 서비스 시장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규제체계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법규는 명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일관되게 집행되는 등 높은 품질의 행정과 사법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규제체계의 수준의 높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홍콩의 자유시장 경제는 시장에게 무한정의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모두가 깨끗하고 정직하여야 함을 홍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홍콩은 시장과 공공부문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1995년 부패방지위원회(ICAC: Independent Council Against Corruption)를 설립하였다. 그 이후 공공부문의 부패는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홍콩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부패 척결은 공공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부조리와 부패도 해소되면서, 정직하고 정당한 방식의 비즈니스 관행이 시장에도 확립되었다. 즉, 홍콩은 우선적으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폐습을 해소하면서, 시장의 경제 주체들이 한 눈 팔지 않고 정당한 비즈니스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작동시켜가면서 올바른 비즈니스 관행과 절차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4. 홍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

그렇다면 홍콩 경제는 아무런 흠결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성장 모델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성장정체, 추세적인 저금리 등 경제여건의 질적인 변화, 대내적으로는 고령화 등 세계의 주요국이 겪고 있는 과제를 홍콩 경제도 해결하여 나가는 과정에 있다. 최근 홍콩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치는 등 경제성장의 정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뉴노멀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5%에 이른 바, 홍콩의 전통적인 성장 동력 *growth driver*이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 약화와 함께 공급 측면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홍콩의 정책과제와 새로운 도약



아울러, 실물부문에서 홍콩 경제를 받쳐 온 중국본토 관광객 감소, 국제교역의 추세적인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부문에서는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정상화되면서 홍콩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모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전은 비단 홍콩에만 한정되지 않고, 아시아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국 경제가 공통으로 겪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홍콩이 서비스 산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향후 성장동력을 발견하여 나가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만큼 급격히 홍콩경제를 압박하지는 않지만,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미국 연준의 금리정상화 등 대외여건의 악화는 홍콩의 경쟁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여타 주요 국가 및 도시와 마찬가지로 홍콩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고 보다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인프라 스트럭처 확충, 기업가 정신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다.

II. 민간부문의 경쟁우위



서비스산업 주도형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

- 홍콩의 경제자유도 수준은 지난 21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아시아의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 4시간이면 접근하는 지리적·문화적 인접성과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경제를 토대로, 홍콩이 가진 장점과 잠재력을 100% 활용하면서 홍콩만의 브랜드를 확보하였다.

1. 홍콩 경제의 주요 특징

홍콩은 중국 등 아시아와 서구를 이어주는 아시아 허브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무역·금융서비스, 법무·회계·정보통신·마케팅 등 서비스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글로벌 기업·금융회사 아시아 지역본부가 홍콩에 모여 있다. 또한, 시장이 스스로 작동되도록 최소한의 개입만을 원칙으로 비즈니스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 확고한 정책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단편적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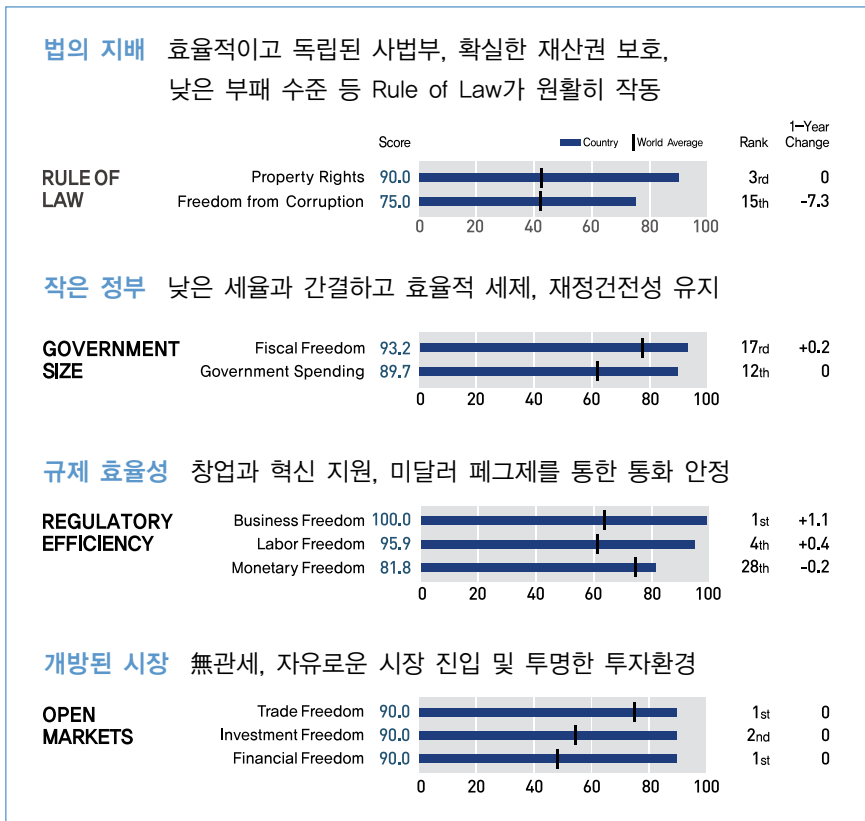
히 준수하고 재정건전성(fiscal discipline) 원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자산운용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한 데서 보듯이 주요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칙하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홍콩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해외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적극 대처하기도 하였다.

홍콩은 무역·금융서비스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 다양화를 위해 IT 서비스 등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IT 기업 및 인재들을 위한 전략적 허브로서 사이버포트(Cyberport) 및 홍콩사이언스파크(Hong Kong Science Park)를 설립하는 등 효과적인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즉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홍콩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금융결제시스템 등 인프라 기반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홍콩은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완전고용도 달성하고 있다. 개방과 무한경쟁에 따른 위험요인과 사회적 불균형도 발생한 만큼 이에 대응한 새로운 균형을 위한 조정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2. 홍콩의 경제자유도 :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경제

미 헤리티지 재단 평가에 따르면, 홍콩의 경제자유도 수준은 지난 21년간 1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평가되고 있다. 전 세계 경제자유도 순위는 홍콩(1위), 싱가포르(2위), 뉴질랜드(3위), 호주(4위), 스위스(5위), 캐나다(6위), 한국(29위), 중국(139위) 순이다.



자료출처 : 헤리티지 재단 2015년 경제자유도 지수

3. 홍콩 경제의 발전동력 10가지

홍콩이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각광을 받게 된 데에는 무역, 물류 및 금융의 거점 지역인 동시에 중국 시장의 교두보라는 특성이 잘 융합되어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홍콩의 성취는 일거에 달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실현가능한 방향^{direction}으로, 적절한 속도^{speed}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발전 단계^{sequence}를 거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홍콩의 서비스산업은 중국과 서구를 이어 주는 국제무역과 물류 거점에서 출발하여, 금융·법률·회계 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 등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고부가가치화 되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성장하여 왔다.

둘째, 홍콩 내 관광·호텔업 및 컨벤션 산업, 무역업 및 물류업, 금융업 및 법률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산업 간의 연계가 깊고, 서로가 거래상대방이 됨으로써 시장이 조성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견고한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셋째, 무역과 금융을 대표로 한 민간 서비스산업 못지않게 홍콩의 공공 서비스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낮고 간결한 세제, 법의 지배 등 적극적 불개입주의^{positive non-interventionism}로도 표현되는 홍콩의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스탠스도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홍콩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는 중국 경제의 개방과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자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는 정당스토리 China story를 확보하고 있다.

다섯째, 홍콩은 해외자본이 중국 및 아시아에 투자하는 전초기지이자, 최근에는 중국자본이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바,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로펌 등이 홍콩에 모여 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여섯째, 고용측면에서도 서비스산업만으로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등 홍콩의 장점과 잠재력을 모두 가동하면서 성장하였다.

일곱째, 최근 홍콩은 전통적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법률·중재·회계·컨설팅서비스, 디자인, 마케팅산업 및 각종 컨퍼런스, 전시회 등을 주력으로 하는 MICE 등 전문직 서비스업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여덟째, 홍콩은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길러내고, 과감하게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홉째, 홍콩에 주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와 개방적 태도도 해외자본과 우수 기업들이 홍콩으로 유입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열번째, 홍콩은 작지만 응집력을 갖춘 도시 compact city로서 각각의 서비스산업은 서로 가깝게 모여 있으면서 고객들에게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4.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구조 변화

(1) 홍콩 경제의 구조변화 및 경제적 성취

2014년 현재 홍콩 경제는 서비스 부문이 GDP중 93%를 차지하고 있는 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서비스 주도형 경제(service-oriented economy)로 탈바꿈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홍콩은 아시아 무역 및 금융의 중심지이자 중국 진출 교두보로서 세계경제의 요충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홍콩은 소규모 경제이지만, 2014년 1인당 GDP는 USD 39,800불로 세계 187개국 중 24위를 차지하였으며, 실업률은 2012년 3.3%, 2013년 3.4%, 2014년 3.2%로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

● 무역 · 물류 · 관광 · 비즈니스센터로 발전한 홍콩(1970~2014)

지 표	1970	1980	1990	2000	2014
중개무역 비중 (%)	19.1	30.7	64.7	88.5	98.5
컨테이너물동량 (만TEU)	(1973)47	147	510	1,810	2,227
항공기 이착륙 (편)	46,749	54,589	105,782	181,900	391,000
홍콩 방문객 (만명)	93	230	590	1,306	6,084
아시아지역본부 수 (개)	-	-	572	855	1,389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홍콩제조업의 중국본토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중국본토 경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역 · 물류 · 금융 · 전문직 서비스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특화하였다. 홍콩은 중국 등 아시아와 서구를 이어주는 허브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홍콩은 서구 등 해외자본이 중국 및 아시아에 투자하는 전초기지이면서, 최근에

는 중국자본이 해외투자 발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금융회사 아시아 지역본부가 홍콩에 클러스터링하고 있다. 다만, 2014년 홍콩 경제는 2.3% 성장에 그치는 등 최근 3년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중에 있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증가율	2.1%	-2.5%	6.8%	4.8%	1.5%	2.9%	2.3%

(2) 서비스 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변화

홍콩의 서비스산업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67.5%에서 2012년 93.0%로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제조업 GDP 비중은 같은 기간 23.7%에서 1.5%로 하락하여, 현재 홍콩 경제에서 제조업의 역할은 미미하다.

홍콩의 서비스산업은 거의 모든 업종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GDP 비중이 증가하였다. 도소매·무역·음식·숙박업은 GDP 비중이 1980년 21.4%에서 2012년 29.0%로 증가하여 전체 서비스산업 GDP 비중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공행정·사회·개인서비스업과 금융·보험·부동산·비즈니스서비스업도 전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증가에 각각 18%, 17% 정도 기여하였다. 운수·창고·통신업은 GDP 비중이 1980년 7.4%에서 2012년 9.5%로 증가하여 전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증가에 약 8% 정도 기여하였다. 최근 2000년대에는 서비스산업에서 금융·보험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무역업, 도·소매업, 전문·비즈니스서비스업의 성장세도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공

공행정·사회·개인서비스업과 운수·창고·우정서비스업은 이 기간 동안 GDP 비중이 감소하였다.

홍콩의 총 고용은 1980~2012년간 약 170만 명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 서비스산업에서 234만명 증가, 제조업은 73만명 감소하였다. 그 결과 홍콩 서비스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4.9%에서 2012년 87.7%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1980년 45.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현재 3.7%에 불과하다.

동 기간 동안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도·소매·무역·음식·숙박업 78만명이며, 금융·보험·부동산·비즈니스서비스업 62만명과 공공행정·사회·개인서비스업 65만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2년 현재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도·소매·무역·음식·숙박업 31.6%이며, 공공행정·사회·개인서비스업 25.6%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금융·보험·부동산·비즈니스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2000~2012년 동안 금융·보험·부동산·비즈니스서비스업에서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공공행정·사회·개인서비스업에서 18만개, 도·소매·무역·음식·숙박업에서 17만개가 창출되었다.

(3) 무역구조의 변화

홍콩의 무역구조는 기본적으로 상품무역 중심이며 최근 들어 서비스무역 규모의 증가속도가 다소 빨라지는 추세이다. 홍콩 무역구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품수출의 경우 제조업이 쇠퇴함에 따라 자체수

출 중심에서 재수출 중심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전체 상품수출액에서 자체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81.0%까지 이르렀으나 2013년에는 1.5%에 불과한 반면, 재수출은 같은 기간 19.0%에서 98.5%로 증가하였다. 또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홍콩에서 필요한 상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상품수입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품수출액 및 수입액은 1980~2013년간 각각 연평균 11.5%와 15.1%씩 증가하였다. 그 결과, 홍콩의 상품무역 수지는 관련 통계가 발표된 195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적자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품무역 수지는 2004년 HKD 793억불 적자에서 지속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적자규모가 HKD 5,010억불에 달하였다.

홍콩 무역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2003년 중국과 홍콩의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협정 체결 이후 서비스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CEPA란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 하에서 중국과 홍콩 간에 체결된 일종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으로서, 2003년 6월 체결된 이후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CEPA 협정으로 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홍콩에 시장을 대폭 개방하여 홍콩이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서비스수출은 1981~1991년간 연평균 16.4%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1~200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둔화되었다. 그러나 2004년 중국과의 CEPA 발효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11.6% 증가하였다. 서비스수입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981~1991년 16.1%, 1991~2004년 11.0%, 2004~2012년 5.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홍콩 간 CEPA는 현재까지 총 65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폭

넓은 개방양허를 포함하고 있어 홍콩의 대중국 서비스수출 증가에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홍콩 CEPA는 2003년 6월 협정이 체결된 이후 매년 1회씩 보충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보충협정에서 서비스 부문과 무역투자에 대한 개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체결한 협정은 2013년 8월에 체결한 제10차 보충협정으로, 이 협정에는 65건의 서비스무역 개방조치와 금융협력, 무역 및 투자 촉진 관련 8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65건의 서비스무역 개방조치를 포함하여 CEPA 협정에서 총 403개의 개방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서비스무역 개방조치 하에서 홍콩의 대중국 서비스수출 규모 및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중국 서비스수출액은 2003년 HKD 1,023억불에서 2012년 HKD 2,694억불로 연평균 11.4%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대중국 서비스수출 비중이 2003년 28.8%에서 2012년 36.6%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홍콩이 중국 다음으로 서비스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인데, 대미 서비스수출액은 2003년 HKD 744억불에서 2012년 HKD 1,147억불로 연평균 4.9% 증가하여, 대미 서비스수출 비중이 2003년 20.9%에서 2012년 15.6%로 감소하였다.

홍콩은 서비스수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09년부터 서비스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서비스수출 증가와 서비스수지 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종은 여행업이다. 여행업은 2005~2012년간 서비스수출액이 HKD 1,764억불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서비스수출 증가액의 44.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수출 증가로 인해 여행업 수지는 2005년 HKD 234억불 적자에서 2012년 HKD 1,008억불 흑자로 개선되었다. 운송 및 금융서비스의 대규모 수출 증가도 서비스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아시아 무역허브로서의 홍콩

- 홍콩의 산업은 93%이상이 서비스업으로 대부분 중개무역과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유통, 금융, 전문서비스 등이 차지
- 홍콩자체의 제조업은 1980년대까지 GDP의 24%를 차지하였으나, 중국의 개방과 더불어 생산시설의 광동성 이전으로 현재는 GDP의 1.5%에 불과
- 제조업 생산활동이 홍콩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제조업의 전반적인 가치사슬 측면에서 홍콩의 경쟁력은 매우 높아 홍콩을 중심으로 한 무역액은 세계 9위
- CEPA 협정으로 제3국가 기업들은 홍콩을 중국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중국기업은 홍콩을 해외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여 Super connector로서 역할

1. 국제적인 무역과 서비스 거래의 중심지

홍콩은 세계적인 무역과 서비스 거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은 오랜 기간동안 가장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2014년

기준 홍콩의 무역액은 USD 1조 189억불로 우리나라(USD 1조 981억 불, 8위)와 경쟁하는 세계 9위의 무역국가이다.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 훨씬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국가들보다 많은 무역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홍콩의 무역성과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 정부의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2014 국가별 교역규모 순위(WTO)

Appendix Table 3 : Leading merchandise exporters and importers, 2014 (billion US\$ and percent)

Rank	Exporters	value	Share	Annual percent change	Rank	Exporters	value	Share	Annual percent change
1	china	2,342	12.4	6	1	United States	2,413	12.7	4
2	United States	1,621	8.6	3	2	China	1,959	10.3	0
3	Germany	1,508	8.0	4	3	Germany	1,216	6.4	2
4	Japan	684	3.6	-4	4	Japan	822	4.3	-1
5	Netherlands	672	3.6	0	5	United Kingdom	684	3.6	4
6	France	583	3.1	0	6	France	678	3.6	-1
7	Korea, Republic of	573	3.0	2	7	Hong Kong, China	601	3.2	-3
8	Italy	529	2.8	2		- retained imports	151	0.8	6
9	Hong Kong, China	524	2.8	2	8	Netherlands	588	3.1	0
	- domestic exports	16	0.1	-2.0	9	Korea, Republic of	526	2.8	2
	- re-exports	508	2.7	-1	10	Canada*	475	2.5	0
10	United Kingdom	506	2.7	-7	11	Italy	472	2.5	-2
11	Russian Federation	498	2.6	-5	12	India	463	2.4	-1
12	Canada	475	2.5	4	13	Belgium	452	2.4	0
13	Belgium	471	2.5	1	14	Mexico	412	2.2	5
14	Singapore	410	2.2	0	15	Singapore	366	1.9	-2
	-domestic exports	216	1.1	-1		- retained imports ^b	173	0.9	-5
	-re-exports	194	1.0	1	16	Spain	358	1.9	5
15	Mexico	398	2.1	5	17	Russian Federation*	308	1.6	-10
16	United Arab Emirates ^c	360	1.9	-5	18	Chinese Taipei	274	1.4	2
17	Saudi Arabia, Kingdom of ^c	354	1.9	-6	19	United Arab Emirates ^c	262	1.4	4
18	Spain	325	1.7	2	20	Turkey	242	1.3	-4
19	India	322	1.7	2	21	Brazil	239	1.3	-5
20	Chinese Taipei	314	1.7	3	22	Australia ^c	237	1.2	-2

자료출처: WTO, "World Trade Report 2014"

2. 시대별 홍콩의 가치사슬 변화와 교역의 특징

홍콩 무역의 특징은 중개무역과 중국 광둥성 지역의 등관, 선전 등의 공업지역을 활용하는 가공무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1842년 난징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면서 유럽과 중국 본토 및 아시아를 연결했던 전통적 중개무역 센터로서의 전통뿐만 아니라 홍콩 정부의 무역,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난징조약 이후 1940년대까지 홍콩은 중국과의 중개무역 거점^{Entrepot}으로 성장해 왔다.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 홍콩 정부의 자유무역 정책과 정치적 안정, 충분한 항만시설 등은 홍콩이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하고, 은행 및 무역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 본토는 국제경제와 단절되는 과정을 겪기 시작했다. 홍콩은 중국과의 교역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950년대는 직물산업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의류, 전자제품, 플라스틱 기타 노동집약적 제품들로 다양화되면서 발전하였다. 다만,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한국,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자발적 대응에 기인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홍콩은 다시 한번 경제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의 비관세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한국과 대만 등 경쟁 신흥공업국에 비해 기

술발전이 뒤처지면서 홍콩제품의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되자 홍콩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홍콩기업들이 광둥성의 주강삼각주^{PRD: Pearl River Delta} 지역으로 가공공정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기준으로 홍콩의 주강삼각주 투자액은 광둥지역 총 FDI의 약 80%인 USD 480억 불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조업의 중국 이전과 함께 홍콩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90년대 이후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들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창출된 것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은 광둥성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중국 생산 상품에 대한 무역서비스, 법률, 회계, 금융 등 전문 서비스 분야가 중국내에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 전문화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홍콩의 제조업은 1980년 홍콩 GDP의 24%에서 2000년 4.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같은 기간 6%에서 87%로 증가하게 되었다. 고용부문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제조업은 23%에서 10%로, 서비스산업은 52%에서 7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더욱 심화되어 2012년 홍콩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5%, 서비스업 비중은 93%까지 증가하여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다. 서비스산업 내에서는 유통, 무역, 숙박업 (29.0%), 금융, 보험, 전문서비스업 (27.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운수, 창고, 통신업(9.5%)과 기타 서비스업(10.3%)도 그 뒤를 잇고 있다.

● 경제 활동별 GDP 구성변화

(단위: 백만 홍콩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농/어업/광업/채석	1,015 0.1	925 0.1	1,090 0.1	948 0.1	944 *	1,114 0.1	1,225 0.1
제조업	31,729 2.0	30,993 1.9	28,227 1.8	29,965 1.8	30,578 1.6	30,600 1.5	30,049 1.4
전기/가스/수도	40,685 2.6	39,585 2.5	34,961 2.3	34,961 2.3	34,466 2.0	33,882 1.8	35,644 1.7
건설	40,611 2.6	48,357 3.0	50,146 3.2	56,277 3.3	65,484 3.4	73,445 3.6	82,670 3.9
서비스	1,466,109 92.8	1,473,037 92.5	1,436,427 92.6	1,581,310 92.9	1,771,677 93.1	1,872,498 93.0	1,945,411 92.9
도소매/무역	374,614 23.7	393,913 24.7	365,880 23.6	408,361 24.0	492,900 25.9	511,537 25.4	521,384 24.9
음식점/숙박업	48,827 3.1	53,596 3.4	48,787 3.1	56,409 3.3	66,421 3.5	72,044 3.6	74,027 3.5
운송/물류	119,728 7.6	98,245 6.2	99,048 6.4	137,769 8.1	120,034 6.3	120,609 6.0	123,971 5.9
정보/통신	50,873 3.2	48,258 3.0	46,808 3.0	54,318 3.2	62,953 3.3	70,866 3.5	75,382 3.6
금융/보험	304,764 19.3	255,586 16.0	235,581 15.2	262,021 15.4	306,787 16.1	319,312 15.9	342,077 16.3
부동산/비즈니스서비스	146,562 9.3	165,594 10.4	173,583 11.2	187,850 11.0	213,965 11.2	232,416 11.5	232,462 11.1
사회/개인서비스	254,391 16.1	269,601 16.9	279,453 18.0	285,630 16.8	313,612 16.5	337,678 16.8	357,230 17.1
부지소유권	166,352 10.5	188,244 11.8	187,286 12.1	188,952 11.1	195,005 10.2	208,036 10.3	218,878 10.4
상품의 세금	74,806	73,557	70,047	74,434	69,401	63,575	65,398

주 : (*) 0.05% 이하를 나타냄
자료 : 홍콩통계청(2014년 12월 기준)

일부에서는 홍콩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에 집중함으로써 제조업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홍콩의 서비스업은 상품의 기획-디자인-설계-제조-물류-판매 등의 산업 가치사슬 Value Chain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제조활동이라는 일부 기능을 값싼 노동력과 토지가 풍부한 중국으로 재배치 것이고,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브랜딩, 마케팅, 유통 등 다른 활동들을 여전히 홍콩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홍콩의 기업들이 주로 의류, 식료품, 전자제품 등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10~20% 수준으로 매우 낮고, 이보다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유통 등의 단계에서 70~80% 이상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이다.

● 6대 전략사업 규모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홍콩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문화창의산업	63,366 (4.0%)	77,573 (4.5%)	89,553 (4.7%)	97,829 (4.9%)
의류산업	23,914 (1.5%)	26,128 (1.5%)	27,401 (1.4%)	29,464 (1.5%)
교육산업	16,517 (1.0%)	17,541 (1.0%)	19,975 (1.0%)	22,603 (1.1%)
혁신기술사업	10,733 (0.7%)	11,766 (0.7%)	12,371 (0.7%)	13,422 (0.7%)
검사인증산업	5,081 (0.3%)	5,157 (0.3%)	5,368 (0.3%)	5,827 (0.3%)
환경보호산업	4,697 (0.3%)	5,603 (0.3%)	6,515 (0.3%)	6,750 (0.3%)
총 합계	124,208 (7.9%)	143,768 (8.3%)	161,183 (8.5%)	175,895 (8.7%)

자료 : 홍콩통계청

이러한 가치사슬 프로세스는 홍콩의 대외무역 추이 실적에서도 잘 드

러난다. 2014년 실적에서 홍콩의 상품수출은 4,739억불이었는데 이중 98.5%가 해외 상품을 수입하여 재수출한 것이다. 이중 53.9%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수입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홍콩의 2014년 홍콩의 수입액은 5,444억불이었는데 이중 47.1%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홍콩은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외무역액 1조 189억불을 기록,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면적을 가진 우리나라도 홍콩과 비슷한 규모의 교역액(2014년 1조 981억불)이고, 러시아, 캐나다 등도 홍콩보다 작은 교역 규모를 가지고 있다.

● 홍콩의 대외무역 추이(1957~2014)

(단위: USD 억불)

구분	1957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2014
상품수출	4	20	127	826	2,029	3,911	4,593	4,739
재수출	2	4	39	534	1,796	3,821	4,523	4,668
홍콩제품	2	16	88	291	234	90	70	71
상품수입	7	23	144	829	2,139	4,342	5,240	5,444
무역액	10	42	271	1,655	4,169	8,253	9,833	10,183
무역수지	-3	-3	-17	-3	-110	-431	-646	-705

구체적인 홍콩의 무역방식은 무역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품기획이나 디자인, 제조관리 등의 능력이 없는 소형 회사들은 완성된 해외제품을 중국 본토에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기, 의류, 화장품, 식품 등 특정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조회사들이나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무역회사들의 로컬 에이전트나 디

스트리뷰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중국본토 등 생산지에서 자신들이 기획한 제품을 조달하면서 제품공급회사에 원자재 공급, 신용장 개설 등 자금지원, 품질관리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간 업체들은 제품공급 회사에 목표시장에 대한 리서치 등을 통해 디자인 또는 부품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홍콩에 근거를 둔 회사들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를 Offshore Trad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실적은 위에서 언급한 홍콩의 수출입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홍콩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Offshore Trading의 규모는 6,436억불로 홍콩을 거쳐간 무역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다. 이는 단순 무역상사로서 홍콩회사들이 기능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국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제조 또는 가공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추정된다.

홍콩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자제품 및 부품(30.0%), 통신·음향(19.6%), 사무기기·컴퓨터(11.3%), 잡제품(6.1%), 의복(4.3%) 등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중국본토(53.9%), 미국(9.3%), 일본(3.6%), 인도(2.6%), 대만(2.2%), 독일(2.0%), 한국(1.7%)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재수출 비중(2014년 98.5%)이 높음에 따라 주요 수출품목과 주요 수입품목이 유사한 구조이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전자제품 및 부품(30.1%), 통신·음향(16.6%), 사무기기·컴퓨터(9.0%), 잡제품(6.4%), 비철광물(5.0%) 등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본토(47.1%), 대만(7.1%), 일본(6.8%), 싱가포르(6.2%), 미국(5.2%), 한국(4.1%) 등으로 구성된다.

● 홍콩의 수출입 추이(2008~2014)

(단위: 백만 HKD,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품수출	28,242 (5.1)	24,691 (-12.6)	30,310 (22.8)	33,373 (10.1)	34,343 (2.9)	35,597 (3.6)	36,728 (3.2)
중개수출	27,334 (6.0)	24,113 (-11.8)	29,615 (22.8)	32,716 (10.5)	33,755 (3.2)	35,053 (3.8)	36,175 (3.2)
홍콩제품	908 (-16.8)	577 (-36.5)	695 (20.5)	657 (-5.5)	588 (-10.4)	544 (-7.6)	553 (1.7)
상품수입	30,253 (5.5)	26,924 (-11.0)	33,648 (25.0)	37,646 (11.9)	39,122 (3.9)	40,607 (3.8)	42,190 (3.9)
무역수지	-2,011	-2,233	-3,338	-4,273	-4,778	-5,010	-5,463

※ 출처: 홍콩통계처

3. 홍콩의 주요 교역 분야

제조업 분야 홍콩의 주요 교역품은 전자·전기·통신 관련 제품이다. 이들 관련 제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제품 또는 부품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주강삼각지역에서 가공정을 거쳐 다시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2014년 재수출액 중에서 전자·전기·통신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3%에 이르고 있는 바, 홍콩회사들이 중국, 베트남 등의 가공공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를 수입해서 재수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의 비싼 임대료 및 임금 때문에 홍콩에서 부피가 큰 상품의 조립 및 생산 등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홍콩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은 자체 생산하는 주요수출 품목은 많지 않으나, 부피

나 중량대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주얼리나 금·은 등의 신변장식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얼리 품목은 2014년 기준 USD 76억 불로 전체 수출액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의 對홍콩 무역 현황

(단위: USD 백만불)

구 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증감률(%)		증감률(%)	
14년	27,756	-1.8	1,750	-9.3	25,506
'15년 누계	19,364	9.8	1,040	-14.3	18,323

홍콩과 우리나라의 교역도 크게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 우선 무역 규모면에서 홍콩은 한국에 있어 중국, 미국 다음가는 제3대 교역국가로서 2014년 수출금액은 277억불, 수입금액은 17억불로 한국의 대홍콩 무역흑자는 255억불에 달한다. 주요 교역품은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류, 플라스틱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류의 수출이 연간 10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산 화장품의 홍콩시장 점유는 유럽 및 일본제품에 밀려 7위였으나, 2015년 상반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은 서비스 분야의 교역도 활발하여 2014년 USD 1,558억불의 서비스교역액을 기록하였고, 이중 USD 1,076억불을 수출하여 서비스 교역이 GDP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서비스 교역은 세계 15위 규모로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 2015년 8월 누계 對홍콩수출 10대 품목 현황

(단위: USD 백만불)

순위	품목명	2014					2015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증감(%)	수입	증감(%)	수지
1	전기기기, 부분품	16,385	860	15,525	11,720	11.3	538	-3.2	11,182
2	기계류, 부분품	1,550	254	1,296	1,144	24.7	101	-51.0	1,043
3	플라스틱	1,630	45	1,585	1,111	5.9	31	3.9	1,080
4	선박, 수상 구조물	20	0	19	1,108	5,513	40	21,879	1,068
5	광물성 원료 등	1,971	8	1,963	1,016	-23.1	5	187.0	1,011
6	광학, 의료 정밀 기기	1,325	61	1,263	724	-20.8	37	-11.3	687
7	화장품류	409	7	402	428	101.3	5	19.2	423
8	귀금속 및 보석	1,075	127	947	369	-52.9	77	-19.4	292
9	가죽 및 제품	270	3	266	166	-10.3	2	-25.6	164
10	유리제품	167	4	163	150	35.9	9	214.8	141

※ 자료 출처: 한국 무역협회

이러한 홍콩 서비스업 교역 중심에는 역시 무역, 물류, 유통업이 자리 잡고 있다. 2014년 무역·유통 분야의 GDP 비중은 25.4%에 달하고 있으며, 사업체수 기준 51%, 고용기준 30.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전통적인 무역업이 GDP 대비 비중이 20.4%로 가장 높으나 최근에는 유통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소매업의 경우 2007년 HKD 2,470억불에서 2013년 HKD 4,645억불로 연평균 12.3%씩 성장하고 있다. 홍콩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글로벌 유통업체가 진출해 있으

며, 신규 진출 도시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홍콩의 국제무역 센터로서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홍콩의 국제무역중심지로서의 경쟁우위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세계 각국과 경쟁하면서 국제무역센터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는 홍콩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크게 비교우위적 요인과 경쟁우위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교우위적 측면에서 중국 본토와의 지리적 인접성,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문화적 복합성 및 개방적 태도, 무역업 종사자들의 언어능력(중국어, 광둥어, 영어) 등을 손꼽힌다. 이러한 점들은 홍콩이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로서 태생적으로 얻어진 요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어진 비교우위적 측면 외에도 홍콩 정부가 오랜 시간 노력해서 구축한 제도적 장치들도 홍콩이 다른 경제권에 비해 가지는 경쟁우위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무역항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따라 홍콩의 무역업체들은 제품의 조달 및 판매에 있어 다른 나라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10~20% 수준의 관세와 15~20% 수준의 특별소비세를 사치품에 부과하고 있으나, 홍콩은 이러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해외 유명브랜드 의류나 신발, 가방,

주얼리 등의 제품을 자국내에서 보다 홍콩에서 싸게 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강점은 홍콩을 “쇼핑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홍콩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글로벌 유통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신규진출 도시 기준에서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낮은 단일세율 법인 소득세(16.5%)를 부과하고 해외수익,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홍콩의 지정학적 요인과 영어사용 환경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이러한 낮고 간단한 세제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이 아시아 헤드쿼터로서 홍콩을 선택하게 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홍콩에 헤드쿼터를 두고 아시아 각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각국 지사에서 헤드쿼터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홍콩에서의 법인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이니 다른 나라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해외기업의 자국내 투자유치를 원하는 많은 나라들이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세 번째로는 일국양제하에서도 독립된 사법부와 법의 지배 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법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언제 중국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규제나 장애물을 만들어 들이밀지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국내기업과 분쟁이 있을 경우 해외기업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위협요인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홍콩은 안정된 분쟁해결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해외기업이 가지는 위협요인을 크게 해소시켜준다.

• 아시아 중개무역의 중심지로서 홍콩



5. 정책적 지원

홍콩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경제에 불필요한 간섭을 가급적 억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언급한 낮고 간단한 조세제도, 법의 지배는 이러한 홍콩정부의 정책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시장경제가 지탱될 수 없다. 따라서 홍콩정부도 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 참여,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콩은 여러 국가기관을 운영

하고 있다.

우선 홍콩정부는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WTO에 ‘Hong Kong, China’라는 이름으로 중국과는 별도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의 국제무역은 WTO rule에 따르고 있다. 홍콩은 2001년부터 시작된 Doha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에 참가한 첫 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다.

지역경제 협력도 홍콩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우선 홍콩은 APEC 회원국으로 APEC 정상회의, APEC 경제장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홍콩 무역의 83%가 APEC 회원국과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APEC은 홍콩에서 매우 중요성이 높은 지역경제 협력체제이다.

중국과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정도 홍콩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무역정책이다. 이 협정은 2003년 홍콩과 중국간의 자유무역을 위해 체결되었는데 이후 2014년까지 10회의 보충협정이 체결되어 중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은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이러한 무관세 품목은 1,800개 품목에 이른다. 2014년 중국과 홍콩은 CEPA의 체계아래에서 광동성의 153개 서비스업에 대해 홍콩에 시장을 개방하는 부속협정(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gdong)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전체 WTO 서비스 섹터 분류의 95.6%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에 따라 CEPA는 중국이 다른 경제권과 맺은 가장 광범위한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 홍콩-중국 무역 및 투자 협력 방안 주요내용

분야	협력방안
통관	- 양국 세관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 - 양국의 위험관리능력 강화 및 기술협력을 통한 효율성 향상 등
중소기업협력	- 양국 중소기업 간 정보교환 기회 창출 - 중소기업 발전지원을 위한 공동전략 및 지원 정책 모색
산업협력	- 양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의학, 의료 제품 산업, 컨벤션 및 전시 산업, 문화산업, 환경산업, 혁신 및 기술 산업부문에 걸쳐 교류 강화
무역 및 투자	- 양국 간의 상호 무역 및 투자 촉진 강화 - 상품 및 엔지니어링 공동 개발 협력

CEPA 협정상 홍콩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은 홍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회사, 홍콩내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내에서 3~5년간 사업이력을 보유,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 직원 50% 이상을 홍콩인으로 고용, 중국 수출 물건의 부가가치중 30% 이상이 홍콩에서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이다.

홍콩정부는 중국의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내에서

● 중국 · 홍콩 CEPA 서비스무역 개방 업종

회계	개체공상호(자영업)	전문자격시험
광고	보험	공공사업서비스
장례서비스#	학제간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철도운송
항공운송*	인력 관리 및 중개업*	육상운송*
시청각*	법률*	연구개발 서비스
은행*	물류	과학 · 기술 컨설팅 서비스
건물청소*	경영 컨설팅	증권*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및 프로젝트 관리 관련 서비스
건설 및 부동산*	의료 및 치과*	노인 ·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회계	개체공상호(자영업)	전문자격시험
전시 및 컨벤션	제조업 연관 서비스	오락·문화·체육서비스 (도서관/박물관 서비스 포함)*
문화오락*	해상운송*	저장 및 보관
유통*	채광 서비스	기술 테스트·분석 및 제품 테스트*
복제·인쇄업(duplication)#	기타 사업서비스	통신*
교육서비스	특허대리	관광*
환경*	사진*	상표대리*
화물취급증개업*	인쇄(printing)*	통번역*

자료: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주: * 표시된 업종은 10차 보충협정에 따라 개방이 확대된 업종이고,

표시 업종은 10차 보충협정에서 신규 개방된 업종이다.

기대되는 사업기회에 자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2년 약 1억불의 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조정, 브랜드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 이외에도 홍콩은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홍콩은 칠레, 뉴질랜드, 스위스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ASEAN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홍콩은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무역정책 못지않게 자유시장경제에 중요한 부분이 지식재산권 보호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발전이나 디자인 등에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고, 이에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홍콩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등의 등기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며, 관련 자료를 인터

넷으로 중국어와 영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34,251개의 상표권이 등록되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8.9% 증가한 수치다. 특허권 조례^{The Patent Ordinance}에 따라 중국, 영국, 유럽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홍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등록된 특허는 5,932개이며 이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홍콩정부는 혁신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을 설립하여 혁신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The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를 설치, 2014년에 9억불을 투자, 4,300개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ITF내에 홍콩 대학내 창업을 위한 새로운 펀드를 조성, 6개 대학에 각각 4백만불씩 투자해 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홍콩정부는 홍콩기업들이 홍콩내 각종 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30%를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을 샤틀(新界)지역에 구축하여 기술 중심 기업에 대한 핵심지원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으며, 창업보육기능, 기업과 지역내 연구소 등과의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6. 관련 정부기구 및 기관

홍콩의 산업 및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부처는 상무발전부 CEDB: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이다. 상무발전부는 정책을 입안

하고 조율하는 중앙정부 기구이며 상무발전부 산하에 다양한 형태의 하부조직이 입안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기술혁신위원회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는 기업과 대학의 혁신 및 기술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Invest Hong Kong은 대내외 투자유치를, 홍콩무역공업서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는 무역과 산업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 Economic and Trade Office ETO는 홍콩과 다른 나라 간 경제협력을 위해 만든 해외주재 홍콩정부 기구로서 중국 본토내 5개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18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비록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이나, 외교권이 없는 홍콩정부로서는 ETO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같이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국가는 ETO 및 ETO 직원에 대해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홍콩무역발전국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은 홍콩의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한 민간기구로 홍콩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 전람회 등을 기획하고 해외 시장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및 정부산하 기구 이외에도 홍콩에서는 각종 협회나 상공회 활동이 활발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홍콩 상공회의소 HKGCC: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와 홍콩 중화총상회 HKCGCC: Hong Kong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를 들 수 있다. 상공회의소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정보 공유 포럼 등은 물론, 연구사업,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홍콩상공회의소 HKGCC는 1861년 설립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재계 모임이다. 현재는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해외기업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홍콩의 Hang Seng Index에 포함된 기

업들의 과반수 이상이 회원이며, 회원사들이 홍콩근로자의 1/3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홍콩중화총상회^{HKCGCC}는 1900년에 설립된 국내외 화교 사업가들 위주로 상공회로 약 6,000명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다. 전 회장인 Dr. Jonathan Choi Sunhwa Group 회장은 한국과 홍콩기업간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모임인 한-홍콩 비즈니스카운슬의 의장으로서 한국정부가 명예 한국투자대사로 임명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홍콩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므로, 각국 상공회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인도상공회의소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홍콩 현지에 진출한 1,700여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국상공회의소^{KCCHK; Korea Chamber of Commerce in Hong Kong}를 구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통 및 물류

- 국제무역항으로서 홍콩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아시아 나아가 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 2014년 홍콩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2,220만 TEU(Twenty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기준)로 세계 4위를, 첵랍콕 국제공항은 여객량과 화물량 종합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1. 효율적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국제무역항으로서 홍콩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아시아 나아가 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어진 지정학적 여건만으로는 현재의 홍콩이 가지는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입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홍콩 정부는 홍콩이 가진 지정학적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물류시설을 갖추었고, 홍콩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차가 없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효율적인 교통 및 물류인프라 구축 및 운영은 홍콩의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대형 항만 및 해운서비스

홍콩은 2014년 2,220만 TEU(Twenty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기준 컨테이너)를 처리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한 빅토리아항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빅토리아항에서는 2014년 380,100여대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가운데 298만톤의 화물을 처리하였고, 29.3만명의 승객이 이용하였다.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인 홍콩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항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홍콩은 주변국가의 화물을 모아서 큰 배에 옮겨 싣는 환적항으로서 기능도 크게 발달하여 해운·물류업 자체도 크게 발전한 지역이다.

● 세계 10대 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 처리실적 추이

(단위 : 만 TEU, %)

순위	2004		2010		2014		연평균 증가율
	항만	물동량	항만	물동량	항만	물동량	
1	싱가포르	2,133	상하이	2,907	상하이	3,529	9.3
2	홍콩	2,198	싱가포르	2,843	싱가포르	3,355	4.6
3	상하이	1,456	홍콩	2,370	선전	2,403	5.8
4	선전	1,366	선전	2,251	홍콩	2,228	0.1
5	부산	1,149	부산	1,418	닝보-저우산	1,945	17.1
6	카오슝	971	닝보-저우산	1,314	부산	1,868	5.0
7	로테르담	829	광저우	1,255	칭다오	1,662	12.5
8	함부르크	700	칭다오	1,201	광저우	1,616	17.2
9	두바이	643	두바이	1,160	두바이	1,525	9.0
10	LA	732	로테르담	1,114	텐진	1,405	13.9
-	합계	12,177	합계	17,833	합계	21,536	5.9
-	중국 항만	5,020	중국 항만	11,298	중국 항만	14,788	11.4
-	비중	41.2	비중	63.4	비중	68.7	-

자료 : containerization International Yearbook(각 년호) / www.portcontainer.com(중국) / www.singaporepsa.com(싱가포르항) / web.dpworld.com(두바이 항) / www.spidc.go.kr

홍콩의 항만시설은 315개의 부두, 127km에 달하는 방파제, 506헥타에 달하는 태풍 대피소, 5km에 이르는 공용 화물처리장, 그리고 3,590헥타의 정박지를 보유하고 있다. Kwai Chung, Tsing Yi 지역에 있는 9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24개의 컨테이너 선석을 갖추고 있으며, 이 항만의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2천만 TEU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부산신항의 화물처리능력이 1,320만 TEU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규모이다. 아시아 허브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홍콩 정부는 2013년 8월 Kwai Tsing 컨테이너 항만의 준설작업을 시작하였다. 2016년초 준설작업이 끝나면 항로의 수심은 17.5미터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이 조수간만의 차이에 관계없이 항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주장삼각지역 및 마카오 등을 여행하는 여객수송 시스템도 눈여겨 볼만 하다. 마카오와 홍콩간을 연결하는 홍콩-마카오 페리터미널은 10개의 선석이 있으며,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주장삼각지를 연결하는 차이나 페리 터미널은 12개의 선석을 가지고 있으며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홍콩의 항만운영은 운수국Marine Department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항만운영위원회Port Operation Committee는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한 자문기구이며,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인도하는 도선(導船) 서비스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해운자문위원회Shipping Consultative Committee는 항만을 이용하는 해운업과 관계된 자문을 하며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에 홍콩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항으로서 홍콩항의 위상은 다소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제조업이 크게 성장한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13년간 연속으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지만, 중국이 항만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인식하고 중국내 화물처리를 위해 상하이와 선전 등에 대규모 항만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자 중국과의 환적을 위한 물동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수출입 물품 운송이 더 이상 홍콩을 거치지 않고 상하이와 선전에서 직접 선적된 데 기인한다.

홍콩 정부는 홍콩항의 재도약을 위해 최근 2030년까지의 홍콩항 발전전략을 위한 연구를 마치고 교통주택장관과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홍콩항만발전위원회(Hong Kong Port Development Council)를 주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홍콩항 발전전략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홍콩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허브 항만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홍콩에는 약 70개의 해운회사들이 전 세계 510개의 항만으로 매주 350회 이상의 운항을 하고 있다. 더불어 약 700개의 선적·하역, 선박 관리, 선박 중개, 해상보험, 선용품 서비스 등 해운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해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은 또한 세계적인 선박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해운회사는 특성상 여러 지역 또는 국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홍콩 정부는 해운회사의 수입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9개국 정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3.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 및 항공서비스

1998년 홍콩정부는 홍콩 카우룽반도 동쪽에 운영하고 있던 국제공항을 폐쇄하고 란타우섬 북쪽으로 이전하여 책랍콕 국제공항을 개항하였다. 이 공항은 24시간 운영체제로 약 90개의 항공사가 입주하여 전 세계 155개국과 연결된 직항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책랍콕 공항은 1,248만㎡(378만평)으로 런던 히드로 공항과 비슷하고 인천국제공항(335만평)보다 다소 큰 규모이다. 연간 평균 4,5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대 처리 여객수는 8,700만명, 화물은 360여만톤으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 홍콩 책랍콕 공항 사진



2014년 국제항공협회(Airport Council International)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홍콩 책랍콕 국제공항은 여객 62백만명으로 두바이와 히드로 공항에 이어 세계 3위, 화물처리는 430만톤으로 세계 1위, 여객과 화물을 종합할 경우 세계 1위의 공항으로서의 명성을 누리고 있다.

● 2014년 세계 10대 공항 여객 및 화물처리 실적

순위	공항명	여객처리	화물처리	종합순위*
1	홍콩 책랍콕	62,930,000	4,378,000	106,710,000
2	두바이	69,954,392	2,367,574	93,630,132
3	히드로	68,091,095	1,489,959	82,990,688
4	샤를르 드 골	58,623,111	1,850,082	77,123,931
5	프라포트	52,713,013	2,007,473	72,787,742
6	싱가폴 창이	53,287,815	1,843,816	71,725,975
7	스키폴	54,940,534	1,633,195	71,272,483
8	인천	44,906,813	2,474,151	69,648,323
9	타이페이	35,402,285	2,072,602	56,128,305
10	나리타	29,625,075	2,043,399	50,059,065

* 종합순위=여객+화물×10 (여객과 화물의 종합처리실적)

자료출처 :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2015

이러한 홍콩 책랍콕 공항의 실적 역시 홍콩 정부와 공항공사의 효율적인 서비스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선 홍콩 정부는 전 세계 63개국과 항공협정을 맺어 홍콩을 통한 국제항공노선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홍콩 항공사로는 Cathay Pacific Airways가 전 세계 73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고, Hong Kong Dragon Airlines(43개 도시), Air Hong Kong(12개 국가, 화물전용기), Hong Kong Airlines(37개 도시) 등이 있으며, 저가항공으로는 Hong Kong Express Airways가 16개 아시아 도시를 운행하고 있다.

4. 홍콩의 교통인프라

좁고 산지가 많은 홍콩의 지형에 비추어 홍콩내의 교통은 아주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콩섬을 비롯한 여러 개의 섬과 카우룽반도의 연결을 위해 도로와 터널, 교량이 잘 구축되어 있다.

홍콩의 도로망은 연장 2,099km이며, 1,330개의 구조물, 16개의 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3개의 터널은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잇는 해저 침매터널인데, 이구간은 빅토리아 항을 운행하는 선박이 드나드는 길목으로, 만약 교량을 건설했다면 교량 밑을 선박이 통과해야 하므로, 선박운항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해저터널로 건설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홍콩의 인프라가 얼마나 종합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의 터널은 11개인데 모두 민간회사와 경영계약을 맺어 위탁경영되고 있다. 경영계약을 맺은 민간회사들은 터널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대신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받아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카우룽반도와 홍콩섬 동쪽을 잇는 Eastern Harbour Crossing, 카우룽반도와 홍콩섬 서쪽을 잇는 Western Harbour Crossing 등 일부 터널은 민간이 건설하여 일정기간 운영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한 후 정부에 귀속시키는 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직접 많은 재정을 단기간에 투입하지 않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9년 홍콩 정부는 중국 광둥성 정부, 마카오 정부와 함께 이들 지역을 잇는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HZMB; Hong Kong-Zhuhai-Macau Bridge를 건설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는 총연장

29.6km의 세계 최대수준의 교량으로 2016년 예정대로 완공되고 나면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중국 남부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작성된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4시간이 넘게 걸리던 주하이 지역과 홍콩간의 교통은 약 40분으로 단축될 것이며, 2020년 자동차 통행량은 2억 4천만대, 화물 운송량은 2억 2천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안화 734억(원화 기준 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 비용의 22%를 홍콩과 광둥성 그리고 마카오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78%를 중국은행 Bank of China을 중심으로 한 민간컨소시엄이 부담하여 BOT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와 함께 중국과의 교통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켜줄 프로젝트로는 홍콩과 선전, 광저우를 잇는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의 건설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현재에도 홍콩과 광저우를 잇는 철도를 운행하고 있으나 2시간 정

구간	속도(km/h)	길이(km)	공사 착수일	개통일
베이징-광저우-선전-홍콩	200~350	2230	2005.09.01	2017
베이징-스좌장	350	281	2008.10.08	2012.12.26
스좌장-우한	350	838	2008.10.15	2012.09.28 2012.12.26
우한-광저우	350	968	2005.09.01	2009.12.26
광저우-선전-홍콩 (본토 구간)	200~350	106	2005.12.18	2011.12.26 2014.07
광저우-선전-홍콩 (홍콩 구간)	200	36 (홍콩 26km)	2010.01.27	2017

자료출처: MTR Corporation

도 소요되는데,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48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와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 건설은 단순히 교통의 편의확대 차원에서 벗어나 1국2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를 대폭 확대시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내 교통수단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MTR^{Mass Transit Railway}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이다. 대도시의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이 필수적인데, 홍콩은 MTRCL^{MTR Corporation Limite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지하철을 건설,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MTR이 가지는 공공정책적인 요소를 감안해 주식의 50% 이상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홍콩내 MTR은 8개 노선에 총 85개의 역, 177.4km의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2.5km의 홍콩시내와 책랍콕 공항을 연결하는 Airport Express Line과 36.2km의 북서 신계지역을 연결하는 노선도 운영하고 있다. MTR은 홍콩내 수송분담율의 41%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MTRCL은 홍콩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급행열차도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 하루 평균 12,300명의 여객이 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버스는 약 31%의 수송분담율을 가지고 있다. 카우룽반도와 신계지역에서는 Kowloon Motor Bus Company가 309개의 노선을, 홍콩섬지역에서는 New World First Bus Limited와 Citybus가 각각 47개와 59개의 버스노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노선에서 사업권을 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 홍콩 MTR 노선도 및 버스 사진



자료출처 : MTR, Hong Kong Tourism Board

이 외에도 홍콩은 1904년부터 사용하던 노면전차Tram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홍콩섬 북쪽해안을 따라 13km 구간에 걸쳐 Kennedy Town 과 Shau Kei Wan사이를 복선으로 운행하며 164대의 전차가 하루 18만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

홍콩의 개인소유 승용차는 2014년말 현재 495,038대이다. 운전면허 보유자는 208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0.23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홍콩의 자동차가 적은 것은 부동산가격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도 주차비를 내야한다. 시내중심가와 떨어진 곳은 약 HKD 3천불~4천불, 중심가는 HKD 5천불~6천불을 한 달 주차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주차장도 아파트처럼 분양하는데, 일부지역은 주차장 1면이 원화기준으로 7억원에 분양되기도 하였다. 홍콩에는 약 3만개의 주차장이 있지만, 자동차 대수에 비하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홍콩의 대중교통 이용장려 및 자가용 이용억제정책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콩에서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5. 홍콩의 환경보호

홍콩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공기오염의 큰 원인을 차지하는 차량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택시와 버스의 65%가 LPG를 사용하고 있다. 디젤차량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배기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해운업이 발달한 나라답게 공기오염의 가장 큰 배출원은 선박이다. 홍콩 정부는 주로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양연료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도시의 성장에 따라 홍콩의 고형폐기물은 80% 가량 증가하였다. 홍콩 정부는 이러한 폐기물을 수집하여 신계지역에 있는 3개의 대형 매립지에서 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폐기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해 홍콩 정부는 2022년까지 폐기물 자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동 계획의 핵심은 ①정책과 법령 등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②폐기물 감소 캠페인을 벌이고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③폐기물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확충하는 것이다.

특히, 2022년까지 음식 폐기물을 4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캠페인 및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Wise Food Campaign, 을 벌여 슈퍼마켓, 재래시장, 레스토랑 클럽과 호텔 등에서 유통기한의 만료가 가까워 온 식품들을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선 폐기물의 부피를 90%까지 줄이는 기술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

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소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통합 폐기물 관리시설을 석구차우 근처 인공섬에 2023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홍콩의 금융시장

- 홍콩은 런던, 뉴욕에 이어 3대 국제금융센터로서 아시아 지역내에서 독보적인 위상과 입지를 확립하고 있다.
- 미국·유럽계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은 홍콩을 통해 자금을 모집·조달한 후 이를 다시 중국 또는 아시아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 홍콩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들의 집합체로서, 건전한 금융시스템, 풍부한 전문인력, 자산규모,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거래규모, 유동성 등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1. 아시아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위상

홍콩은 런던, 뉴욕에 이은 3대 국제금융센터로서 아시아 지역내에서 독보적인 위상과 입지를 확립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은 중국 본토와 해외자본을 이어주는 국제금융중개(international financial intermediation)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 미국·유럽 등 글로벌 기업과 금

용기관은 홍콩을 통해 자금을 모집·조달한 후 이를 다시 중국 또는 아시아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있다. 즉, 주요국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홍콩에 법인이나 지점을 개설하고 홍콩에서의 금융증개 과정에 참여하여 대중국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홍콩의 시스템과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위상

Global Rankings of Hong Kong

Rank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14	Financial Development Index 2012	2013 Index of Economic Freedom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3 Annual Report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1	London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Singapore	United States
2	New York	United States	Singapore	Singapore	Hong Kong	Switzerland
3	Hong Kong	United Kingdom	Australia	New Zealand	New Zealand	Hong Kong
4	Singapore	Singapore	New Zealand	Switzerland	United States	Sweden
5	Tokyo	Australia	Switzerland	United Arab Emirates	Denmark	Singapore
6	Zurich	Canada	Canada	Mauritius	Norway	Norway
7	Boston	Japan	Chile	Finland	United Kingdom	Canada
8	Geneva	Switzerland	Mauritius	Bahrain; Canada	Korea	United Arab Emirates
9	Frankfurt	Netherlands	Denmark	-	Georgia	Germany
10	Seoul	Sweden	United States	Australia	Australia	Qatar

자료 : Global Financial Centre Index 14, Financial Development Index 2012, 2013 Index of Economic Freedom,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3 Dataset,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Report an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홍콩은 다수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서로 긴밀히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가운데 광범위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홍콩 금융시장은 매우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규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들의 집합체로

서, 건전한 금융시스템, 충분한 전문인력, 자산규모,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거래규모, 유동성 등이 높은 수준^{critical mass}에 도달해야 한다. 홍콩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며 중국 경제가 해외자본을 유입하는 중개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위상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다.

홍콩의 효율적인 금융시장은 자유롭고 시장친화적 환경에서 작동한다. 즉 홍콩의 금융시장은 매우 투명하고 공정한 규제체계와 제도하에서 금융거래가 체결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과 같은 효율적이고 탄탄한 인프라가 제공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홍콩 국제금융시장은 효율적인 통신과 탄탄한 기술적 플랫폼을 통해 보다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홍콩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는 매우 탄탄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과 유연성과 탄력성을 두루 갖춘 시장이다. 또한, 홍콩 금융시장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고 높은 퀄리티와 혁신을 위한 경쟁을 추구한다.

홍콩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강점이 부각된다.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표현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여 금융거래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국제금융센터로서 현재의 홍콩의 지위는 한시적인가?

이와 같은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지위는 중국 본토 금융시장 규제로 인해 잠시 시간을 벌은 데 불과(borrowed time)하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 등으로 인해 홍콩이 본토와 해외 사이에서 일시적 우위를 보유했던 것일 뿐, 그 장벽이 사라지는 순간 본토와 세계와의 중개인로서의 홍콩의 역할은 종말을 고한다는 의견이다. 홍콩이 중국과의 연계성이 깊어질수록, 중국화되면서 홍콩의 독자성이 상실되고 중국적으로는 홍콩의 경쟁력 자체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홍콩의 금융은 거대한 배후지로서의 중국, 뛰어난 인프라 스트럭처, 글로벌 네트워크, 중국 본토와의 경제통합을 통한 중국 국내시장 진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상호간 무역거래가 확대되는 한 필요한 자금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은 지속될 것이다.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여타 국제금융센터도 거대한 배후지가 금융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1980년대 외국인투자 확대, 1993년 중국 기업의 홍콩증시 상장, 중국의 WTO 가입, 2004년 중국 국유은행 개혁 및 홍콩상장, 2009년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홍콩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0여년 간 홍콩은 중국 본토와 해외자본을 이어주는 국제금융 중개기능에 주력해 왔지만, 중국 본토내 금융중개 확대를 통해 홍콩

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쟁 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기업이 해외진출^{operation}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홍콩에 소재하는 금융기관들은 이들의 자금수요를 충족 하고 있는 바, 홍콩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테스트 베드가 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3. 홍콩 금융경쟁력의 원천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금융경쟁력은 크게 비교우위 요인과 경쟁우위 요인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경쟁우위 요인은 금융부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교우위 측면에서 홍콩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중국 본토와 지리적·문화적·언어상으로 긴밀히 연계됨으로써 1978년 이후 본토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가까워 중국과 해외자본을 이어주는 국제금융중개 기회를 자연스럽게 창출하고 있다.

둘째, 경쟁우위 측면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경제, 보편적으로 설득력 있는 홍콩의 법과 제도 등도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판단된다.

미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2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평가하고 있으며, 홍콩은 일국양제하에서 독립된 사법부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내·외국인 동등대우 및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외국자본을 홍콩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흡인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만 부과하는 간결하고 단순한 조세체계,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본자유화도 자본과 사람이 홍콩으로 모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HKD와 USD 간의 연계환율제를 통해 홍콩달러화의 완전태환성^{full convertibility}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자본이 환율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홍콩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풍부한 금융 전문가 풀^{professional talents}과 홍콩거주자들의 영어구사능력도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회계 등 고도의 전문직 서비스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도 금융산업 시장이 고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 교통·통신 인프라 스트럭처를 토대로 최소한의 정부개입과 자유시장 원칙을 준수하는 확고한 정책스탠스는 금융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홍콩정부의 아낌없는 금융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도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우위는 홍콩 금융경쟁력의 핵심자산으로써, 아시아의 금융허브이자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유

는 크게 다음 4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1) 자유시장경제와 법의 지배

지난 21년 동안 미 헤리티지 재단은 홍콩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평가한 바와 같이, 홍콩은 개방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가의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제한 없이 발휘되고 기업가의 능력과 판단이 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은 독립된 사법부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바, 홍콩의 금융시장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규제체계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건전하고 탄탄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통해 법규는 명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일관되게 집행되고 있으며 소비세, 이자·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가 없으며 법인세 16.5%, 개인소득세 15% 한도만 부과하는 간결하고 단순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홍콩의 금융상품은 예외없이 본질적으로 재산권과 당사자간 권리·의무에 관한 법적 계약에 기초한다. 영국의 Common Law는 거의 모든 국제금융계약의 기본이 되는 바, 변화하는 여건에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장점을 보유한다.

금융거래계약은 당해 계약이행을 보장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완전한 법적 보호장치를 통해서 체결되는 바, 구조화 금융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거래일 경우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법적 장치

가 요구된다.

또한, 홍콩의 금융법규는 계약이행이 예측하고 실제 공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이행^{enforce}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제공한다.

(2)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홍콩의 노동시장은 인력채용이나 근로조건 결정시 사적 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고용해고가 자유로운 매우 유연한 시장이다. 자본 통제 및 국경간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으며 USD와의 연계환율제를 통해 어떤 제한도 없이 자국통화를 외국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완전태환성이 보장되고 있다. USD 페그제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율변동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유입에 대한 장애 요소를 제거하였다.

홍콩에서 주요 금융거래는 영어로 진행되는 바 영어의 보편적인 사용은 금융, 무역,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홍콩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어의 사용은 영국법을 기반으로 한 법률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수의 노동인구와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풀이 없이 국제금융센터는 작동할 수 없는 바, 홍콩의 라이프스타일과 잘 정비된 생활여건으로 해외 금융전문인력이 유입되고 이들은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을 유지하는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홍콩 정부는 수준 높은 국제학교 및 세계 100대 대학에 랭크된 3개 대학을 보유하는 등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자유로운 시장접근

홍콩은 외국 기업들의 홍콩시장 접근상의 아무런 장벽이 없으며 내·외국인 동등대우 및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홍콩은 안정적 은행시스템과 활발한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한 국제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금융거래가 최소한의 거래비용으로 실행될 수 있다. 법률·회계 등 고도의 전문직 서비스산업과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공항, 교통·통신 인프라 스펙트럼도 국제금융센터의 네트워크이자 지지기반이다

(4) 작고 효율적인 정부

홍콩당국은 단편적 개입 대신에, 최소한의 정부개입과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준수하는 확고한 정책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정건전성 원칙 *fiscal discipline* 을 고수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스펙트럼에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5) 홍콩의 금융정책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에 진출하는 해외투자자들에게 홍콩이 매력적인 이유는 홍콩의 자유주의적·시장 지향적 정책 스탠스에 있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는 홍콩 특유의 자유경제시장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우선적인 정책목표는 환율안정으로, 인플레이션, 고용보다 환율안정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홍콩의 최우선 순위는 안정성 유지이며, 자본과 금융시스템 강화를 통해 환율안정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규율이 작동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스스로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성과 유연성은 단기적으로는 고통과 비용이 들지만, 홍콩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 금융시장의 실제 모습

(1)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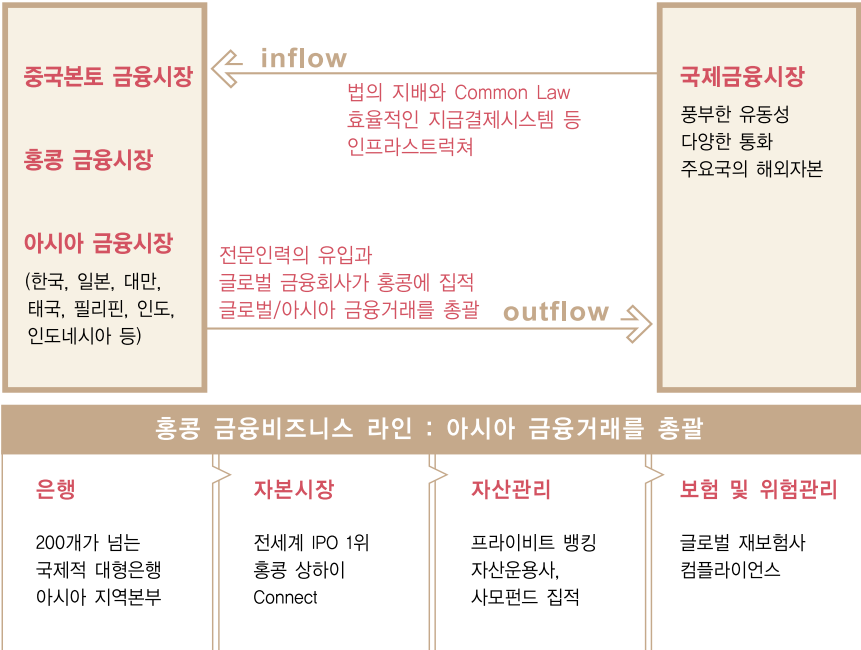
홍콩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홍콩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광범위한 지리적·문화적·언어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중국과 서방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홍콩은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뉴욕 및 런던과 24시간 거래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 런던에 이은 3위의 국제금융센터로서 매우 높은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는 아시아 지역과의 깊은 연계 및 무제한의 자본 유출입 허용, 강력한 투자자 보호, 법의 지배,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 강화에 의해 기인하는 바, 홍콩의 금융시장은 국제 규

범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규제제도 하에서 작동하고 있다.

홍콩의 높은 교육수준, 외부 전문인력에 대한 개방성,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등이 홍콩의 금융기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바, 2013년 기준, 홍콩의 금융업 종사자는 약 23.4만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업이 홍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9%로 집계되고 있다.

•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홍콩



(2) 은행산업 : 중국 및 아시아에 대한 자금조달 채널

2014년말 현재 203개 은행이 홍콩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계 100대 은행중 71개 은행이 홍콩에 진출중이다. 그 결과, 홍콩에

소재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홍콩 플랫폼을 이용하여 지점 설치 등을 통해 활발히 대중국 파이낸싱을 진행하고 있다. 즉, 전 세계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홍콩에 법인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 중국 및 아시아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홍콩 및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영업이 확대되고 이는 파이낸싱 수요로 이어지면서 홍콩 입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2014년 기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대외포지션 기준으로 홍콩은 세계 7대, 아시아 2대 은행 센터이다.

홍콩 은행산업은 탄탄한 국제적 네트워크, 자본력 및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적 대형은행(Global Player)들이 밀집함으로써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Critical mass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최대한 많은 금융회사 전문인력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더욱 깊이 있고 방대한 시장이 조성되었다.

홍콩의 배후지인 중국의 경제발전과 빠른 성장은 파이낸싱, 채권발행 및 무역금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홍콩에 진출한 국제적 대형은행과 중국의 성장 스토리가 만나면서, 홍콩의 은행산업은 경쟁력, 건전성 및 성장성 모든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내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은 홍콩 도매금융중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금수취 은행이 여유자금을 지점을 보유하지 못한 외국계 은행에 공급하는 것이다.

홍콩달러와 미달러화간 페그제 운영을 통해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홍콩으로 유입·유출되면서 홍콩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미국의 금융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감독하에 예금수취 업무가 가능한 인가은행기관^{Authorized Institutions}은 인가은행^{Licensed Banks}, 제한적 인가은행^{Restricted Licensed Bank}, 신탁예탁회사^{Deposit-Taking Companies}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홍콩에는 159개의 인가은행, 21개의 제한적 인가은행, 23개의 신탁예탁회사 등 203개의 인가은행기관이 1,37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중이며 159개의 인가은행 중 152개가 홍콩 이외 지역·국가의 은행이다. 홍콩의 은행간 자금시장도 매우 활발해서 2014년 일평균 거래액이 HKD 2,114억불에 이르고 있다.

홍콩의 은행시스템을 건전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세계경제와 외부환경의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건전성, 유동성 비율 등에서 홍콩의 은행시스템은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2013년말 기준, 홍콩 인가은행기관의 예금 및 대출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0.6%, 16% 증가한 HKD 9조 1,780억불, HKD 6조 4,574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인가은행기관의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HKD 16조 9,435억불을 기록하였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홍콩 내 모든 은행들이 실시간 결제시스템^{RTGS}을 통해 자금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바, 미달러화, 유로화, 위안화 등도 동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결제가 가능토록 하여 결제리스크를 해소하고 있다.

(3) 세계 최대의 역외 위안화 허브

홍콩은 전 세계 기업과 금융기관에게 위안화를 통한 무역결제, 위안화 파이낸싱 및 위안화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보적인 위안화 플

랫폼으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즉, 홍콩내 위안화예금 등 위안화 유동성은 역외 위안화시장 중 가장 큰 규모로서 홍콩 은행들은 위안화와 관련된 다양하고 정교한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최대 규모의 위안화 무역결제센터로서, 2009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무역결제를 통해 홍콩에 위안화 유동성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홍콩 금융시장내에 충분한 유동성 풀이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위안화 채권 발행 및 대출 등 위안화 투자채널이 활성화되고 위안화 선물상품 등 다양한 위안화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채널은 기업 등의 위안화 무역결제와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었다는 의미에서 세계 최대의 위안화 역외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2004년부터 역외위안화 센터 육성을 추진한 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위안화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안화 대출·자산관리 센터로 발전중이다. 2014년말 기준, CD를 포함한 위안화 예금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RMB 1조 1,580억위안을 기록중이며, 위안화 투자펀드·보험·통화선물·부동산투자신탁·파생상품 등 다양한 위안화 투자상품도 제공되고 있다.

(4) 자본시장

가. 주식시장

홍콩의 주식시장은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다. 시장 활력 측면에서도 중국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신규상장(IPO)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살아 있는 시장이다. 이러한 추세

에 힘입어 2015년 기준 IPO 규모는 전세계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성 측면에서도, 부정거래나 주가조작이 거의 없고,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s)을 기반으로 적정 가격이 형성된다.

홍콩 주식시장은 2014년말 기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상하이 제외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6위, 아시아 2위의 시장이다. 2014년에는 모두 122개의 기업이 홍콩주식거래소에 신규 상장(IPO)되었으며, IPO 금액은 HKD 2,330억불로 세계 2위 수준이다. 신규 상장기업은 대부분 홍콩과 중국 기업이지만, 말레이시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 기업도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있다.

2014년말 현재 홍콩 주식시장에 876개의 중국 본토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바 홍콩은 중국 본토 기업의 IPO 중심지로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본토 기업과 관련된 IPO는 홍콩내 투자자산이 충분히 형성됨으로써 자산운용업이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다시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홍콩에 모이게 함으로써 홍콩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위: 10억 US\$)

거래소	동경	상해	홍콩	선전	뭄바이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시가총액	4,378	3,933	3,233	2,072	1,521	1,213	850	752
GDP비중	94.8%	37.9%	1,119%	20%	74.2%	85.7%	160.7%	244.2%

*자료출처: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IMF

2014년말 기준, 1,752개 기업이 홍콩주식거래소의 메인보드와 성

장기업시장-Growth Enterprise Market; GEM 보드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HKD 25조불을 기록 중이다. GEM 보드는 메인보드 상장 기준에 매출액과 수익 등이 못 미치는 기업들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한 시장인데, 동 시장 조달금액도 HKD 3,790억불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연간 34조 4,397억의 주가가 거래되어, 총 거래금액은 14.8% 증가한 HKD 15조 2,650억불을 기록하였다.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홍콩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및 아시아 지역 투자자들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측면에서 홍콩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주식거래소는 보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홍콩을 신규 상장 지역으로 선택하도록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 글로벌 자산운용(Fund Management) 센터

아시아는 세계에서 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홍콩은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으로의 투자자본 이동, 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홍콩이 아시아 자산관리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자산운용업,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자본업, 부동산신탁업 등을 모두 합한 펀드산업은 USD 기준 1조 6,007억불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바 있다. 이 중 72%가 홍콩 밖의 지역에서 투자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 홍콩은 펀드산업에서도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 2014년말 기준으로 2,009개의 신탁펀드와 뮤추얼 펀드가 운용 중이다.

홍콩의 사모펀드 산업은 대중국 투자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의 사모펀드 허브로서 발전하고 있다. 홍콩의 사모펀드 규모는 2013년말 기준

으로 USD 985억불로서, 2012년에는 아시아 전체 물량의 21%인 USD 94억불을 새로 모집하였다. 2012년 676개의 헤지펀드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운용자산규모는 USD 870억불로서 2004년 대비 10배 이상 성장하였다. 미국 43%, 유럽 19%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중국 28%와 아시아·태평양 38%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홍콩의 헤지펀드 산업은 아시아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상속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없어 프라이빗 बैं킹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2013년 6월 기준 프라이빗 बैं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45개이며, 2012년 현재 운용자산규모는 USD 3,460억불에 달하고 있다. 규제·세계 측면에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홍콩 재정부총리는 2013~2014년 예산안에서 홍콩의 자산관리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역외펀드로서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 면제 제안, 개방형 투자회사가 펀드 형태로 홍콩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자산관리 Private Wealth Management 종사자들의 업무윤리·청렴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3년 개인자산관리협회가 창립되었고, 개인자산관리협회는 홍콩의 감독기관 및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자산관리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수준 제고 및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다. 홍콩의 채권시장

홍콩달러표시 채권발행 기준으로, 홍콩의 2014년말 채권시장은 외환기금 증권 및 채권 포함해 전년 대비 3.1% 증가한 HKD 2.43조불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2013년 7월에는 이슬람채권(수쿠크)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제를 개편하고 2014년 9월, 홍콩 정부는 USD 10억 불 규모의 이슬람채권을 최초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홍콩의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홍콩 정부는 2009년부터 홍콩 정부채 프로그램(Government Bond Programme; GBP)을 도입하였으며, 2013년 5월 홍콩 입법회는 홍콩 정부채 추가 발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홍콩 정부채 발행한도를 HKD 1,000억불에서 HKD 2,000억불로 상향조정하였다.

2014년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된 홍콩 정부채권이 HKD 200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8월에는 홍콩 소매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홍콩시민들을 대상으로 HKD 100억불 규모의 3년물 물가연동 채권(iBond)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5) 개방된 보험시장

홍콩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보험시장으로서, 세계 20대 보험 회사 중 13개 보험회사가 현재 홍콩에서 보험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4년말 현재 158개의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중 86개는 홍콩에, 나머지 72개는 중국 본토 또는 해외에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2014년말 기준, 홍콩에는 86,420명의 보험중개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홍콩의 보험산업은 연평균 12.3% 성장해, 2014년 보험료 수입 총액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HKD 3,297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홍콩 보험시장에서 개인 생명보험의 비중이 가장 크며, 2014년 보험료 총액은 HKD 2,627억불로서 전체의 91.9% 차지하고 있다. 보험

계약 건수는 1,090만건에 달한다.

일반법률책임업무(근로보상업무), 재물배상 등 일반 손해보험업의 보험료 수입도 전년 대비 5% 증가한 HKD 439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사고, 건강, 선박 등 보험료의 수입 증가로, 2014년 전체 일반 손해보험업의 수익은 전년과 동일한 HKD 30억불로 증가하였다.

홍콩의 보험산업 감독은 보험업관리감독처(保險業監理處)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Insurance이 담당하고 있는 데, 홍콩 보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홍콩 보험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홍콩 보험업관리감독처의 주요 책무이다. 보험업자문위원회 Insurance Advisory Committee는 보험업법 시행 및 홍콩의 보험산업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홍콩 행정장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외환시장, 단기자금시장

홍콩은 외환통제가 없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데다, 24시간 외환 거래에 유리한 시간대 time zone로 인해 2013년 외환거래규모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는 등 외환시장이 매우 활발하다. 또한, 은행간 시장이 주축이 되는 단기자금시장 하루 거래규모는 HKD 2,009억불로서, 시장 수급에 따라 정해지는 홍콩 은행간 시장금리 HIBOR는 홍콩 단기금융시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은행간 차입 채널은 지점망이 취약한 외국계 은행들의 주요 자금조달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점망이 풍부한 은행들에게는 단기대출 등 자금운용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7) 기업등록처(Company Registry)

기업등록처는 기업조례(Companies Ordinance)의 실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홍콩에서 영업하는 기업 자료를 등록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열람토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등록처는 통합기업등록정보시스템(Integrated Companies Regist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한 전자열람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약 99%의 기업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e-Registry 포털(www.eregistry.gov.hk)을 통해 열람을 신청하면, 한 시간 내에 기업등록증명서 또는 상업등록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정보변경통보 양식 작성은 물론, 개인회사의 연례 신고서식도 e-Registry 포털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기업등록처는 기업검색모바일서비스(www.mobile-cr.gov.hk)도 제공하고 있다.

(8)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법규(Professional Accountants Ordinance)에 따라 설립된 홍콩회계사협회(HKICPA)는 공인회계사 등록업무, 재무보고, 회계감사(auditing),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작성, 공인회계사 교육 및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HKICPA는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홍콩회계기준(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마련, 시행중이다.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는 홍콩 상장 기업의 회계규정 준수 여부, 회계감사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 홍콩재무보고위원회(FRC) 관련 주요 지표 추이

	2012	2013	2014
Number of complaints received	19	20	33
Number of modified auditor' reports screeded	138	168	171
Number of financial reports reviewed under risk-based approach	69	53	34
Number of investigatingations initiated	9	7	22
Number of investigatingations completed	9	5	4
Number of enquiries initiated	3	-	1
Number of enquiries completed	1	2	1

● 홍콩 CPA, 회계법인 관련 주요 지표 추이

	2012	2013	2014
Total number of CAPs	34,423	36,094	38,426
Number of practising CAPs	4,012	4,166	4,353
Number of practising CAP firms	1,228	1,246	1,275
Number of corporate practices	392	427	467

자료출처 : 홍콩정부

(9) 파산 및 청산

홍콩의 파산관리서(破産管理署) Official Receiver's Office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청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의 역할을 맡는 파산관리서 또는 민간 청산서비스 제공자는, 파산 또는 청산대상회사의 자산 등을 조사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파산관리서는 파산조례와 회사조례에 근거, 파산 또는 청산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부적격 청산회사의 이사 자격 취소 신청, 외부 파산관리인 및 청산인의 업무 모니터링, 청산 관련 자금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홍콩의 통화정책 및 홍콩 외환기금 운영전략

(1) 통화정책

홍콩 통화정책의 목표는 외환시장에서 USD 1불에 대해 HKD 7.80 불 내외의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이는 USD 페그제 peg, 연계환율제도라고도 불리는 데, 통화위원회제도 currency board를 통해 외환시장에서 HKD 절하 압력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HKD 매입 · USD 매각, HKD 절상 압력이 있을 경우 HKD 매각 · USD 매입을 통해 HKD 환율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외환기금자문위원회 Exchange Fund Advisory Committee 산하의 통화발행소위원회 Currency Board Sub-Committee가 홍콩의 통화위원회제도의 운영을 감독하는 바, 외환기금자문위원회는 홍콩의 재정부총리에게 홍콩의 통화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보고한다. 연계환율제도는 홍콩의 금융시스템 안정의 기반이자 해외자본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심하게 홍콩에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지원장치라고 볼 수 있다.

(2) 홍콩 외환기금 Exchange Fund 운영전략

가. 외환기금의 의의

홍콩은 자본유출입이 자유롭고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바, 외환기금은 홍콩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떠받치는 버팀목이자 최후의 방어장치 last line of defense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 완전한 개방경제임을 감안할 때,

아무리 최선의 금융감독을 시행하더라도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외환기금은 홍콩 금융시스템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콩의 외환기금은 1935년에 설치되었으며 1976년 이래 홍콩 정부는 재정잉여금(fiscal reserves)을 외환기금에 예치하고 있다. 1980년대 홍콩 내 다수의 은행이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홍콩 정부는 외환기금을 동원하여 파산위기에 처한 은행을 인수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바 있으며, 1987년 주식시장 위기시 외환기금을 활용하여 시장 붕괴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1998년 8월, 외환기금은 해외투기세력이 홍콩 외환시장에서 홍콩 달러를 처분하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이른 바 더블 플레이에 대응함으로써 홍콩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외환기금은 홍콩 내 모든 예금에 대해 지급을 보장하고 은행들에게 유동성 및 자본금 지원 약속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확보하였다.

나. 외환기금의 규모와 운용전략

홍콩 외환기금은 2014년말 기준 HKD 3.2조불(USD 4,040억불) 규모로서 운용되고 있는 바, 외환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외환기금 자산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외환기금이 홍콩 내 인프라 스트럭처 프로젝트, 사회정책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과 같은 보수적인 운용전략보다는 공격적인 운용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한다.

외환기금 자산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 1998년 홍콩 주식시

장이 투기세력의 공격을 받았을 때, 시가총액 규모는 HKD 1.4조불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HKD 25조불로 약 18배 이상 증가한 점, 1998년 8월 당시 외환기금이 투기세력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HKD 1,180억 불 규모의 주식을 매입한 만큼, 현행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 외환기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홍콩 당국의 입장이다.

다. 외환기금의 주요 운용자산

운용측면에서 외환기금은 크게 ① 안정적 운용backing 포트폴리오, ② 투자investment 포트폴리오, ③ 장기성장long term growth 포트폴리오로 구성된다. 첫번째 구성항목인 안정적 운용 포트폴리오는 USD 및 미국채

● 홍콩 외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구성 (2013년 말 기준, 단위 : 10억HKD)

자 산		부 채	
	\$1,350 안전자산(미국국채 등)	\$1,280 본원통화 현금 통화 \$340 은행 예치금 \$160 외환기금채권 \$780	
	\$1,670 투자 포트폴리오 (글로벌 채권 및 주식 등)	\$770 재정잉여금 \$220 공공자금 예치금 \$170 기타부채	
	\$90 장기성장 포트폴리오 (주식, 부동산 등)	\$670 누적이익	

자료출처 : 홍콩 금융 관리국 HKMA

등 단기·고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바, 운용수익률이 매우 낮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이 외환기금의 주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피하다. 두번째 구성항목인 투자 포트폴리오는 일부 주식을 포함하지만,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는 보수적 투자방식을 고수한다. 세번째 구성항목인 장기성장 포트폴리오는 일부 국부펀드와 같이 프라이빗 에쿼티,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동 포트폴리오는 5년 이상 포지션을 유지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과도한 공격적 포지션을 지양하며, 장기성장 포트폴리오 규모는 외환기금 이익잉여금의 1/3 수준으로 제한된다.

라. 외환기금의 주요 원천

조달 측면에서 외환기금은 크게 본원통화, 정부 세계잉여금 등 공공자금, 외환기금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USD와 고정 peg 되어 있는 HKD는 100% USD에 지지되어야 하는 바, USD가 홍콩에 유입되고 HKD로 태환되는 만큼 본원통화로 전환된다. 리만사태 이후 약 1,000억 이상의 USD가 홍콩으로 유입되고, 이중 HKD 7,800억분이 태환되면서 본원통화로 전환된 바 있는 데, USD 유입을 통한 본원통화는 단기자금으로서, 해외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기요구불 예금과 유사하다. 따라서 은행이 예금자의 단기요구불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듯이, 본원통화를 기초로 운용되는 외환기금은 미 국채 등 현금성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 즉, 안정적 운용 포트폴리오는 단기 USD 또는 정부 채권 등 현금성 단기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으며 현금성 자산인 안정적 운용 포트폴리오는 2013년말 기준으로 HKD 1.35조불로서 2008년

HKD 0.36조불을 현저히 초과하는 바, 이는 금융위기 이후 USD 유입에 크게 기인한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잉여금, 연구개발기금 등 공공자금도 외환기금의 주요 자금조달원천이 된다. 1976년 이래 홍콩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외환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바, 홍콩 정부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외환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외환기금은 정부 예치금에 대해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환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제약을 받는다.

외환기금 잉여금도 자금조달원천인 데 외환기금 잉여금 규모는 2013년 기준 HKD 6,600억불로서 외환기금의 자본금에 해당하므로 외환기금 운용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동 잉여금이 흡수한다. 외환기금 잉여금을 기반으로 외환기금은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정한 수준 내에서의 위험자산 투자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전문직 서비스산업

- 홍콩의 법률서비스 부문은 중국 본토와 관련된 투자에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국제적 대형 회계법인들이 홍콩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두고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홍콩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ASEAN 국가들과의 접근성 및 사업기회 확대, 풍부한 회계 전문인력 보유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 홍콩은 아시아 지역의 선도적인 경영컨설팅(Management Consulting) 센터로서, 현재 다수의 국제적 컨설팅 회사가 진출해있다.

1. 법률서비스 산업

홍콩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매우 경쟁적인 시장(Red Ocean)이다. 다수의 국제 로펌들이 홍콩에 진출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인 홍콩에서 다른 로펌들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한 방어적인 측면이 강하다. 주

로 영국계, 미국계 로펌이 홍콩시장에서 주력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계 로펌이 호주 대형 로펌을 인수하는 등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일부 구조변화가 진행중이다.

최근 흐름은 Common Law Jurisdiction(영국, 미국, 홍콩) 계열 로펌이 Civil Law Jurisdiction(독일, 일본, 한국) 계열 로펌을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Common Law가 성문법 체계에 비해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이고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로펌들의 핵심 경쟁력은 Global Transaction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로펌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반적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각국의 로컬 로펌들을 지휘하고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의 M&A 거래 완성을 위해서 40개 국가 당국의 M&A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교한 법률서비스 지원이 없이는 이와 같은 M&A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1) 아시아 법률시장 허브로서의 홍콩

홍콩의 법률서비스 부문은 중국 본토와 관련된 투자에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기업 인수합병 등을 다루는 우수한 법률회사 및 변호사가 홍콩에서 활동중이다. 홍콩에 소재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소화된 상장절차는 홍콩 법률회사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를 촉진시킨다.

CEPA를 통해 홍콩 법률회사의 중국진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홍콩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2.66억 US\$(20.7억 HK\$)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다. 아시아는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홍콩 법률서비스 총 수출액 중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28.6%를 차지하고 있다.

(2) 법률서비스 산업의 모습

아시아의 국제법 중심지인 홍콩에서는 약 9천명 이상의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4년 4월말 기준 현지 solicitor 변호사 사무소(822개)와 외국 법률사무소(75개)가 홍콩에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50대 법률사무소이다.

● 홍콩의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주요 지표(2014)

barrister	1,230명	solicitor	7,893명
- Senior 변호사	90명	홍콩 사무변호사사무소	822개
- Junior 변호사	1,140명	등록 외국변호사	1,517명
		등록 외국변호사사무소	75개

외국법률회사는 홍콩 법률시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2014년 4월말 기준 등록된 35개의 외국회사는 현지회사와 합작의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며, 이외 상당수는 홍콩 법무부, 공기업 또는 사기업 법률자문, 연구직 등에 종사한다.

2012년 홍콩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2.66억 US\$(20.7억 HK\$)이며,

이 중 아시아 지역은 홍콩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시장으로서 46.3%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본토는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서 28.6%를 차지, 이외 북미(28%), 서유럽(16%)이다.

홍콩의 법률서비스 부문은 중국 본토 관련된 투자에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본토는 최대 인수합병 시장인 바, 동 분야의 우수한 변호사가 홍콩에서 활동중으로, 홍콩 법무법인들은 중국 본토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고객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홍콩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간소화된 상장절차는 홍콩법률회사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중재 및 조정(arbitration and mediation) 관련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선호되고 있다. 홍콩 중재규정(Hong Kong Arbitration Ordinance)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중재법규로써 이해되고 있으며, 홍콩의 중재결정은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에 따라서 각국 법원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동 중재결정은 홍콩과 중국 간의 상호인정 및 합의(2000년)에 따라 중국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금융중심지인 홍콩에서 IPO와 같은 금융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 · 홍콩 CEPA상 법률서비스 관련 양허내용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 본토의 법률시장은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2004년 CEPA 시행 이후, 중국은 홍콩 법률회

사에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있으며, 홍콩 법률회사의 중국 본토 사무소 요건이 완화되었다.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국가사법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홍콩 변호사는 중국 본토 법률사무소의 법률컨설턴트로 고용 가능하다. 시험에 합격하고 인턴십 및 연수, 평가를 받은 홍콩법률전문가는 중국 법률회사에서 비소송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

2012년 5월 1일 기준 홍콩 법률회사와 홍콩주재 해외 법률회사는 중국 본토에 111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중심으로 6개의 홍콩 법률회사와 중국 법률회사가 CEPA 조항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하였다.

CEPA에 의거하여 중국 본토 법률회사들은 홍콩 법률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이들은 중국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수임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중국변호사 실무증서 및 관련 전문 요건을 보유한 홍콩영주권자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고려할 예정이다.(CEPA 보충협정 VIII, 2011년).

(4) 상사 중재의 허브 홍콩

중재 Arbitration는 중재판정부의 최종적이고 구속적^{final and binding}인 중재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절차이다. 중재절차는 소송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리 또한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주재된다.

• 중재, 조정, 소송의 차이점

구분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	소송(Litigation)
구속력	제3자의 중재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짐	법적 구속력이 없음	법원의 판결을 통한 법적 구속력 발휘
공개/비공개	절차 및 결과 비공개	절차 및 결과 비공개	절차와 판결 공개
기간/비용	단기간/저비용	단기간/저비용	장기간/고비용

가. 중재(Arbitration)의 장점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중립적인 중재인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비공개이므로 분쟁 당사자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신용 실추의 우려가 없으며,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영업상 비밀, 기술적인 노하우가 보호된다.

중재는 단심제로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 등의 간접비용이 발생하는데 중재에서는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므로 이러한 분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중재는 변호사 비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전문가인 중재인이 판정하므로 별도의 감정인 선정에 따른 감정비용 절감된다.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국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2014년 6월 현재 150개국 가입)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이 보장된다.

나. 중재 허브로서의 홍콩

홍콩 내 중재판정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2014년 6월 현재 150개 국 가입)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중국, 동남아와의 접근성으로 홍콩 내 중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재에 우호적이며 안정적인 법률제도와 중재인, 법률가, 기타 전문가 등 다국어가 가능한 다양한 전문가 풀(Pool) 풍부하다. 다수의 법정변호사, 개업변호사(Practicing Lawyer), 외국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감정인(鑑定人) 등이 있다.

홍콩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 프로그램을 갖춘 로스쿨을 통해 중재 전문가 양성에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2. 회계서비스 산업

(1) 회계서비스 산업의 허브

국제적 대형 회계법인들이 홍콩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두고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홍콩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ASEAN 국가들과의 접근성 및 사업기회 확대, 국제회계기준의 확산과 홍콩의 건실한 규제체계, 풍부한 회계 전문인력 보유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인 4개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홍콩 내 Local 회계법인도 자국기업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계서비스 시장은 중국 본토 시장, 홍콩 국내시장, ASEAN 등 중국 외 아시아 시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2013년 12월 기준, 홍콩에는 5,007개의 회계법인·감사법인·세무자문회사가 영업중이며, 29,034명이 종사하고 있다.

홍콩 정부의 회계서비스산업 지원은 CEPA를 통한 중국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콩법인(소형 회계법인)은 임시면허를 받아 중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04년 홍콩과 중국 정부간 합의된 회계사 자격 상호인정 보충협정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 면제 및 상호 시장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중국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중국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수행한다.

(2) 회계서비스 산업의 모습

법규상 의무사항인 외부회계감사, 세무자문 서비스, 기업상장, 기업금융 및 기업실사^{due diligence}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외부회계감사가 여전히 주요 업무이지만, 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계획, 내부회계감사 등 다양한 형태의 자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회계법인이 아닌 관련 회사들은 회계장부 작성, 일반회계, 세금신고 등의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콩의 회계서비스시장은 국제적 대형 회계법인인 4개 회사^{Big Four}가 지배하는 상황이다. 이들 Big Four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대기업 및

우량회사 등에 회계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콩 내 자국 회계법인과 중견 회계법인은 홍콩 로컬기업과 중국 본토의 중소기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계사들은 자율규제기구인 홍콩공인회계사회(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회원으로 가입한다. 개인 회원은 33,459명, 회계법인 회원은 3,896개이다.

홍콩 회계서비스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 본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외부회계감사, 세무자문 서비스, 기업자문 및 기업실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기준, 회계, 감사 및 세무자문서비스 수출액은 1.86억 US\$로 전체 서비스수출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홍콩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해외 진출 중국 기업과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홍콩기업이 주요 고객이다.

(3) 회계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향후 전망

WTO 규범상 중국의 양허내용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이 인가한 외국법인은 합작 또는 현지법인(partnership or incorporated)을 통해 중국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중국의 국가회계사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도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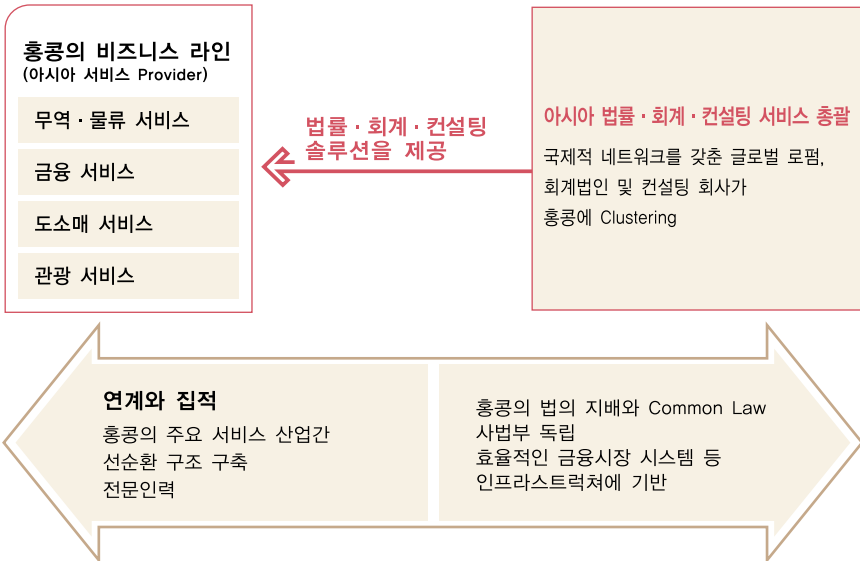
중·홍콩 CEPA에서 중국의 양허내용에 의하면 홍콩법인(소형 회계법인)은 임시면허를 받아 중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선전과 등관은 홍콩 거주자를 위한 중국 회계사 시험 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당해 시험을 통과한 홍콩 거주자들에게

회계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2004년 홍콩과 중국 정부 간 합의된 회계사 자격 상호인정 보충협정에 따라, 홍콩회계사협회^{HKICPA} 회원은 조세 및 법규과목만 통과하면 중국 회계사협회^{CICPA} 회원이 될 수 있다. 양국간 상호 시험면제 협정으로 홍콩과 중국 회계사는 양국에서 복수의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회계서비스부문에서 상호협력을 증진시킨다.

2010년 중국과 홍콩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중국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중국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행에 합의하였다.

• 홍콩의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전문직 서비스



3. 마케팅 서비스산업

(1) 마케팅 서비스산업의 허브

홍콩은 아시아의 마케팅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모든 유형의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은 마케팅서비스에 필요한 충분한 인재풀과 다국적 마케팅회사들의 홍콩 진출로 홍콩은 매우 활발한 시장이다. 대다수 다국적 대행사들은 아시아 시장을 총괄하는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에 설립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큰 대규모 광고시장으로써, 마케팅서비스 회사들에 가장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홍콩은 WTO와 CEPA를 통해 중국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2) 마케팅 서비스산업 모습

가. 주요 업무영역

① **광고 서비스** : 광고대행사는 광고 캠페인 전반에 대한 기획, 관리 및 실행업무를 총괄하며, 고객관리, 광고제작, 매체기획 등 3가지 유형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종합 대행사^{full-service agency}는 상기 3가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형 다국적 대행사는 홍보 및 PR 관련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반면 소형 대행사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특화된 서비스 제공하며, 대다수 광고 대행업체는 매체기획 부서를 별도회사로 분사하고 있다.

② **브랜드 컨설팅** : 브랜딩과 CI^{corporate identity}는 국내 및 해외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회사들의 사업성공에 있어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브랜드 컨설턴시로서 전문화된 대행업체들은 브랜드 전략 및 확장,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및 기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행사기획** :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무역박람회 도시로 꼽히는 만큼 다양한 무역박람회 및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바, 통상 대형 국제 행사기획사는 전시업무와 함께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및 여러 부수적인 행사를 제공·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제공하고, 소규모 행사기획사는 각 특정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시장조사** : 시장조사는 바이어, 판매자 및 소비자층의 태도, 취향, 습관, 구매력에 대한 조사로써, 유통채널, 홍보, 가격정책, 상품과 서비스 디자인도 조사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업무 대부분은 기업들이 특정목적에 위해 조사를 의뢰한 것이지만, 일부 조사업체는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다.

⑤ **PR** : PR^{Public Relations} 전문회사는 고객들에게 타겟 소비자층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이해를 지원하며, 미디어와의 관계 정립, 마케팅, 카피라이팅, 스폰서십, 행사, 컨퍼런스 지원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나. 서비스 공급자

홍콩 마케팅서비스 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형 업체 및 컨설턴트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다수 마케팅서비스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에 지역본부를 두고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다.

다. 마케팅서비스 수출

홍콩의 주요 마케팅서비스 수출내역은 광고제작, 매체구매, 다이렉트 마케팅, 그래픽 디자인, 마케팅 컨설턴시, 맞춤형 시장조사, 리서치 데이터 판매 등으로 구성된다.

(3) 마케팅서비스 산업 발전 및 향후 전망

가. 시장전망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광고지출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신문은 홍콩의 가장 중요한 광고매체로서 광고주로는 HSBC, Citibank 등 금융회사가 압도적이나, 최근에는 태블릿 시장의 광고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기기가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모바일광고 지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 중·홍콩 CEPA협정에서 중국의 양허내용

홍콩의 마케팅서비스 회사들은 중국 본토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중국 본토에서의 비즈니스는 홍콩의 마케팅서비스 회사들에게 중요한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CEPA 협정은 홍콩 마케팅서비스 회사들의 중국시장 접근을 촉진하는 기반이다. 2004년부터 홍콩 회사들은 중국에서 광고회사 설립이 허용(100% 지분소유 가능)되고, CEPA는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홍콩 회사들의 상표등록 비즈니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홍콩서비스공급업자는 중국 본토에서 합작회사 형태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상표 등록 비즈니스 및 상표 등록법규 등에 자문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 국

적을 가진 홍콩 거주자는 변리사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합격과 1년간의 수습기간을 완료한 후에 중국에서 변리사로 활동 가능하며, 홍콩서비스공급업자는 중국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시장 조사서비스 업무영위가 가능하다.

4. 경영 컨설팅산업

(1) 경영 컨설팅산업의 허브

홍콩은 아시아 지역의 선도적인 경영컨설팅(Management Consulting) 센터인 바, 국제적 컨설팅 회사가 홍콩에 진출하여 있다. 2011년 12월 현재, 홍콩에는 5,530개의 회사가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5,620명이 종사하고 있다.

중국 본토는 홍콩의 경영컨설팅 서비스 수출에 있어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운영 및 프로세스 관리, 기업 전략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수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영컨설팅 서비스산업의 모습

가. 주요 업무영역

경영관리 분야는 사업 전략,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재구축(Re-engineering) 및 변화관리 등에 대해 컨설팅한다. 재무관리 분야는 자본투자

분석, 회계 및 예산 통제 시스템 개발, 기업가치 평가 업무에 대해, 마케팅관리는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고객 서비스, 가격 정책에 대해 컨설팅한다. 또한 생산관리는 물류 조사, 공급망 관리, 자재 소요량 계획, 적시생산 시스템(just-in-time production)에 대해, 인적자원관리는 보험, 급여 조사, 직무 및 급여체계 평가, 성과 관리 및 직무연수에 대해, IT관리는 전략 검토와 시스템 개발(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래밍은 제외)에 대해 컨설팅하고 있다.

나. 서비스 공급자

물류, 통신 전략, 민영화, 모바일 전략, 서비스 품질 및 관리 분야의 홍콩 컨설팅 산업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두 주자이다. 대다수의 국제적인 컨설팅 기업이 홍콩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홍콩의 전문인력 풀, 기술 및 풍부한 고객기반에 기인하고 있다. 2011년 6월 기준 홍콩에는 3,752개의 지역본부와 지역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국제 비즈니스 센터인 홍콩은 중국 본토 및 기타 아시아 지역의 다국적 기업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이다.

대부분의 컨설팅 회사는 중소기업의 general management 컨설팅 회사로서 다국적 기업의 전직 고위임원 또는 전직 컨설턴트에 의해 설립되었다. 상당수의 홍콩 컨설팅 회사는 주로 인적자원 컨설팅 서비스, 비즈니스 운영 및 관리, 해외 사업 컨설팅 및 마케팅,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 경영컨설팅 서비스 수출

대부분의 경영컨설팅 회사는 홍콩 국경을 넘어 주로 중국 본토와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 대다수의 컨설팅 회사들은 지역본부를 홍콩에 설립하고 있다.

5. 라이선싱 산업

(1) 라이선싱 산업의 허브

홍콩은 다국적 기업에게 중국 본토에서의 라이선스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홍콩은 라이선서 및 라이선시, 중개업체, 제조업체에게 지적재산 보호, 사업 계약 준수, 유통망, 우수한 라이선시로의 접근성, 라이선스 산업 인력 형성, 중국 본토와의 긴밀한 연결고리라는 측면에서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라이선스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최고 라이선싱 행사인 홍콩 국제 라이선싱 쇼(Hong Kong International Licensing Show)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홍콩이 아시아에서 라이선싱 허브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4.1월 동 라이선싱 쇼에는 국제적인 제조업자, 라이선서,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 약 18,000명이 방문하였고, 19개국의 출품업자(230개)들이 브랜드 700개 이상을 선보였다.

2010년 국제 라이선싱 산업협회(International Licensing Industry Merchandisers' Association: LIMA)는 홍콩에 6번째 사무소를 설립했다.

또한, 동남아 지역 라이선싱 시장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LIMA 회원사는 홍콩을 사업 네트워크 확장 및 라이선싱 사업 홍보를 위한 허브

로 활용하고 있다. LIMA 홍콩사무소는 아시아 지역의 라이선싱 거래 중심지인 홍콩의 역할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라이선싱 산업의 모습

가. 시장특성

홍콩의 라이선스 시장은 1990년 초반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 단기간의 발전 역사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서 고도의 라이선싱 시장으로 성장했다.

홍콩에서는 미국·일본의 캐릭터 및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이 인기가 많다. 또한, 홍콩 소비자들은 최신 라이선스·고가^{high-end} 국제 브랜드 제품, 최신 시장 유행에 민감하며 라이선스 상품 주요 품목으로는 음식, 음료, 장난감, 선물용품, 문구용품, 컴퓨터용품 등이 있다.

나. 서비스 공급자

홍콩은 자체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은 별로 없으나, Warner Bros, Mattel,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NBA) 등의 국제 라이선서가 홍콩에 설립한 지역 사무소는 아시아 지역의 라이선스 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유명 외국 라이선서는 아시아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홍콩 라이선싱 대행사에게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위탁하고 있는 바, YGM Trading 등 홍콩 기업은 유럽 디자이너 브랜드의 라이선서로서 중국 본토 및 기타 아시아 지역의 판매 및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의 발판인 홍콩에는 다수의 유럽 및 일본,

미국의 글로벌 라이선싱 중개업체 및 브랜드 운영 회사들이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다.

다. 라이선싱 수출입

홍콩이 아시아 지역의 라이선싱 영업의 허브로써, 홍콩 현지 사업체는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싱 중개업체들로 운영중이다.

라. 산업발전

인터넷 영향으로 국제 라이선싱 사업에 있어 캐릭터, 브랜드, 패션 유행 등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제품생산에서 시장 전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보급률 및 아시아 지역의 전자기기 보유율 증가로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비디오, 게임이 라이선스 제품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마케팅 저작권을 위한 주요 채널이다.

홍콩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은 홍콩이 국제적인 라이선싱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왔다. 홍콩 정부는 2011년 11월 중국 정부와 처음으로 IP 협력 협정^{IP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법률, 교육, 직원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2002년 홍콩 국제 라이선싱 쇼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요 행사이며 홍콩이 아시아 지역 라이선싱 허브로 굳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4년 1월 홍콩 국제 라이선싱 쇼에는 100여개 지역의 제조업체, 라이선시, 소매업자, 유통업자 약 18,000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19개국 230개의 출품업자들이 7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3) 라이선싱산업 발전 및 향후 전망

가. 중국의 부상

글로벌 라이선싱 시장이 전체적으로 정체 추세지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시장의 라이선싱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중국 라이선스 시장 평균 성장률은 20%대로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최대 라이선싱 시장으로 발돋움 하였다. 중국 전자상거래가 라이선싱 산업에 있어 중요해짐에 따라 해외 브랜드는 B2C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인기를 확보하였다.

홍콩 라이선싱 대행업체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다수의 외국 라이선서에게 선호되고 있다. 홍콩에 위치한 라이선싱 회사들은 상하이 또는 광저우 등지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중국 본토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홍콩은 중국에 위치한 회사들이 홍콩의 우수한 국제 네트워크 및 PR지원, 개인 훈련 등의 수준 높은 라이선싱 서비스를 지원 받아 해외로 브랜드 및 상표를 홍보하는데 관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 중·홍콩 CEPA에서 중국의 양허내용

CEPA로 인해 중국시장이 홍콩 제품 및 홍콩기업을 위한 유통부문에 더욱 크게 개방되었다. 라이선싱 사업에 있어 유통채널이 매우 중요하므로 외국 라이선서는 국제수준에 맞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 기업들을 디스트리뷰터로 선호되고 있다. 중국 본토에 위치한 홍콩 유통업체 및 파트너, 유통채널을 구축하려는 홍콩 제조업체들은 유명 외국 재산권 분야의 라이선서로서 선호되고 있다.

CEPA로 인해 홍콩 제조업체/라이센스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홍콩산 제품은 현재 관세 없이 중국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6. 시험 · 인증산업

(1) 개요

홍콩의 시험 · 인증산업은 1980년대 이후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700여 개의 회사가 홍콩에 소재하는 가운데, 17,000여명이 동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강삼각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비재에 대한 시험 · 검사서비스와 이를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식품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동 산업을 홍콩 경제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분류하고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하였다. 홍콩의 시험 · 인증산업은 객관적인 인증시스템과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중국 기업의 품질인증 및 제품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바이어 요청시 주강삼각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난감, 아동용품, 전자제품, 옷 등의 소비재 시험 및 검사 서비스 제공하는 가운데, 품질경영시스템(예: ISO9000)이나 상품에 대한 인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수입회사나 공급회사를 위해 식품, 한약, 건설자재, 화학약품, 환경, 의료, 기계 등을 시험하고 있다.

(2) 시험·인증산업 발전 및 향후 전망

홍콩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시험·인증산업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제3자 입장에서 중국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을 시험·인증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장삼각주개혁 발전계획(2008-2020)의 일환으로써, 홍콩 정부는 홍콩 시험·인증산업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HKCTC) 신설하였다.

HKCTC는 홍콩이 섬유, 의류, 신발, 장난감, 게임, 전기제품, 의약품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중국 의약품, 건축자재, 음식, 보석을 시험·인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홍콩은 지역의 주요 무역 허브이며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 의약품 거래에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공공건축물 자재에 대한 제품 인증 범위가 넓어졌는데, 홍콩 시험·인증기관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설자재를 시험·인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식품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졌고,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기준 설립 등 시험·인증에 대한 정부의 잠재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홍콩은 보석 무역이 발달해있고, 보석을 구매하려는 여행객 수도 상당하므로 보석관련 시험·인증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홍콩 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홍콩 시험·인증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06

여행 및 관광산업

- 홍콩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5년 여행 및 관광 경쟁력 부문 평가에서 전 세계 13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4위에 랭크되었다. 또한, 2014년 USD 384억불의 관광수입을 기록, 세계 10위의 관광수입지역(아시아에서 중국, 마카오, 태국에 이어 4위)이 되었다.
-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히 홍콩은 ‘쇼핑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최근에는 한국을 방문해 쇼핑하는 홍콩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55.8만 명의 홍콩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5대 방한시장을 형성했을 정도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다.

1. 홍콩 관광산업의 위상 및 특성

(1) 홍콩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홍콩은 천연관광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 관광객 유입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요인들에 기인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41개 국가·도시를 대상으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홍콩은 비즈니스 환경(2), 도로·항만인프라(1), 항공교통(5), ICT 활용태세(2) 등의 지표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4위, 전체 141개 국가·도시 가운데 13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홍콩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USD 384억불의 관광 수입을 기록하며 전 세계 10위의 관광수입지역에 랭크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마카오, 태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 홍콩 관광산업의 특성

홍콩은 높은 지리적 접근성으로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본토 방문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천연 관광자원이 부족한 홍콩은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와인앤다인페스티벌 Wine & Dine Festival이나, 맥주축제 German Bierfest, Lan Kwai Fong Music& Beer Fest가 그 대표적인 예다. 와인앤다인축제(Wine & Dine Festival)는 홍콩정부가 세계와인허브시장을 목표로 2008년 30도 이하 수입주류의 관세를 철폐하면서 추진하기 시작한 관광마케팅 사업중 하나이다. 포브스 세계 10대 국제 음식 및 와인축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축제기간 나흘 동안 총 14만 명이 참여하였다.

홍콩은 163개 국가와 비자개선 Open Visa Policy을 통해 관광객들의 접근

성을 높이고, 홍콩내 상업지역에 대한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컨벤션^{MICE}산업도 정부의 전담부서 개설 등 적극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 홍콩 관광산업의 모습

(1) 홍콩 관광산업의 비중과 기여도

2013년 홍콩의 관광산업은 해외에서 홍콩, 홍콩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을 모두 합쳐 홍콩 전체 GDP의 5.0%를 차지하였다. 홍콩 관광산업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바운드 관광은 2003~2013년 간 연평균 15.9%씩 성장하며 HKD 890억불(원화 약 13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고용 측면에서는 2013년 기준 약 269천명이 관광분야에 종사해 전체 노동인구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콩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구 분		2003	2008	2011	2012	2013	기간별 연평균 변화율		
							2012-2013	2003-2013	2008-2013
부가가치 (백만HKD)	전체	28,900 (2.4%)	44,700 (2.8%)	86,200 (4.5%)	94,600 (4.7%)	105,900 (5.0%)	+11.4%	+13.8%	+18.8%
	inbound	20,300	37,100	72,100	79,100	89,000	+12.5%	+15.9%	+19.1%
	outbound	8,600	7,500	14,100	15,400	16,800	+9.1%	+6.9%	+17.4%
고용(명)	전체	139,800 (4.4%)	194,800 (5.6%)	235,900 (6.6%)	250,900 (6.9%)	269,700 (7.2%)	+7.5%	+6.8%	+6.7%
	inbound	114,900	161,200	206,300	218,800	237,800	+8.7%	+7.5%	+8.1%
	outbound	24,900	33,600	29,700	32,100	31,900	-0.6%	+2.5%	-1.0%

자료 : 홍콩특별행정구 정부통계청

홍콩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국제 수준과 비교해 보면, GDP와 고용방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GDP 기여도는 세계 평균이 2.9%인데 반해 홍콩은 7.6%(한국 2%), 고용유발효과는 세계 평균이 8.7%인데 비해 홍콩은 16.1%(한국 6.3%)로 나타났다.

● 관광산업 국가경제 기여도(2013년 기준 : 단위: %, 천명)

구분	GDP 기여도(%)		고용기여도(천명)			
	직접 효과	총효과	직접 고용자 수	직접 효과	총 고용자수	총효과
세계	2.9	9.3	102,364	3.3	265,754	8.7
홍콩	7.6	17.7	306	8.3	594	16.1
한국	2	5.8	616	2.4	1,573	6.3

자료: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14

(2) 홍콩으로 찾아오는 해외관광

홍콩의 관광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뿐만 아니라 외래방문객 규모 및 증가율 측면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004~2013년간 연평균 10.7%씩 증가하고, 2014년에는 전년대비 12.0% 증가한 6,08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인바운드 관광객 총지출 Total Tourism Expenditure Associated with Inbound Tourism: TEAIT은 HKD 3,590억불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다. 총 244개 호텔 72,721개 객실의 점유율 역시 90%에 달하고 있다.

홍콩의 인바운드 관광객 중에는 중국 본토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 홍콩을 방문한 중국 본토 관광객은 4,725만명으로 2013년 대비 16.0% 증가하고, 전체 관광객의 7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홍콩 관광산업의 중국의존도가 갈

수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 관광객 비중은 중국 본토와 대만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 홍콩의 5대 주요 인바운드 시장

2014순위(2013)	시장	방문객 수	점유율(%)
1(1)	중국 본토	47,247,675	77.7
2(2)	타이완	2,031,883	3.3
3(4)	한국	1,251,047	2.1
4(3)	미국	1,130,566	1.9
5(5)	일본	1,078,766	1.8

자료: 홍콩관광청 HKTB 2015



심포니오브 라이트쇼 전경



Heritage 1881 전경



응퉁(Ngong Ping) 케이블카

● 홍콩 관광산업 주요 지표

관광산업 주요 성과지표	2013	2014	증가율
총 방문객 수	54,298,804	60,838,836	12.0%
평균 체류기간(nights)	3.4	3.3	-0.1%
만족도(10점 만점)	8.3	8.2	-0.1
숙박관광객 평균 지출액	HK\$8,123	HK\$7,960	-2.0%
인바운드 관광객 관광지출(billion)	HK\$330.92	HK\$359.04	8.5%
호텔 객실 점유율	89%	90%	1%
평균 호텔 객실 단가	HK\$1,447	HK\$1,473	1.8%

자료: 홍콩관광청 HKTB 2015

(3) 홍콩인의 해외관광

홍콩인들에게 해외여행은 보편화되어 있으며, 장거리보다 근거리 목적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14년 항공이용 출국자 수는 922만 명(전년대비 7.3% 증가)이며 주요 목적지는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한국(중국, 마카오 제외) 등이다. 2014년 1~10월 항공이용 출국자 수는 전년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경제의 안정적 성장, 해외여행 선호경향 등에 따라 아웃바운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 MICE 산업과의 연계

홍콩의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s, and Exhibitions) 산업은 지리적 근접성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 정부의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752개 외국기업들의 지역 본부와 지사들이 홍콩에 설립돼 있어 출장지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본토에 인접해 있어 비즈니스 활동에 편리하다. 그 결과 홍콩에는 매년 평균 100회 이상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14년 아시아·태평양 트래블 어워드에서 Best Business City in the World, 2015년에는 CEI Asia Industry Awards에서 Asia's Best City for Business Event로 선정되었다.

홍콩을 방문한 MICE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 숙박 관광객의 47.4%를 차지한 가운데,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 본토 및 아시아 지역 방문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홍콩 주요 출국 목적지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 3월 누계
대 만	794,362	817,944	1,016,356	1,183,341	1,375,720	285,991
일 본	508,700	364,851	481,648	745,828	925,551	314,349
싱가포르	387,552	464,078	472,167	539,800	630,714	122,799
태 국	321,112	402,144	473,666	457,495	496,515	145,108
한 국	228,582	280,849	360,027	400,435	558,379	138,275

자료 : 각 국 NTO 통계

● MICE 숙박관광객 수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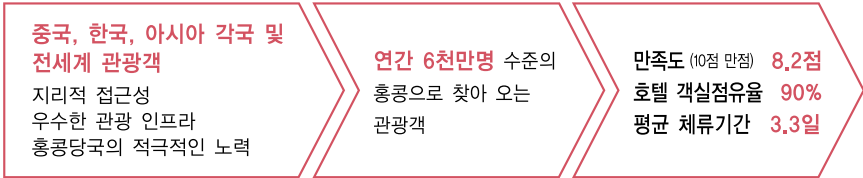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3/14 성장률(%)
미국	155,137	157,430	153,804	153,366	154,467	0.07
유럽, 아프리카, 중동	192,245	203,985	205,818	210,995	213,857	1.36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48,521	51,339	47,057	49,951	48,031	-4.0
북아시아	128,293	140,781	138,380	135,050	130,545	-3.5
남, 남동아시아	230,964	256,232	256,388	262,065	281,080	7.26
타이완	72,205	72,610	68,142	68,870	88,607	28.7
중국 본토	598,022	670,156	726,272	745,242	891,508	19.6
전체	1,429,941	1,562,940	1,606,154	1,634,363	1,816,021	11.1

자료: 홍콩관광청 HKTB 2015

홍콩은 MICE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8년 MICE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HKD 150만불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와 회의, 컨벤션, 전시회 개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홍콩섬 내의 컨벤션

센터와 첵랍콕 국제공항 주변의 아시아월드엑스포, 카우룽 반도 내의 카우룽국제무역전시센터에 MICE행사 개최 장소를 조성하는 한편, 호텔 건축용 부지 공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홍콩의 관광산업 및 MICE 산업간의 연계**

관광산업은
산업간 연계 : 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s and Exhibitions) 산업으로의 연결

-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와 컨퍼런스, 전시회 개최 지원

고용 창출 : 전체 홍콩 노동인구의 7% 이상이 관광산업에 종사

3. 홍콩의 관광산업 정책

홍콩관광위원회 Travel Industry Council of Hong Kong, 홍콩관광진흥청 Hong Kong Tourism Board, 홍콩경제발전위원회 Economic Development Commission, 홍콩국제공항 4개 기관이 홍콩의 관광산업 관련 정책수립 및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홍콩정부는 홍콩의 전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콩을 18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있다. 2000년에 권역별 관광명소 개발 산업을 시작하여 지역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해양

습지공원, 홍콩 디즈니랜드, 오션파크 등의 관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해오고 있다.

또한, 163개 이상 국가들과 비자정책 제도개선(Open Visa Policy), 홍콩 개별방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 중국 각 도시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제도 IVS를 확대 실시중이다.

관광진흥청(Hong Kong Tourism Board)은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 서비스 품질인증제를 실행하고 있다. 2013년 현재 8,222개의 소매점 및 레스토랑과 11개 숙박업소가 인증을 받았다.

4. 한·홍콩 관광교류 동향

홍콩관광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홍콩을 입국한 한국인 방문객수는 125만명으로서 2013년 대비 15.5%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본토와 대만에 이어 홍콩 인바운드 시장에서 3위의 비중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타 국가의 관광객은 각각 중국본토 4,725만명(16.0% 증가), 대만 232만명(3.2% 증가), 미국 113만명(1.9% 증가), 일본 108만명(2.1% 증가)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증가는 홍콩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저비용항공사의 신규 취항과 노선 확대에 따른 항공 공급 증가(12개 항공사 주당 180여편 노선 운항중), 한·홍콩간 자동출입국 시스템 실시에 따른 출입국 편의성 증대, 한국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개된 홍콩의 매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홍콩 관광객 역시 2014년 전체 방한객

14,202천명(16.6% 증가) 가운데 55.8만명을 차지, 전년대비 39.4% 증가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5대 방한 시장이 되었다. 2014년 한국 방문객수는 중국 612만명(41.6% 증가), 일본 228만명(17% 감소), 미국 77만명(6.6% 증가), 대만 64만명(18% 증가)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 확산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신규 취항 및 증편에 따라 항공좌석 공급이 확대되면서 2014년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2012년 28.2%, 2013년 11.2%, 2014년 39.4% 성장)

홍콩 관광당국은 홍콩내 한국 문화의 인기를 반영하여 한국 TV 프로그램의 홍콩 촬영을 지원하는 등 한국 TV 프로그램 및 영화, 해외 TV 프로그램 등의 홍콩 촬영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한국과의 관광교류 통계

(단위 : 천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 11월 누계(잠정)
한국⇒홍콩	인원 성장률	891 (44.0%)	1,021 (14.6%)	1,078 (5.6%)	1,084 (2.0%)	1,251 (15.5%)	1,124 (-1.5%)
홍콩⇒한국	인원 성장률	229 (5.9%)	281 (22.9%)	360 (28.2%)	400 (11.2%)	558 (39.4%)	468 (-7.1%)

자료 : • 한국⇒홍콩 : 홍콩관광청 통계 • 홍콩⇒한국 : 한국관광공사 통계

● 한국 주요 인바운드 국가별 통계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 11월 누계(잠정)
중국	1,875,157	2,220,196	2,836,892	4,326,869	6,126,865	5,518,952
일본	3,023,009	3,289,051	3,518,792	2,747,750	2,280,434	1,677,905
미국	652,889	661,503	697,866	722,315	770,305	710,933
대만	406,352	428,208	548,233	544,662	643,683	468,696
홍콩	228,582	280,849	360,027	400,435	558,380	468,675

자료 : 한국관광공사

문화 및 예술

- 홍콩은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미술시장이며, 43년 역사의 홍콩아트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아트바젤 홍콩’ 등 세계 문화예술 시장의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 2014 세계도시문화보고서^{World Cities Culture Report}는 현재 12만평 부지에 조성 중인 서구룡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프로젝트에 주목하며, 홍콩에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예술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 홍콩의 대표적인 국제 문화예술 행사

(1) 홍콩 아트 페스티벌^{Hong Kong Arts Festival}

홍콩아트페스티벌^{Hong Kong Arts Festival}은 1972년 설립돼 1973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교향악, 영화, 발레공연, 전통경극, 재즈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세계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연 참가

자 수, 공연 수준, 프로그램 등 면에서 홍콩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이다.

아트페스티벌은 매년 2월 말부터 3월까지 개최하며, 운영경비는 주로 홍콩 정부기구인 레저문화사무서 The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와 홍콩조키클럽 Jockey Club의 자선기금에서 후원받고 있다.

2011년 Hong Kong Arts Festival에는 통영 국제음악제 상주단체인 TIMF양상블과 현대 무용가 이선아의 “파동(Waves)” 이, 2012년에는 지휘자 정명훈,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초청받아 참여하였다. 2014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박혜윤과 현대무용가 이인수가 초청되었으며, 2015년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트리오 더쉬킨(Trio Dushikin, 바이올리니스트 Dennis Kim(1975년 생, 한국계 캐나다인), 첼리스트 Jonah Kim(1988년생, 한국계 미국인), 한국인 여성 국악 듀오 숨(Su:m), 국악단체 정가악회, 한국인 무용수 예효승 등이 참여했다.



2015 홍콩아트페스티벌에 초청된 피아니스트 조성진 리사이틀

(2) 아트 바젤 홍콩 Art Basel Hong Kong

홍콩국제아트페어는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4회 개최되며 홍콩의 대표적 아트페어로 자리 잡았으며, 누적 방문자 수가 약 30만 명을 기록하였다. 한편,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의 아트페어 ‘아트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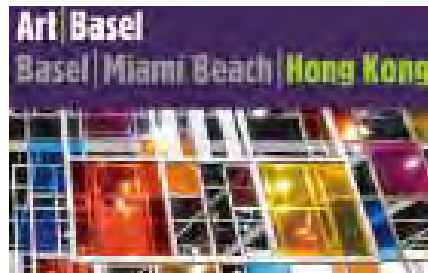
젤 Art Basel이 2012년 홍콩 국제 아트페어의 지분을 60% 인수하면서 명칭을 ‘아트 바젤 홍콩 Art Basel Hong Kong’으로 바꾸고 3회째 개최해오고 있다. 2015 아트바젤 홍콩에는 전 세계 233개의 갤러리가 참여했으며, 한국도 10개의 갤러리들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다. 특별전 형식의 대규모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인카운터스 Encounters’ 부문에는 4개 한국갤러리(아라리오 갤러리, 리안갤러리, 원엔제이 갤러리, 국제갤러리)와 2명의 한국 작가(이우환, 김태운) 작품이 소개되어 주목을 받았다. 또한, VIP 프리뷰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앤디 워홀, 야요이 쿠사마, 데미안 허스트 등과 함께 우리나라 작가 백남준, 서도호 등의 대형 작품들이 큰 인기를 보였다.

● 아트바젤 홍콩(구 국제아트페어 홍콩 포함) 연간 관람객 수

연도	관람객수	연도	관람객수
2009	2.8만	아트바젤 홍콩 2013	6만
2010	4.6만	아트바젤 홍콩 2014	6.5만
2011	6.35만	아트바젤 홍콩 2015	6만
2012	6.7만		(기존 보다 1일 축소됨)



인사이트에 소개된 '김명범' 작가의 작품



아트바젤홍콩 이미지

2014년 개최된 제2회 아트바젤 홍콩에는 6만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한 가운데, 특히 중국이 신흥 미술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인 컬렉터들의 방문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고객들의 성향에 맞추기 위해 아트바젤 홍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갤러리들 참여 비중을 2014년도에 50% 이상 높였다. 이는 스위스 바젤이나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아트 페어들의 진입장벽이 높아 아시아 갤러리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홍콩 아트주간’에는 아트 바젤 홍콩 Art Barseel Hong Kong 외에도, 컨템포러리 아트쇼 Contemporary Art Show,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Asia Hotel Art Fair, 아트 센트럴 Art Central, 사우스 아일랜드 아트 나이트 SICD : South Island Art Night, 아시아소사이어티 아트 갈라 Art Gala, 홍콩 크리스티, 소더비 홍콩, K옥션 등이 열린다. 이 가운데 한국계 주도의 아트 페어는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K옥션 등이 있다.

(3) 홍콩국제영화제 및 각종 민속축제

1977년 시작된 홍콩국제영화제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는 아시아 3대 영화제 중 하나로서 부산국제영화제(2015년 20회)와 도쿄영화제(2015년 28회)에 비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

그밖에, 홍콩의 전통 민속 축제로는 Lunar New Year Festival(춘절), Ching Ming Festival(청명절), Dragon Boat Festival(단오절), Mid-Autumn Festival(중추절), Chung Yeung Festival(중양절) 등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2. 홍콩의 서구룡 문화지구 조성 프로젝트



서구룡문화지구 조성지역 전경

홍콩 정부는 아시아 문화예술 중심지의 목표하에 1998년 서구룡 문화지구(西九龍文化地區)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구룡문화지구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후, 홍콩의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

여줄 프로젝트로 계획·추진되었으며,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서구룡 문화지구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간 가교 역할을 해온 홍콩의 기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의 남쪽 도시로서 중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허브)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12만 평 부지에 17개의 문화예술 시설을 집적화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으나, 중국 광저우(廣州)와 서구룡을 연결하는 고속열차의 개통 지연 등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 서구룡문화지구 프로젝트 개요

담당 기관	서구룡문화지구관리국 The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Authority : WKCD
프로젝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 서구룡문화지구 신설 계획 발표 - 2006 : 서구룡문화지구 설립 위원회 등 창설 - 2008 : 서구룡문화지구당국(WKCD) 창설 - 2013 : 시취(戲曲) 센터 착공 - 2019 : M+박물관, 시취(戲曲) 센터 완공 예정
주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K\$ 216억 달러 (홍콩 입법회 의결) * WKCD 추산 총 HK\$ 400~500억 달러 소요 예상 - WKCD의 문화지구 건설 외 상업지역 건설 비용 미포함

총 면적	총 400,000㎡ (40 헥타르, 약 12만 평)
전체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문화예술 시설 (대형 공연장, 전시공간, M+박물관, 시취(戲曲) 센터 등) - 노천광장 포함 대형 공원 - 3개 시민광장
교통 연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TR 카오룽 역 - KMB 버스, 미니버스 등 - 홍콩-중국 간 고속철도 (홍콩-광저우 간 50분 소요, 2017.11월 개통 예정)

3. 한 · 홍콩 문화예술 교류 현황

홍콩은 한류의 진원지이자 우리나라 홍보의 중점지역인 바, 최근 중국의 급부상 및 홍콩의 금융 · 문화 중심 허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우리 국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홍콩 지역은 1971년 문화홍보관이 처음 파견된 이후 40여 년간 홍보 거점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관련 기사 건수와 우호 보도 건수 등에 있어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대장금’ 방영 이후 2014년 ‘별에서 온 그대’를 계기로 홍콩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홍콩인들의 관심은 K-드라마와 K-pop을 넘어 한국어, 한국 음식, 한국 디자인 등 K-Culture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한 거점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 한·홍콩간 문화협력 현황

2004년 8월 한·홍콩간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데 이어, 2014년 9월 홍콩 예술발전국 Arts Development Council 대표단 방한시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와 문화교류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홍콩아트페스티벌, 아트바젤 홍콩, 홍콩국제영화제 등 홍콩내 주요 국제문화예술제에 해마다 많은 한국 작가와 작품들이 참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매년 10월 주홍콩총영사관 주최로 ‘한국 10월 문화제 Festive Korea’가 개최되고 있다.

최근 정경화(2013), 신경숙(2013), 강제규(2013), 조수미(2014) 등 세계적인 한국인 예술가들의 홍콩 공연과 방문이 증가하고 있고, 대중문화의 경우 2014년 한해 25회의 K-pop 공연과 팬미팅이 개최되었으며, 매년 12월 CJ E&M이 주관하여 아시아 최대 음악축제인 ‘MAMA Mnet Asia Music Awards’가 홍콩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리는 등 홍콩이 한국 고품격 문화와 대중문화의 발신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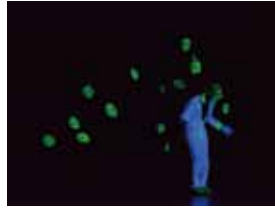
(2) 한국 10월 문화제(Festive Korea)

주홍콩총영사관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홍콩민정사무국 Home Affairs Bureau의 후원 하에 2011년 첫 해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오면서 홍콩내 대표적인 외국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는 2011년 첫 해에 10여 개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여 2013년 22개, 2014년 26개, 2015년 30여 개로 규모가 점차 확대



Fetive Korea 로고



2015 개막공연 "마리오네트"



2015년 한·홍콩 패션 교류전 모습

되고 있으며, 공연, 음악, 전시에서부터 패션쇼, 오페라, K-pop 등까지 프로그램도 풍성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4. 홍콩의 한류 현황

CJ E&M의 'M-net Asia Music Awards MAMA' 시상식은 지난 2012년부터 매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K-pop 그룹 콘서트는 물론 쇼핑몰 대상의 한류스타 팬미팅도 주 1회 이상 개최되는 등 제2의 한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 홍콩정부는



2014 MAMA 개최 현장 모습

2015년 중국 국경일을 계기로 한국의 K-pop 그룹 인피니트 Infinite를 초청하여 중국,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가수들과 함께 홍콩 청소년을 위한 Youth Concert를 개최한 바 있다.

K-pop 등 대중문화 중심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한국어 학습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홍콩 현지 6개 대학 및 4개 전업진수학원(평생교육원)이 한국어학·한국어 강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홍콩 현지 전체 교육기관 내 한국어 수강생은 총 29,751명(2014년 기준)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 TOPIK은 기존 연 2차례를 실시하던 것에서 2015년도부터 연 4차례로 확대 실시중이다. TOPIK 응시생은 2011년 1,205명, 2013년 1,948명에서 2014년 2,88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홍콩내 한식당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침사초이 Kimberley거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식당 밀집지역이 홍콩섬과 침사추이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치킨집과 한국식 BBQ 전문점이 급증하였다.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참여팀



2015년 K-pop World Festival 홍콩예선

5. 홍콩의 문화예술 정책

(1) 정부의 문화예술 담당 부서

홍콩 문화정책의 입안은 민정사무국(民政事務局) Home Affairs Bureau, 장관급이, 집행은 동 사무국 산하 레저문화서(康樂及文化事務署)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 LCSD가 담당하고 있다. 매년 홍콩에서는 레저문화서 주관 공연(옥내외)이 3,800여 차례 개최되며, 여타 민간단체가 약 2,500 차례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레저문화서 주관 주요 문화 행사로는 Hong Kong Arts Festival(2~3월 개최, 약 10만명 관람), 홍콩국제영화제(3~4월 개최, 약 12만명 관람), 국제아트카니발(7~8월 개최, 약 17.5만명 관람), Autumn Thematic Festival(10~11월 개최, 약 7만명 관람) 등이 있다.

(2) 정부 예산 및 문화 인프라

홍콩정부의 문화예산은 2014-2015년도 HKD 33.3억불, 2015-2016년도 HKD 35.66억불로서, 정부 총예산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레저문화서 산하에 홍콩컬처럴센터, 홍콩시티홀 등 16개의 공연장이 있으며, 약 7,000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3) 문화예술 관련 기관

가. 홍콩예술발전국(香港藝術發展局) HK Arts Development Council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위원회에 해당하는 예술발전국^{ADC}은 1995년 설립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교육을 후원함으로써, 홍콩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수반^{Chief Executive}에 의해 임명되는데, 이 가운데 10명은 다양한 예술 단체에서 선출된다.

나. 홍콩공연예술아카데미(香港演藝學院) HK Academy for Performing Arts

홍콩에는 대학내 예술대학이 없는 대신,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홍콩공연예술아카데미^{HKAPA}에서 예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HKAPA는 1984년 설립되어 전문 공연예술인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과 실기 중심의 대학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차이니스 오페라, 댄스, 드라마, 영화 및 텔레비전, 음악, 연극, 엔터테인먼트 아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2014년 기준 792명의 학생이 학부과정에 등록하였고, 137명이 석사학위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다. 공연장과 무대제작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과 현장예술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 홍콩아트센터(香港藝術中心) HK Arts Centre

홍콩아트센터는 컨텐퍼러리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 및 비디오 아트, 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1977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400석 규모의 Shouson Theatre, McAulay Studio, Agnes B. Cinema(200석),

Pao Galleries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홍콩예술학교 HK Art School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문화 기관으로는 전세계 문화 예술인들이 한 번쯤 공연하길 희망한다는 홍콩 문화센터(香港文化中心, Hong Kong Cultural Centre, 1989년 개관, 중·대형 3개 극장 보유)와 홍콩 시티홀(香港大會堂, City Hall, 1994년 개관, 대형 음악당과 중형 극장, 11개 시민회관 보유) 및 각종 박물관(미술·차·우주·과학·역사·영화 등)이 있다.

라. 문화예술활동 단체

세계적 명성을 가진 20여년 역사의 ‘홍콩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Hong Kong Philharmonic Orchestra’와 100명의 단원을 가진 ‘홍콩 중국 음악 교향악단 Hong Kong Chinese Orchestra’, 중국 전통무용전문 ‘홍콩 무용단 Hong Kong Dance Company’, 현대무용전문 ‘시립현대무용단 City Contemporary Dance Company’, ‘홍콩 발레단 Hong Kong Ballet’ 등이 있으며, 이들 단체는 공연 외에 자체 워크숍 개최 및 후진 양성을 한다.

III.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공공부문



기본법 및 정치체제

- 홍콩의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HKSAR :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이다. 홍콩이 중국본토내 지방 省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지 등 홍콩의 지위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지만, 중국본토의 여타 지방 省 들과는 구별된다. 먼저 설립 근거에 있어서도 중국의 지방 省, 자치구 등은 중국헌법 30조에 따른데 비해 특별행정구는 31조에 따라 규정된다.
- 홍콩은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이 있으며, 홍콩 정부는 국방, 외교를 제외한 분야에서 행정, 입법 및 독립 사법권을 갖고 있고, 행정부(행정수반 제도), 입법부(입법회의), 사법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화폐와 다른 홍콩달러를 사용하고, 홍콩에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홍콩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기도 하고 다른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등 중국의 여타 지방과 다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1. 홍콩 특별행정구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던 당시 중국은 홍콩을 “특별행정구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로 지정하여, 일반 지방 정부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중국의 지방 정부가 중국 헌법 30조에 따라 규율되는 데 비해, 특별행정구는 31조에 근거하는데, 현재 중국에는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 원칙에 따른 2개의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가 있다. 이들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일부로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만, 중국 본토에 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중국의 여타 지방 성과 달리, 자체의 정부를 가지고 있고, 복수정당이 인정되며, 독립적인 입법권·사법권·경찰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자체 화폐 사용, 분리된 관세 및 출입국 절차, 자체의 공식 언어 사용 (홍콩의 경우 중국어(실제로 광둥어)와 영어)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홍콩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은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어, 실제로 APEC 과 WTO 등 국제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홍콩은 다른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2. 홍콩 기본법(Basic Law)

홍콩 기본법은 홍콩의 헌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1984년 ‘홍콩 문제에 관한 중-영간 공동선언’에 따라 홍콩이 50년간 현 체제를 유지토

3. 홍콩의 정부조직

(1) 행정부

홍콩특별행정구의 최고책임자는 행정수반(行政長官) Chief Executive이다. 행정수반은 선거위원회(1,200명)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고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홍콩의 행정수반은 령춘잉(梁振英) Leung Chun-ying으로, 2012년 7월 1일 취임했고 임기는 2017년 6월 30일까지이다.

● 역대 행정수반 명단

구분	행정수반	취임 일자	퇴임 일자	비고
1대	통치화 (Tung Chee Hwa, 董建華)	1997.07.01	2002.06.30	
2대	통치화 (Tung Chee Hwa, 董建華)	2002.07.01	2005.03.12	임기만료 전 사임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5.03.13	2005.05.24	행정수반 서리
	헨리 탕 (Henry Tang, 唐英年)	2005.05.25	2005.06.24	행정수반 서리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5.06.25	2007.06.30	보궐선거에서 당선
3대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7.07.01	2012.6.30	
4대 (현재)	령춘잉 (Leung Chun-ying, 梁振英)	2012.07.01	-	임기만료일 : 2017.6.30

홍콩 행정수반은 홍콩 기본법에 따라 외교나 국방에 관한 권한은 없지만, 홍콩 특구정부의 정책 결정 및 행정명령 발표, 중국 중앙정부

에 대한 건의, 입법회에 대해 세입, 세출 관련 동의안 제출,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행정수반 아래에는 행정, 교육, 치안관계 부서를 총괄하는 정무부총리(政務司司長) 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경제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재정부총리(財政司司長) Financial Secretary, 법무관계를 총괄하는 법무부총리(律政司司長) Secretary for Justice의 3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부서는 12개의 정책수행과 관련된 국(局) Policy Bureau과 61개 부서로 구성되고, 공무원은 총 15만6천명(홍콩 전체 노동인구의 약 4%에 해당) 규모이다.

(2) 입법부

홍콩의 입법부는 입법회(立法會) 또는 Legislative Council of the HKSAR(이하 'LegCo')로 불리며, 의원수는 총 70명(임기 4년)이다. 지역 직선 Geographical Constituency으로 선출된 35명과 직능별 간선 Functional Constituency으로 선출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 입법회는 홍콩 주권반환 후 1998년 설립되어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다.

영국 식민지 기간 중인 1843년 Legislative Council이 설립되었으나, 입법 기능이 없이 당시 총독의 자문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주권반환 1년 전인 1996년 홍콩의 중국 주권이양을 준비하기 위한 임시 입법회의가 설립되어 1997-1998년간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다.

홍콩 주권반환 후 홍콩 《기본법》에 기반한 입법회가 1998년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첫 입법회는 예외적으로 1998-2000년간 2년의 임

기가 적용되었다.

홍콩 입법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법률제정, 개정, 정부 예산안 심의 및 동의, 중앙정부에 행정수반 탄핵 건의(재적의원의 2/3 찬성 필요) 등이 있으며, 입법회는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재무위원회, 정부회계위원회, 개인이익감찰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홍콩 입법회는 여당, 야당의 구분이 없는 대신 정치그룹별로 크게 친중파와 범민주파로 구분된다. 현 4대 입법회(임기 2012-2016년)는 친중파 43명, 범민주파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법부

홍콩은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을 향유하고 ‘법의 지배’ 확보를 중시한다. 홍콩은 사법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법원의 판결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홍콩시위대의 도로점거를 강제 철거할 때 경찰에 의하기 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원 집행관들이 철거를 주도하도록 했다.

홍콩내에는 다양한 법원이 존재한다.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으로 종심법원(終審法院) Court of Final Appeal이 있고, 그 아래 고등법원(高等法院) Court of Appeal과 제1심법원(高等法院原訟法庭) Court of First Instance 등이 있다.

제1심법원(高等法院原訟法庭) Court of First Instance은 가장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 1차심을 하거나 또는 일부의 경우 상고심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가정법원, 노동법정, 소액법원, 소년법원 등 특수법원이 다수 존재한다.

홍콩의 재정 및 조세제도

- 홍콩의 재정은 기본법^{Basic Law}에 의거,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Market Leads, Government facilitates}’를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 홍콩의 조세제도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1. 홍콩의 재정구조

홍콩 기본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홍콩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모든 재정 수입의 중앙정부 납부가 면제되고,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내 세금 징세가 불가하다.

또한,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립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오랜기간 저세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 주권 반환 이후에도 홍콩달러^{HKD}는 법정 화폐로서 계속 유통되고 있으며, 자본의 자

유로운 이동 또한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홍콩 정부의 재정 운용 기본원칙은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 Market Leads, Government facilitates’이다. 또, 홍콩 정부는 ‘정부 재정의 신중한 관리’ Prudent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를 통해 ‘큰 시장, 작은 정부’ Big Market, Small Government’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2014-2015 회계연도 홍콩 정부의 재정수입은 HKD 4,787억불(한화 약 72.3조원), 재정지출은 HKD 4,059억불(한화 약 61.3조원)으로 HKD 728억불(한화 약 11조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3-2014 회계연도 홍콩 정부에 의한 공공지출은 총 HKD 4,002억 불이며, 주요 항목별 비중은 △교육분야(16.7%) △인프라 구축(16.1%) △보건분야(14.8%) △사회복지(12.1%) 순으로 나타났다.

● 홍콩정부의 공공지출 항목별 현황

Item	HK\$ billion		
	2008-9	2012-13	2013-14
community and external affairs	39.0	13.2	27.7
Economic	24.9	33.3	37.3
Education	75.0	76.6	76.4
Envrnment and food	12.1	18.9	23.7
Health	36.7	59.6	67.6
Housing	17.5	20.5	21.2
Infrastructure	29.5	61.7	73.8
Security	28.0	33.9	35.3
Social welfare	39.2	45.9	55.4
Support	29.1	36.6	38.9
Total	331.0 (+31.1)	400.2 (+3.8)	457.3 (+14.3)

자료 : 홍콩정부

2. 홍콩의 조세제도

홍콩의 조세제도는 영국 식민통치 시절의 조세제도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현실상황에 맞게 보완 및 개편하였으며, 주권 반환 이후에는 홍콩의 기본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은 금융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은행예금이나 주식매매 또는 보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 2006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고, 역외금융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금융투자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혜택을 활용하여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아시아 지역본부를 홍콩에 두고 있다.

아시아 중계무역 허브로서 홍콩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기본적으로 없으나, 주류(알코올도수 30% 이상), 유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담배, 알코올, 휘발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세원확보를 위해 5% 세율의 부가세(상품 및 서비스 대상) 도입을 검토한 적 있으나, 관광산업 육성 목적으로 무효화 한바 있다.

한국의 국세청과 같이 홍콩 정부에서 세수(稅收)를 담당하는 기관은 세무국(稅務局) Inland Revenue Department이다.

2014-2015 회계연도 홍콩 세무국의 세수 규모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HKD 3,019.3억불(한화 약 45.6조원)이며, 주요 세목별 비중은 사업소득세 45.7%, 인지세 24.8%, 급여소득세 19.7%, 도박세 6.5% 순이다.

● 홍콩정부의 공공지출 항목별 현황

Type of tax	2012-13 (\$m)		2013-14 (\$m)		2014-15 (\$m)	
Profits Tax						
Corporations	120,727,2		116,097,5		132,683,8	
Unincorporated						
Businesses	<u>4,911,2</u>	125,638,4	<u>4,784,3</u>	120,881,8	<u>5,163,1</u>	137,846,9
Salaries Tax		50,467,0		55,620,3		59,346,8
property Tax		2,258,2		2,583,8		2,938,6
personal Assessment		4,078,0		4,420,0		4,817,2
Total Earning and Profits Tax		182,441,8		183,505,9		204,949,5
Estate Duty		137,6		388,4		178,2
Stamp Duty		42,879,7		41,514,7		74,844,9
Betting Duty		16,564,8		18,066,4		19,479,3
Business Registration Fees		122.9		73.5		2,480,6
		59,705,0		60,043,0		96,983,0
Total revenue collected		242,146,8		243,548,9		301,932,5
% change over previous year		+1.6%		+0.6%		+24%

자료 : 홍콩정부

홍콩 정부의 조직 및 경쟁력

- 2015년 세계 경제포럼이 매해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각국 정부 효율성 평가 부문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세계 2위인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홍콩대학 정치 공학과 청잔인(張贊賢, T. Y. Cheung) 교수는 “홍콩 정부의 괄목할만한 성적은 매우 능률적인 홍콩 공무원들에게 그 공이 돌아가야 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부의 공적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 정부 조직

홍콩은 2015년 세계은행이 조사한 181개국 중 기업환경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 부문에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에 이어 4위에 랭크됐다. 홍콩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든 것은 작지만 강한 정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1) 공무원 사무국(公務員事務局) Civil Service Bureau

홍콩정부는 12개의 부처(Bureau)와 56개의 부서(Department and Agency)로 구성된다. 이중 공무원 사무국은 공무원의 임용, 보수, 인력 배치,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공무원 정책의 최고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다. 홍콩 정부의 공공 서비스가 홍콩 사회에 이익을 대변하여 신뢰받고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공무원 사무국의 주요 임무이다.

(2) 공직관

홍콩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직관으로는 준법정신, 청렴, 정치적 중립성, 공공정책 집행의 공정성, 봉사정신, 전문성 등이 있다.

(3) 공무원 조직 규모

2015년 3월 기준 홍콩 공무원 수는 약 163,645명으로 홍콩 노동력의 약 5%를 차지하며, 남녀 성비는 약 2:1 정도이다. 2007-14년간 약 1%, 2014-15년에는 1.5%의 공무원이 증원되었다.

홍콩의 관가는 여성파워가 막강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기관장급의 고위직에 여성들이 총 445명으로 전체 기관장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홍콩 관가에서 여성들이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홍콩 여성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성향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들의 현실 참여를 당연시하는 사회 전반적

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편이며,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이유로 꼽힌다.

2. 임용 및 교육

홍콩 공무원은 공무원 사무국에서 공개 경쟁방식(Open and Fair Competition)으로 일괄 채용하여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배치된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자 신분이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언어능력 시험(중국어 및 영어)과 1997년 제정된 홍콩 《기본법》(基本法, Basic Law)에 대한 기초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 공무원 보수

역량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홍콩 정부의 기조이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홍콩정부는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민간 부문과 비슷하게 설정하였다.

민간부문과 급여수준을 맞추기 위해 홍콩 정부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매년 민간부문 급여추세에 대한 설문조사, 3년마다 초봉에 대한 설문조사, 6년마다 급여수준 전반에 대한 종합 설문조사가 이뤄진다.

복리후생의 경우는 과도한 복지 혜택들이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에 맞춰 축소되어 나갔다.

(2) 공무원 교육훈련 및 개발

홍콩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공무원배훈처(公務員培訓處) Civil Service training and Development Institute는 고위직 책임자과정, 국가 연구과정, 인재 관리과정, 평생교육과정의 네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3) 공무원 정책 관련 민간 자문기구

가. 공무원서용위원회(公務員敍用委員會) Public Service Commission

공무원의 임용, 승진과 관련된 사안을 행정수반(行政長官) Chief Executive에게 자문하는 독립기구이다. 위원회 의장과 의원들은 행정수반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감독한다.

나. 공무원 보수 및 복리후생 자문위원회(薪諮會聯合秘書處) JSSCS

공무원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자문위원들은 민간부문에서 임명된다.

※ JSSCS 공식명칭 : 공무 및 사법인원 신봉·복무조건자순위원회(公務及司法人員薪俸及服務條件諮詢委員會秘書處, Joint Secretariat for the Advisory Bodies on Civil Service and Judicial Salaries and Conditions of Services, 약칭 'JSSCS')

3. 홍콩정부의 국제경쟁력 요인

홍콩 정부가 경쟁력이 있는 첫 번째 요인은 홍콩 공무원의 ‘준법정신’과 ‘청렴’이라는 공직관에 있다.

법 집행자인 홍콩 공무원은 어떤 법규라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시행함으로써 홍콩을 법치사회로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홍콩 공무원 임명 과정에서 홍콩 《기본법》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다.

또한, 염정공서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한 이후 ‘청렴 홍콩’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홍콩정부는 투명성 부문에서 선진 정부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홍콩도 부패가 만연한 사회였다. 부패의 근원을 뿌리 뽑고자 홍콩 정부는 1974년 염정공서를 설립하고 대대적인 대국민 교육을 실시하였다.

‘준법정신’과 ‘공직자 청렴’을 기반으로 한 홍콩정부의 엄격한 정책 시행 덕분에 홍콩은 예측 가능성이 높은 투명한 사회로 변모해 갔고, 우수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국제경쟁력의 두 번째 요인은 민간부문에 뒤지지 않은 높은 임금 수준에 있다.

홍콩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의 급여를 민간부문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보수조정 메커니즘(Civil Service Pay Adjustment Mechanism) 개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먼저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후 민간부문과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7년에 이르자 민간 부문과 5%이상 격차가 나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었다.

2007년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대폭 인상되자 공무원 지원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바로 우수한 인재의 공직 유입으로 이어졌다. 또한, 부정부패가 현저히 줄어들고 공무원들이 보다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하게 되어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데도 일조하였다.

홍콩의 인구구성 및 인력유치

- 홍콩은 장기간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Open Visa Policy를 고수하고 있으며, 노동인구는 주로 중국 및 제 3국을 통해 충원되고 있다. 특히, 금융·법률·회계 분야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외부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민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1. 인구 현황

(1) 홍콩의 인구 변화

홍콩 인구는 개항 전인 1840년 초반 4,000명 남짓에 불과했으나, 1842년 청나라와 영국간 난징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되고, 영국의 식민지가 된 홍콩이 개항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또한, 청말기 태평천국운동(1850년)의 혼란한 틈을 타 홍콩으로 이주한 중국 본토인들이 증가하면서 홍콩 인구는 1860년 10만명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다시 1937년 태평양전쟁(중일전쟁)의 발발로 중국 본토주민들이 정국 혼란을 피해 홍콩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1941년 홍콩내 인구가 약 180만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홍콩이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1941~1945년에는 약 100만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함에 따라 해방을 맞이한 1945년 8월 홍콩내 인구가 50~60만 명만 남는 등 격감했지만, 정국안정을 되찾으면서 수개월만인 1945년 말 다시 160만명으로 급증했다.

2차대전 후, 1946~1980년간 국공내전(항일전쟁 이후 중국 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민당-공산당간 내전), 신중국 성립, 문화대혁명 등의 혼란한 시기에 수차례 중국 본토인들의 홍콩 유입이 이뤄졌고, 동기간 베이비붐(1960년대) 현상도 일면서 홍콩내 인구는 1980년 510만명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198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원만한 증가세를 이뤄 2015년 기준 730만명에 이르고 있다.

(2) 새로운 과제 : 저출산 및 노령화 문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저출산 및 인구 노령화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통계 기준 홍콩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은 1.2명으로 세계 190여개 국가들 중 마카오(1.19명)를 제외하고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홍콩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여성 취업률과 비싼 자녀육아 및 교육비용으로 인해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통계처에 따르면, 홍콩의 매년 인구증가율은 0.4%로 이런 추

세대로라면 2043년경에 인구가 822만 명까지 증가한 후, 이후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서 2064년에는 약 78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한다. 또한 홍콩인의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2064년에는 현재보다 5년 이상 늘어나 남성은 87세, 여성은 92세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 추세도 계속 가속화되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현재 25%에서 2064년에는 33%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예측했다.

이렇게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장·단기적으로 노동인구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출산율 및 연령별 인구 분포, 부양인 수(2009~2014)

구분	2009년도 중기	2014년도 중기
출산율(1,000명당)	9명	8명
만 15세 이하(%)	12	11
만 65세 이상(%)	13	15
부양인 수(1,000명 당)	338	348
인구 평균 연령	41세	43세

2. 출입국 및 이민제도

홍콩은 방문객에 대한 Open Visa Policy를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 163개국에 대해 7일에서 180일 까지 사증 없이 체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또한 증가하는 방문객(2014년 기준, 일 평균 80만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국심사 시간 단축 및 자동출입국심사^e-Channel 등의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홍콩은 2013년 12월 우리나라

라를 시작으로 2014년 독일, 싱가포르 등 세계 각 국과 상호 e-Channel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홍콩의 이민 정책 대상은 크게 외국인 방문객, 외국인 장기체류자, 중국인 장기체류자, 영주권자의 4가지로 분류되며 장기 체류자에 대한 귀화제도는 없고 누구든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면 홍콩인과 동인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홍콩은 또한,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후 금융과 물류 등 방면에 있어 서방세계와 중국 및 아시아를 잇는 중간자로서 자리매김 해왔으며, 이에 따라 홍콩의 이민 제도는 유입된 자본을 운영할 외부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와 관련한 홍콩의 이민제도는 금융 및 법률 등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우대, 해외우수인력유치를 위한 이민프로그램, 노동자 및 가사도우미 등 저렴한 노동인력 수입 등으로 분류된다.

(1) 사증(Visa) 제도

사증 발급 대상은 외국인이며, 중국 본토 주민(중국 본토, 대만, 마카오 등지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홍콩/마카오를 방문하고자 하는 중국 본토 주민은 중국 정부로부터 홍콩/마카오 통행증(港澳通行證) Exit-entry Permit 을 발급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는 출신 및 체류 지역별로 다르다.

최근 수년간 중국 본토 주민들의 홍콩 방문이 급증하자, 병원 방문, 일용품 구매 등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홍콩 주민들 사이에서

SNS, 시위 등을 통해 중국인 혐오 정서가 확대되고,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홍콩정부는 중국정부와의 협의 하에 2013년 1월부터 중국인 임신부의 입경을 엄격히 단속하며 원정출산을 금지하고 있고, 1년 무제한으로 홍콩 방문이 가능한 선전(深圳) 주민들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방문을 주 1회로 제한해 본토 주민-홍콩 주민간 충돌(보따리상 반대 시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방문 목적별 사증 제도

가. 관 광

홍콩은 163개국의 홍콩을 경유 및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각 국가별로 무사증 경유부터 1회 입국 시 7일~180일까지 무사증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회 입국 시 90일까지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심사 시 체류기한 내 출국(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나. 한-홍콩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한·홍콩은 양자간 청년교류 확대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지난 2011년 1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했다.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는 양국의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들에게 그 여행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부수적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광 취업사증(H-1 비자)을 발급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3개월, 복수사증)

한·홍콩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은 2011년에 62명, 2012년 127명, 2013년 200명, 2014년 505명, 2015년 500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2016년부터는 쿼터를 기존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한-홍콩 정부가 협의하였다.

다. 취업

금융, 예술,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 요리사 등 분야에 관계 없이 홍콩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국적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연간 발급량에 대한 제한 또한 없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베트남 국적자에 대해서는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홍콩정부는 크게 아래 4가지 형태로 외국인들의 취업 및 이민을 허

취업비자 종류		발급 조건	체류 기간
① 전문인력 유치제도 (Employment as Professional)	IANG (홍콩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학생,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	· 홍콩 이외의 지역 출신으로 홍콩에서 전일제로 학위 또는 고등 자격을 취득한 자	8년 (2·3·3)
	GEP (해외전문인력, General Employment Policy)	· 홍콩에서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특별한 기술, 지식 혹은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	8년 (2·3·3)
	SMTP (중국전문인력, 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	· 홍콩에서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중국본토 거주 중국인으로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	8년 (2·3·3)

취업비자 종류	발급 조건	체류 기간
② 우수인력유치제도 (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	· 연령(18세 이상), 재정능력, 범죄여부, 언어능력(영어 또는 중국어 능통) 학력(학사 이상) 조건을 만족시킨 자에 한하여, 종합포인트제(General Points Test) 또는 성과평가제(Achievement-based Points Test)에 의거해 선발	8년 (2·3·3) ※ 연소득 200만HKD 이상 해당자는 2·6
③ 단순노동직 (Employment as Imported Workers)	· 관련업종에 대해 적절한 자격과 경력을 갖추어야 함 · 특정업무에 대해 고용인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며, 타사 또는 하청인과 별도 계약을 맺어서는 안됨.	
④ 가사도우미 (Foreign Domestic Helper)	· 해외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	

※ 투자이민 유치 Capital Investment Entrance Scheme는 2015.1.15.일자로 중단

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본국직원 및 외국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대부분 해외전문인력제도 General Employment Policy에 의해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라. 유 학

홍콩 교육조례 Education Ordinance에 따른 정식 교육기관에서 수학을 희망하는 해외국적자중 적격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베트남 국적자에 대해서는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마. 기 타

홍콩 영주권자 또는 홍콩에 취업, 유학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체류 중인 해외 국적자의 부양가족(배우자, 18세 이하의 미혼자녀, 60세 이상 부모, 합법적인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동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3. 신분증 및 여권

(1) 신분증

홍콩에 18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11세가 넘는 외국인(중국 본토 주민 포함)은 홍콩 입국 후 30일 이내에, 11세 미만의 자는 11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홍콩신분증(Hong Kong Identity Card)을 신청해야 한다.

홍콩 신분증의 종류는 크게 비영주권자(홍콩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아닌 11세 이상의 중국 본토 주민 또는 외국인)가 신청하는 홍콩거민신분증(香港居民身份證) Hong Kong Identity Card와 영주권자가 신청하는 홍콩영구성거민신분증(香港永久性居民身份證) Hong Kong Permanent Identity Card이 있다.

홍콩 영주권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홍콩특구 설립 전후에 홍콩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자
- ② 홍콩특구 설립 전후에 홍콩에서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중국 국적자

- ③ 상기 ①② 경우의 부모로부터 외국에서 출생한 자
- ④ 중국 국적자가 아닌 자로 홍콩특구 설립 전후에 유효한 거주요건을 가지고 입국하여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이며, 홍콩을 자신의 영주 거주지로 택한 자
- ⑤ 21세 이하로 홍콩특구 설립 전후에 상기 ④에 해당하는 부모로부터 홍콩에서 출생한 자
- ⑥ 상기 ①②③④⑤에 속하지 않는 자로 홍콩특구 설립 전에 홍콩 영주권을 소유한 자

(2) 여 권

홍콩 여권(Hong Kong SAR Passport)은 홍콩 영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자 Chinese에게 발급한다.

그밖에, 홍콩으로 이주 후 지속 체류기간이 7년 미만인 중국 본토 주민에게 여권 대응으로 첨증신분서(簽證身份書) Document of Identity for Visa Purpose, Hong Kong DI를 발급하며, 이들은 해외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동 신분증을 통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속 체류기간이 만 7년이 되었을 경우 홍콩 영주권 획득과 함께 정식 여권을 발급받는다.

또한,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나 마카오를 방문하는 홍콩 거주 중국 본토주민(중국여권 소지자)을 대상으로 홍콩 출입경시 필요한 재입국 허가서 회항증(回港證) HKSAR Re-entry Permit을 발급하고 있다. 여타, 홍콩 선원(홍콩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대응으로 사용이 가능한 해원신분증(海員身分證) Hong Kong Seaman's Identity Book을 발급한다.

05

언론 및 미디어

- 홍콩은 동경과 더불어 아시아 양대 언론매체의 중심지로서 1,500여명의 특파원이 활동 중이고, CNN,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등 세계 우수 언론의 아시아 지역 본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56개 일간지와 725개의 각종 잡지가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과 함께 27개에 달하는 다민족 커뮤니티는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고 타 문화와의 교류를 통한 창조적 문화 발전의 계기를 확보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다.

1. 현 황

인쇄 미디어

홍콩은 동경과 더불어 아시아의 양대 언론매체의 중심지로서 1,500여명의 특파원이 활동 중이며, 2014년 현재 56개 일간지(중국어 29, 영어 12, 일본어 5, 이중 언어 10)와 725개의 각종 잡지가 발간되고 있다.

일간지 가운데 중문지는 대공보(大公報), 문회보(文匯報), 명보(明

報), 동방일보(東方日報), 신보(信報), 빈과일보(蘋果日報), 성도일보(星島日報) 등 29개이다. 이들 가운데 23개 매체는 지역 및 국제 뉴스를 포괄해 다루는 종합일간지, 4개는 금융 전문지, 나머지는 경매 정보지이다. 이 가운데, 규모가 큰 일간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해외 중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별도 판을 발행하고 있다. 영자지로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SCMP(South China Morning Post), The Standard 등 12개가 있다. 그밖에, 주요 잡지로는 아주주간(亞洲週刊), 경보(鏡報), 광각경(廣角鏡), 명보월간(明報月刊) 등이 있다.

또한, 홍콩에는 The Financial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Asia,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USA Today International 등 세계 우수 언론의 아시아 지역 본부가 소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Wall Street Journ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이 아시아판을 발행하며, Time, Newsweek 등 잡지들은 아시아판 제작을 위한 독립 법인 두고 있다. 또한 Agence France-Press, Bloomberg, Dow Jones, Thomson Reuters와 같은 세계적인 통신사가 활동하고 있다.



홍콩에 아시아 지역본부 및 지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언론

1968년 출범한 홍콩언론인협회 The Hong Kong Journalists Association는 홍콩 내 최대의 언론인 단체로서 5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언론 자유와 언론인의 윤리, 직업훈련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홍콩언론인연합 Hong Kong Federation of Journalists, 홍콩언론행정인협회 Hong Kong News Executives' Association, 홍콩사진기자협회 Hong Kong Press Photographers Association 등이 있다.

방송 미디어

홍콩은 아시아의 방송 센터라는 명성에 걸맞게 디지털화된 위성 및 유료TV를 포함, 700여개의 채널이 있으며, 인터넷TV 가구수만 100만을 넘어서고 있다. 19개의 위성TV가 약 190개 채널을 통해 아태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콩 공중파TV 방송의 주축인 ATV와 TVB가 다수의 영어와 중국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0월 PCCW의 FantasticTV(奇妙电视有限公司) Fantastic Television Ltd와 I-Cable의 홍콩 엔터테인먼트TV(香港电视娱乐有限公司) Hong Kong Television Entertainment Company Ltd가 각각 공중파 채널 허가권을 얻었다. 또한 Channel News Asia, CNBC, CNN, Phoenix TV와 같은 국제 방송사들도 홍콩 내 스튜디오를 두고 있다.

홍콩의 공익 방송을 담당하는 RTHK Radio & Television Hong Kong는 매주 10시간 소요의 프로그램을 제작, ATV와 TVB를 통해 공공정보와 국민교육 내용을 방영하고 있다. 그밖에, 유료 방송으로는 HKCTV가 190만 가구에 대해 30개 채널을 방송하고, PCCW VOD가 1998년부터 Video on Dema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YesTV, Galaxy, PDMHK 등이

2002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1996년 설립된 봉황TV^{Phoenix TV}는 홍콩을 근거지로 하고 중국 대륙 및 전세계 화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TV 방송으로, 중국어 표준말 방송인 Phoenix Chinese Channel(中文臺)과 InfoNews Channel(資詢臺)을 비롯하여 영화채널 및 광둥어채널 등 총 6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150개국의 3억 명이 시청중이다.

또한, 많은 국제 방송사들이 홍콩을 아시아의 방송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CNN, STAR, Asia Plus, MATV가 그 대표적인 예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공영 RTHK가 7개 채널(영어, 중국어), 상업방송 3개, Metro 방송 3개 등 총 13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2. 언론정책 및 환경

홍콩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free flow of information}이 보장되는 곳으로 다양한 관점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신문처(新聞處) Information Service Department란 공공관계서비스 담당 부문을 통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적극 지원하면서 동시에 정부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홍콩언론의 한국 및 한반도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 한국관련 기사가 다수 생산되고, 당지 주재 외신기자의 방한 취재지원 요청도 빈번한 바 이로 인한 업무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 홍콩 언론에 보도된 한국관련 기사는 10,579건(영문 970건, 중문 9,609건)으로 일일 평균 28.9건이 보도 되었다.

정부 신문처(政府新聞處) Information Service Department 이하'ISD'

ISD는 정부의 정책과 조치, 공공서비스 등을 홍콩 미디어 뿐 아니라 광범위한 커뮤니티에 홍보하고자 설치된 정부기구로, ① 보도자료 및 사진 배포, ② 언론매체 및 대중 문의에 대한 회신, ③ 언론브리핑 및 간담회, 인터뷰, 미디어의 참관활동 조직, ④ 주홍콩 외신매체 및 홍콩 방문 해외언론인에 대한 취재 지원, ⑤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판매, ⑥ 무료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⑦ 정부포털 운영 및 뉴스 업로드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인원은 2백여 명의 공보담당관과 4백여 명의 행정보조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보담당관-Information Officer의 절반은 34개의 정부부서에 파견돼 있다. 동 공보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고위관리의 언론과 관계된 업무를 보좌하며 press secretary 해당부서의 공공관계정책 및 전략 수립, 대중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대응, 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회견 개최 등을 지원한다.

정부 및 시장 투명성 제고

- 홍콩은 2014년 세계투명성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이하 'CPI' 기준)로 세계 17위(2014년), 아시아에서 싱가포르(5위), 일본 (15위) 다음으로 3위에 랭크되어 있다.
- 1970년대까지 뇌물이 'tea money' 명목으로 일상화 되어 있던 홍콩이 아시아 3위의 투명한 지역이 된 것은, 1974년 설립된 홍콩 염정공사(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이하 'ICAC')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염정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 기구로 평가 되고 있다.

1. 투명성 제고 제도

(1) 투명한 공공부문 및 시장

홍콩은 세계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투명성지수(CPI)에서 세계 17위(2014년)의 반부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 CPI는 세계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의 평가를 분석 및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하고 있다.

싱가폴(5위), 일본(15위)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홍콩은 1974년 독립기구인 염정공서 ICAC를 설립하고 뇌물방지법 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을 제정하는 등 부패 문제에 엄격하게 대처해 왔다. 특히 염정공서는 반부패에 관해 교육부터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 기구로 평가되기도 한다.

염정공서의 이념은, 초대 위원장인 Jack Carter가 언급한 “부패와의 싸움에서 사회전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없는 한 진정한 승리는 없을 것이다”(there can be no real victory in our fight against corruption unless there are changes of attitude throughout the community)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 단지 부패만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염정공서 설립 등 홍콩의 반부패 노력은 홍콩을 청렴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1980-9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며, 홍콩을 국제금융허브로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 홍콩의 공공부문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

독립적인 부패방지위원회 (Independent Council Against Corruption) 설립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 (미 헤리티지 재단 평가 : 1위) 해외자본과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개방적인 파트너십 중국과 세계를 이어 주는 gateway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규제체계 높은 품질의 행정서비스와 사법서비스 깨끗하고 정직한 관행의 정립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조리와 부패 척결
---	---

(2)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가. 연혁

홍콩은 1948년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Ordinance을 제정, 경찰청 산하 Anti-Corruption Office에서 감사기능을 수행해 왔고, 1971년 5월 뇌물방지법 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을 제정하는 등 반부패와 관련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1960-70년대에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인구증가 등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병원, 정부아파트 입주대기, 학교입학 등 다수의 공공서비스 방면에 뇌물이 “tea money” 명목으로 일상화되어 있었다.

특히 경찰 부패가 심각하였는데, 뇌물을 받은 경찰이 퇴폐산업, 도박, 마약 등 각종 불법범죄를 은폐하면서 사회 치안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자, 1970년대 초 민간차원에서 정부의 과감한 부패척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3년 총경사 Peter Godber가 부패횡령으로 약 HKD 430만불의 부를 축적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경찰신분을 이용하여 영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생들은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동 사건의 조사를 위해 발족한 Godber도주사건 조사팀은 보고서를 통해 「부패척결 부서는 경찰에서 벗어난 독립된 기구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중들은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믿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홍콩 총독인 Murray MacLehose가 상기 보고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1973년 10월 입법회의에서 독립된 반부패조직의 설립을 발표하였고, 이듬해인 1974년 2월 홍콩 염정공서가 정식

으로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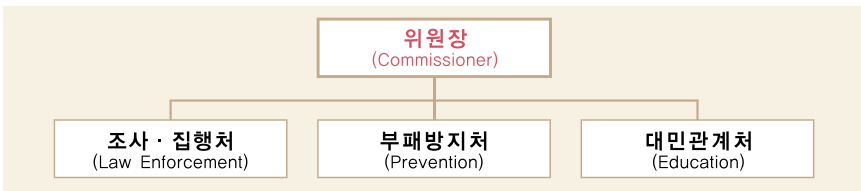
당시 염정공서의 첫 임무는 영국으로 도주한 Godber 총경사를 홍콩으로 소환하는 일이었으며, 동인은 1975년초 홍콩으로 소환돼 '부패 및 뇌물 공모'죄로 4년동안 수감되었다.

나. 염정공서 성격 및 조직

염정공서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책임자인 위원장(廉政專員) Commissioner은 홍콩 행정수반의 추천을 받아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염정공서 직원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일반공무원과는 다른 지위 및 보수 체계가 적용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고 있다. 조직은 위원장 산하 3개 부서(집행처, 부패방지처, 대민관계처)와 1개 행정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현재 직원 1,358명(집행처 1,000명, 부패방지처 61명, 대민관계처 164명, 행정부서 129명 및 전문조사팀 4명) 이 근무하고 있다.

● 공직 청렴도 및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



다. 염정공서의 성공 요인

염정공서가 홍콩의 부패문제를 척결해오면서 세계적인 반부패 조직으로 평가 받게된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엄정공서는 부패에 있어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 policy)을 채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의혹이 있는 부패문제들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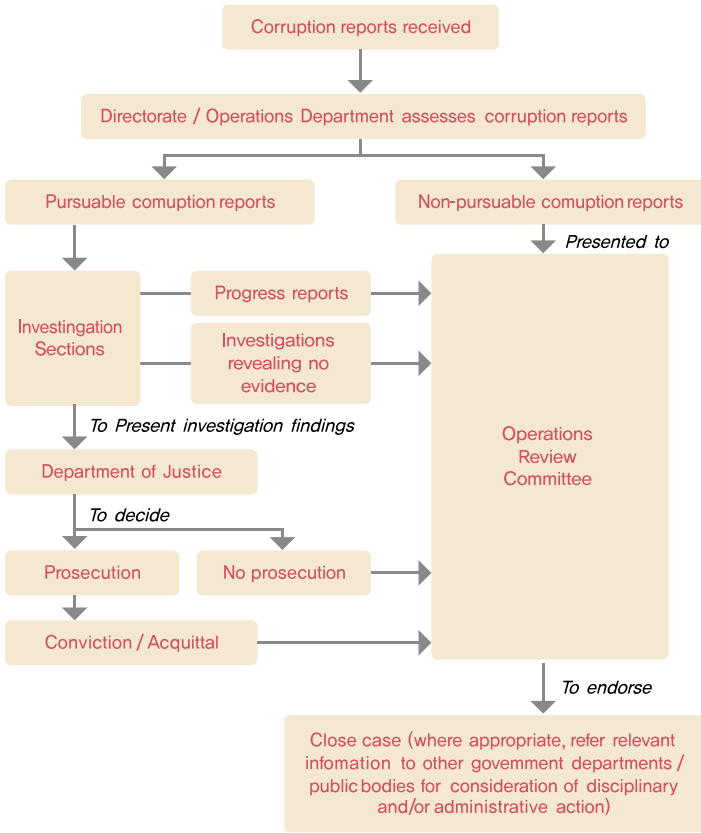
2014년의 경우 엄정공서는 시민으로부터 총 2,362건의 불만을(선거관련 불포함), 선거 관련 총 51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또한 1,490건의 새로운 안전들을 조사해 223명을 기소하고(정부직원 24명, 경찰 8명, 공공기관고용원 30명 민간기관 직원 149명 등), 26명에 대해 경고했으며, 235건의 非부패성 안전들은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엄정공서는 전직 행정수반 및 자기 조직인 엄정공서 직원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ICAC는 반대파(사민련)에 의해 부패의혹이 제기된 도날드 창(曾蔭權)Donald Tsang 당시 행정수반(2005년 6월~2012년 6월)에 대해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ICAC는 Donald Tsang이 재임기간 재벌 지인이 제공한 개인 요트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 사실, 퇴임 후 생활을 위해 중국 선전의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중국 부동산 재벌로부터 임차한 사실 등이 홍콩의 반부패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가 이뤄졌으며, 홍콩 법무부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ICAC는 동 조직 위원장을 지낸 티모시 통(湯顯明)Timothy Tong의 임기중(2007년 7월~2012년 6월) 예산낭비, 권력남용 등 혐의에 대해 2013년 5월부터 조사해오고 있다. 입법회와 홍콩의 독립 회계감사기구인 심계서(審計署) Audit Commission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 전 위원장은 재임기간에 중국 고위관료 접대에 1인 1200~1300HKD 상당의 예산 소요, 중련판(中聯辦) 고위관료에 23차례 이상의 선물 전달, 34차

• ICAC 부패조사 절차

Operations Department's complaint investigation procedures



자료 : ICAC

례의 해외출장(400만 HKD 소요)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ICAC 위원장의 비리혐의 조사는 동 기구 설립 40년만의 최초 사례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둘째, 염정공서는 부패 척결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 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염정공서는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법령 및 제도의 연구,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을 하는 동시에, 관

● **염정공서에 대한 홍콩내 여론조사(2014년)**

구분	응답자(%)
염정공서를 지지할만하다	96.9%
정직한 사회 유치가 홍콩의 전반적인 발전에 중요하다	98.7%
염정공서의 반부패 작업이 효과적이다	80.6%
부패 신고 의사가 있다	76.7%

런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수사, 기소의 집행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영장 없이 48시간 내 혐의자 억류, 경찰의 일반적 수사권 외에도 자산 사용 제한, 여행증명서 무효화, 도청, undercover operation 까지도 허용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 부패 관련 집행(신고접수 및 수사), 예방(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법령, 제도 및 개선시스템 연구), 교육(반부패 교육 및 홍보) 세 분야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three-tiered approach’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처벌과 함께 예방과 교육도 병행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사례 홍보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홍콩인들은 염정공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

그밖에, 최근 중국 정부 고위층에서 홍콩의 이러한 반부패 경험을 학습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짐에 따라 ICAC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의 연계 하에 중국내 각 지역 인민검찰원 직원들의 ICAC 시찰 프로그램을 조직, 시행해오고 있으며, 관련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3) 뇌물방지법 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

홍콩은 포괄적인 뇌물방지법을 시행중이다. 즉 홍콩은 뇌물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여타 국가에서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화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은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더라도, 상부의 허가 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어떠한 선물 또는 혜택^{advantage}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뇌물이나 혜택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무엇보다 홍콩 뇌물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무원이 자신의 수입에 걸맞지 않은 큰 자산을 보유하거나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전직의 경우를 포함), 이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뇌물죄는 혜택을 받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혜택을 제안한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홍콩법의 뇌물에 대한 처벌 조항은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될 뿐 아니라, 최대 10년의 징역과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특히 전·현직 공무원이 자신의 수입이나 신고한 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소명하지 않은 자산의 가치만큼 제한없이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한다.

(4) 평가

앞에서도 설명했듯, 홍콩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廉政公署와 포괄적인 뇌물방지법을 통해 반부패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홍콩의 반부패 성과가 1980-9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economic boom)을 이끌어 내고, 홍콩을 국제금융허브(international financial hub)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분의 반부패 노력은 사적 분야로도 확대돼 민간분야도 세계수준의 청렴함을 유지하여,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창출 및 모든 투자자의 공평한 playing field를 제공하고 있다.

2. 정부 및 공공부분의 감사제도

정부 및 공공부분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심계서(審計署) Audit Commission는 대중들의 삶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홍콩 공공도서관의 대출기한 초과 벌금 추징 주문,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대중교통 운전기사 안전교육 강화 등을 주무부처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의 삶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현 황

홍콩의 심계서(審計署) Audit Commission는 정부 및 공공부분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독립적 성격의 부처이다. 심계서의 독립성은 홍콩의 기본법(Basic Law) 제58조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심계서의 수장은 그 누구 또는 기관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게 된다.

대신 관련 법령에 따라 심계서의 수장은 정부예산 회계감사 또는 기타 감사활동 결과를 홍콩의 입법기관인 입법회(入法會) Legislative Council

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심계서의 조직 체계는 서장(署長) Director 과 부서장(副署長) Deputy Director 각 1명과 일상감사팀 Regularity Audit Division, 적격성 감사팀 Value for money Audit Division, 기술지원팀 Corporate Service Division 등 6개의 개별 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회적 영향

정부 및 공공부분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심계서가 대중의 삶과는 관련 없어보이지만, 지난 2007년 홍콩 공공도서관이 대출기한 초과 벌금 수취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여, 주무부처인 홍콩 레저문화사무서(康樂及文化事務署) Leisure and Cultural Service Department 로 하여금 적극적인 벌금 추징을 주문하였다.

또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자릿수를 유지할 정도로 안전한 도로 교통안전을 자랑하던 홍콩에서 201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늘어나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심계서는 과속방지 장비 부착,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기도 하여 일반 시민의 삶의 영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효율적인 공공질서의 유지

- 지난 해 홍콩의 전체 범죄는 67,740건으로 2013년의 72,911건에 비해 약 7.1% 감소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률은 총 936건으로 2013년의 1,014건에 비해 약 7.7%가 감소하였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안정적인 치안 상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1. 경찰제도

(1) 개 관

아시아 지역의 금융 및 무역 중심지인 홍콩은 1997년 7월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홍콩이 이미 150여 년 전부터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영국식 경찰제도를 도입·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각종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경찰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등은 상이하나 ‘아시아 최고(Asia's Finest)’로 불릴 정도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홍콩경찰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경찰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는 제도나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 혁

홍콩경찰은 1844년 5월 1일 ‘Hong Kong Police Force’로 창설되어 1969년 4월 영국여왕이 홍콩경찰에게 ‘Royal’이란 타이틀을 수여함에 따라 ‘Royal Hong Kong Police Force’로 개칭되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반환에 따라 ‘Royal’이란 타이틀이 제거되고 다시 ‘Hong Kong Police Force’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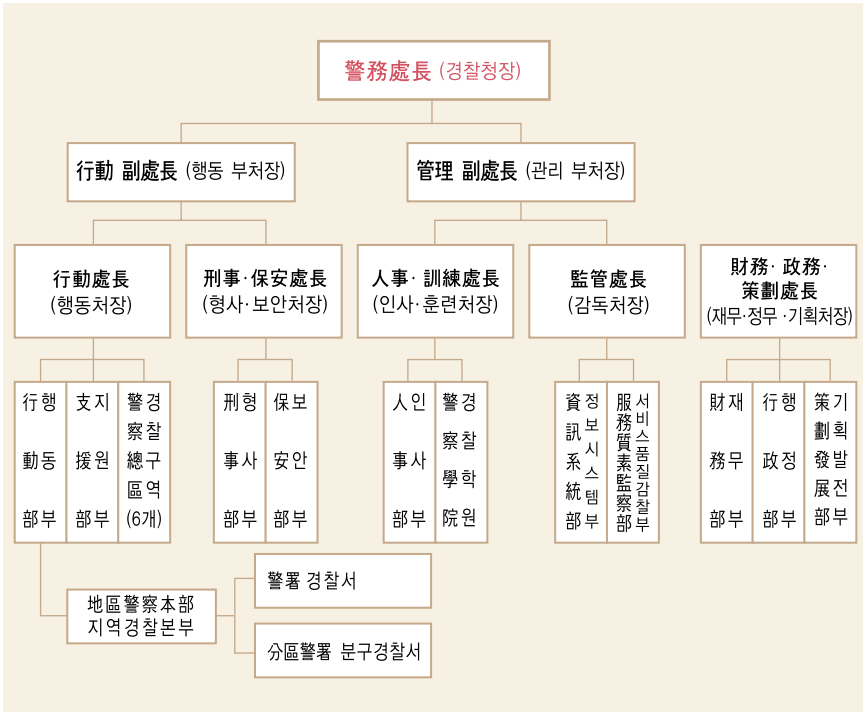
홍콩경찰의 지휘체계는 홍콩특구의 수장인 행정수반(行政長官) Chief Executive → 정무부총리(政務司司長) Chief Secretary → 보안장관(保安局局長) Secretary for Security → 경찰청장(警務處處長) Commissioner of Hong Kong Police Force으로 되어 있으며, 경찰청장의 직급과 보수는 부패전담 독립 수사 기관인 염정공서 위원장(廉政專員) Commissioner of ICAC이나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 기능별 업무

■ 행동처(行動處) Operations A Department

행동처는 행동부(行動部)와 지원부(支援部) 및 해경을 포함한 6개 지방청(警察總區)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부는 對테러, 혼잡경비, 다중범죄 진압,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부는 장비구입 지원, 공보 및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각 지방청은 해상을 포함한 각 지방의 전반적인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 조직표



■ **형사·보안처(刑事·保安處)** Crime and Security 'B' Department

형사부(刑事部)와 보안부(保安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실상부한 독립 수사권을 갖고 있는 형사부는 각 과를 두어 상업범죄수사 및 마약수사, 조직범죄·삼합회 수사, 범죄정보수집 및 처리, 형사기록유지, 감식, 총기 및 화약류 감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안부는 국내외 중요 정보수집 및 분석처리 업무와 요인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홍콩의 검찰은 우리와는 달리 수사권이 전혀 없고 기소권만 갖고 있다.

■ **인사·훈련처(人事·訓練處)** Personnel and Training 'C' Department

인사부(人事部)와 경찰학교(警察學院)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부는 인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학교는 경찰관 모집과 교육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관리감독처(監管處)** Management Services 'D' Department

정보계통부(資訊系統部)와 서비스질관리부(服務質素監察部)로 구성되고 있다. 정보계통부는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비스질관리부는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재무·정부정책처(財務·政務策劃處)** Finance, Administration and Planning 'E' Department

재정부(財務部)와 행정부(行政部) 및 계획발전부(策劃發展部)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부는 경찰예산과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부는 경찰에 배속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계획발전부는 인구증가 등 장래 경찰수요를 판단하여 경찰청사 건축

과 경찰력에 대한 소요판단 등 장기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경찰관서(警察官署) 수 및 경찰 인력

1개의 경무처 본청과 6개의 지방청 및 23개의 구경찰본부(區警察本部, District)가 있고 구경찰본부 산하에 57개 경찰서(分區警署)가 있으며 파출소와 지구대 제도는 없다.

경찰인력은 정규 경찰관 28,383명, 일반직 공무원 4,444명, 보조 경찰관 3,745명 등 총 36,572명으로 구성된다(정규 경찰관 1인당 약 264명의 시민 담당). 해경은 1개의 해경본청(水警務處)과 2개의 구경찰본부 및 동 본부 산하에 9개의 경찰서(分區 警署)가 있다.

다. 채용 및 교육제도

순경(警員)과 경위후보(見習督察) 2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공개 채용하여 소정기간 동안 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한다. 순경은 경찰학교에서 27주간 소정의 신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경위후보는 36주간의 신입교육과정을 이수한다.

홍콩경찰학교는 현재 실외사격장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는 미니 실내사격장도 갖추고 있으며, 사격술 훈련은 사격의 정확도와 신속도 뿐만 아니라 사격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사격을 한다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황 판단력을 기르는 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상 범죄 상황을 구성 후 각 상황별 대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학교내에 컴퓨터 시설을 갖춘 ‘범죄대응 모의 종합 훈련장’이 마련되어 있다.

라. 외근 요원 교대근무 방법

외근 요원의 교대근무는 보통 3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나 개인별 근무 예정표는 미리(최소 1주일 이전) 컴퓨터에 의해 짜여짐으로써 근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가능케 한다.

순찰 근무의 경우 A, B, C, D 4개 팀이 하루 7시간 30분씩 3교대 근무(1개 팀 휴무)를 실시하고, 형사 근무는 07:00~15:45, 15:00~23:45, 23:00~07:45, 10:45~19:30 등 4개 근무시간대에 A, B, C, D 4개 팀이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교통외근 근무는 통상 A, B, C, D, E 5개 팀으로 나뉘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마. 보수 및 수당 체계

■ 기본급

홍콩경찰은 소방, 교정, 세관 등 다른 기율직(紀律職) 공무원보다 총액 기준으로 약 5~10% 정도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학력 소유자의 사기업 부문 근로자보다 초임 기준으로 약 30%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나 채용된 이후에는 승진 소요기간과 승진 이후 보수 증가액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일률적인 보수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본급은 승진을 하지 못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1%씩 증가되는 시스템으로 계급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되는 연수는 다르다. 즉, 경찰청장은 2년, 부청장은 3년 주기로 인상되며, 계급이 낮을수록 자동적으로 기본급이 1%씩 증가되는 연수가 늘어난다. 또한, 매년 급여인상 협상을 하지 않는다.

■ 수당의 종류 및 액수

수당에는 시간외 수당, 주택 수당(순경에서 경사까지), 교육, 의료비, 직무관련 특별 수당(형사, 교통경찰 등)이 있다.

수당 종류를 5~6개로 줄여 단순화 시켜가고 있고 액수는 계급에 따라 상이하다.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HKD 350불이며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4) 주요 추진정책

가. 시민대상 폭력과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

범죄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에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며, 노상 폭력단과 그들의 활동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수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 및 수사능력을 배양하며, 무기류, 폭발물 관련 범죄 예방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나. 삼합회, 신디케이트 Syndicated 및 조직범죄에 대응

신디케이트 혹은 삼합회(三合會) 등 조직범죄의 조직원 및 그들의 활동과 특히 젊은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주요 단속 목표로 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첩보 수집을 위한 비밀활동 Undercover을 실시하며, 자금세탁 범죄 등을 적극 수사한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과 정보교환을 통해서 국제 성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다. 마약범죄 근절

홍콩으로의 불법 마약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거래를 주요 단속 목표로 삼고 마약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향정신성 마약의 남용을 예방하고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라. 현금거래 범죄(Quick Cash Crime) 예방

전화,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사기거래 관련 범죄단체를 주요 단속 목표로 삼고 현금거래의 범죄경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문제 지역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마. 사이버보안 및 기술범죄 예방

여러 정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인터넷, SNS와 연관된 범죄위험, 컴퓨터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범죄 수사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바. 시민의 안전 강화

질서 및 시민들의 안전유지에 있어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행사에 참여하여 상호이해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을 이끌어낸다.

여러 정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심각한 교통사고 예방, 특히 음주운전, 마약운전, 불법적인 자동차 경주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존 긴급 재난계획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대형사건사고시 준비와 구조단계를 강화한다.

사. 테러예방

테러발생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대테러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요한 인프라와 보안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경비 또한 강화하며,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훈련과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테러 발생시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고, 통일된 대응을 위해서 대테러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2. 재난대응

- 홍콩은 매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태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경보단계에 따라 학교 및 직장의 휴무가 결정된다. 태풍경보 3호(풍속 41~62km/h)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일부 초등학교가 휴교나 귀가 조치를 하고, 태풍경보 8호(풍속 63~117km/h)가 발령되면 모든 학교가 자동으로 휴교를 하고, 직장도 휴무에 들어간다.

(1) 홍콩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홍콩 정부는 대규모 화재, 건물붕괴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3단계의 긴급상황 대응체제 'Three Tier' Emergency Respons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휘체제를 가급적 단

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긴급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단계 대응]

일반적 긴급상황의 경우 홍콩 경찰청 및 소방서와 같은 긴급 서비스 제공 부처내에 마련된 상설 지휘통제 체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개의 지역지휘통제센터와 4개 지역센터를 총괄 지휘하는 “경찰청 지휘통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는 999 전화 등을 통해 전달되는 화재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소방통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단계 대응]

생명, 재산, 안보에 대한 위협 정도가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복합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체제 가동하게 된다.

이때 범정부 기구인 ‘정부총부(Government Secretariat)’가 보안부(Security Bureau) 내에 설치된 “긴급지원단”을 통해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게 된다.

[3단계 대응]

생명, 재산, 안보에 대한 위협 정도가 광범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조치가 필요한 중대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안장관의 지시에 따라 ‘긴급모니터링지원센터’가 가동된다. 정부종합청사 내에 설치되는 ‘긴급모니터링지원센터’가 정부총부의 주요 모니터링/지원센터로

가능하며, 경찰청, 소방서, 신문처, 민정사무총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긴급구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단기간에 종료되기 어렵고 광범위한 긴급상황으로서 홍콩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수반안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동 위원회는 행정수반과 정부총부 및 경찰 소속 고위인사로 구성되며, 긴급상황에서 홍콩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게 된다.

(2) 홍콩의 대표적 자연재해 : 태풍

홍콩은 중국의 남동쪽에 위치해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매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태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1917년에 태풍 경보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기상청은 태풍의 강도에 따른 경보를 발표한다.

태풍의 단계는 예비경보인 1호부터 허리케인 수준의 강풍의 경우 발령하는 10단계까지 있다. 태풍의 중심이 홍콩 부근 반경 800km 안으로 들어오면 태풍 1호를 발령한다. 3호는 풍속 41~62km/h인 경우 발령하고, 8호는 풍속 63~117km/h 이상인 경우 발령한다. 태풍 3호를 발령하면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일부 초등학교가 휴교나 귀가 조치를 한다. 8호가 발령되면 모든 학교가 자동으로 휴교를 하고, 직장도 휴무에 들어간다.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한다.

태풍이 불더라도 대중교통은 운행을 한다. 태풍 8단계가 발령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귀가하려 한꺼번에 몰려드는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는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 때처럼 운행간격을 좁히

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후에 버스는 차츰
운행을 중지하며,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페리를 비롯하여 모든 페리
도 운행을 중지한다.

태풍 외에도 홍콩 기상청은 황색Amber, 적색Red, 흑색Black의 3단계
호우경보발령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간당 70mm 이상의 폭우가 내
릴시 흑색 경보를 발령하며 등교, 출근 전이라면 학교와 회사 모두 휴
무를 원칙으로 한다.

• 태풍 경보의 단계별 신호 및 의미

신 호		의 미
태풍1호	T1	태풍이 홍콩 부근 800km 이내로 접근함
태풍3호	⊥3	풍속 41~62km/h의 바람 부는 날씨가 예상됨
태풍8호	▲8/▼8	풍속 63~117km/h의 바람 부는 날씨가 예상됨
태풍9호	▼▲9	태풍의 강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태풍10호	+10	풍속 118km/h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

교육제도

- 국제 공통 대학입학 자격제도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의 2015년 시험 결과, 전세계에서 14만 명이 시험을 치렀고 그 중 160명이 45점 만점을 획득했다. 그리고 홍콩에서만 27명의 장원이 탄생했다. 홍콩의 경우 1,995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이중 장원은 27명(세계 17%, 아태지역 43% 차지), 평균은 35.83으로 세계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알려져있다(홍콩언론 보도 종합).

- 지역별 응시인원 및 점수

지역	응시 인원	평균점수	만점 인원
전 세계	141,800	29.88	160
아시아태평양 지역	14,451	33.22	63
홍콩	1,995	35.83	27

1. 우수한 인재육성

홍콩이 아시아의 물류·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서구화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영어 사용이 가능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홍콩시민의 경우 대부분 원활한 영어소통 능력과 양호한 업무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 2012년 홍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홍콩인의 60% 이상이 회화, 작문 등에서 영어 활용능력이 평균 이상을 넘는 우수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홍콩인들의 우수한 영어소통 능력은 영국 식민지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홍콩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홍콩은 영어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고,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국제도시로서 일상생활에서 영어사용이 상용화되어 있다. 이에 더해 홍콩정부는 영어교육 강화, 국제학교 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교육환경은 우수 인력의 자체 양성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홍콩 진출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 각 국의 금융·법률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질 좋은 국제학교는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이다.

2. 학교 편제

• 홍콩의 교육시스템



(1) 유치원 Kindergarten

홍콩에서 유치원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만3세부터 만5세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학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홍콩 거주자격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의 부모는 정부로부터 일부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즉, 홍콩정부는 Pre-primary Education Voucher Scheme에 따라 2007/2008학년도부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자녀 1인당 연간 바우처 금액은 HKD 22,510불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치원들은 학비가 바우처 금액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바우처를 전혀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몇몇 유치원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학원서를 넣고 대기해야 하고, 유치원 입학에 위한 별도의 사설학원이 성행할 정도이니, 홍콩 부모들의 교육열도 이미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치열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ESF Educational Services의 테스트 담당관은

“유아를 위한 영어 테스트의 연령 하한선이 5세였으나 홍콩의 극성 학부모들이 연령 하한선이 4세인 중국·마카오로 아이를 데리고 시험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지자 센터에서 연령대를 낮췄다”며 홍콩의 조기 교육열이 더욱 심해지는 실정을 전한 바 있다.

홍콩 교육국(教育局, Education Bureau)에 따르면, 2014년 9월 기준 약 176,400 명의 학생들이 978개의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2)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홍콩정부가 2009년 9월부터 시행해온 신규학과편제(New Academic Structure)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12년(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기 전에 우리의 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Hong Kong Diploma of Secondary Education(이하 ‘HKDSE’) 시험을 치른다.

홍콩의 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 및 운영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그에 따라 대상 학생, 학비, 커리큘럼, 입학요건 등도 상이하다.

● 학교 구분

구분	재정·운영 주체	특징
공립학교 (Government Schools)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운영	현지학생 대상/학비 면제
정부보조 학교 (Aided Schools)	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현지 자선 및 종교단체가 운영	현지학생 대상/학비 면제

구 분		재정·운영 주체	특징
직접보조계획 (Direct Subsidy Scheme)		다양한 비정부기관이 운영하며, 사립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홍콩정부 직접보조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는 하나, 정부보조학교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	현지학생 대상/ 커리큘럼, 학비, 입학요건 등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사립학교 (Private Schools)	사립현지학교 (Private Local Schools)	다양한 사립단체가 운영	주로 현지학생 대상/ 영어 및 광둥어로 수업 진행/입학은 재정능력 보 다는 학업 능력에 따라 결정
사립학교 (Private Schools)	사립국제학교 (Private International Schools)	다양한 사립단체에서 운영하며, 학비, 등록비, 다양한 서비스 비용 이외에도 학교 건립, 설비 구입을 위한 채권(debenture) 등을 발급하기도 하고, 채권을 구입한 경우 입학시 우선순위 제공	주로 비현지 외국인 학생 이 대상이나 현지학생들 도 증가 추세/영어 및 학교 후원 국가에 따라 불어, 일본어, 한국어 등 으로 진행/입학은 학교의 재량사항
ESF (English Schools Foundation)		1967년 홍콩정부에 의해 설립 된 ESF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학비는 사립국제학교 보다는 저렴	현지학교에 다니기 어려 운 영어권 학생들이 대상 (9개의 초등학교와 5개의 중·고등학교 그리고 1개 의 특수학교 운용)

재정 규모의 차이에 따른 결과지만, 홍콩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클래스의 크기, 부대시설, 커리큘럼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공립학교들은 보통 클래스의 크기가 사립보다 훨씬 크고, 부대시설이 비교적 적으며, 교육방식도 교사 주도 주입식으로, ‘Chalk and talk’로 불리는 ‘분필과 대화’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공립 및 사립 로컬학교들은 다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와 광둥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홍콩에서는 광둥어로 가르치는 학교들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들보다 열

등한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학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명문 사립 학교를 선호하며, 그에 따라 입학 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홍콩의 명문 사립학교의 입학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 수많은 학부모들이 전날부터 학교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진풍경도 홍콩에서는 그다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3) 대학교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홍콩대(2위), 홍콩과기대(5위), 중문대(6위), 시티대(9위) 등 4개 대학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KAIST(3위), 포스텍(10위)로 2개 대학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도 홍콩대(3위), 홍콩과기대(7위), 홍콩 중문대(13위) 등 3개 대학이 20위권 안에 들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서울대(6위), KAIST(8위), 포스텍(11위), 성균관대(16위) 등 4개 대학이 20위 안에 들었다.

최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를 선택하는 한국 유학생이 부쩍 늘고 있다. 홍콩 유학생은 2010년 114명에서 지난해 652명으로 급증했고, 싱가포르 유학생은 같은 기간에 112명에서 281 명으로 증가했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홍콩의 낮은 등록금(1년에 600만~700만원, 유학생 기준)과 높은 취업률(홍콩대의 경우 99.8%)이 가장 큰 매력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 대학교 구분

구분	재정	학교	기타
일반정규 대학 (8개)	UGC 지원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City University of Hong Kong/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Hong Kong Bap- tist University/Lingnan University/ 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	4년제, 교육대는 2년제 내지 5년 제
사립고등 교육기관 (10개)	대학 자체	Caritas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Centennial College/Chu Hai College of Higher Education/Hang Seng Manage- ment College/HKCT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Hong Kong Nang Yan College of Higher The Open University of Hong Kong/Hong Kong Shue Yan Univer- sity/Tung Wah College/Technological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e of Hong Kong, Vocational Training Council/The Open University of Hong Kong	2-3년제 또는 4년제
공공재정 지원 대학 (1개)	공공재정 지원 (UGC 지원 이외의 형태)	Hong Kong Academy for Performing Arts	

자료 : 홍콩 교육국 홈페이지, 2014/2015학년도 기준

홍콩에는 대학재정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ttee:UGC)의 지원을 받는 8개의 일반정규대학과 공공재정 지원을 받는 1개 대학, 그리고 대학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10개의 사립고등교육기관 등 총 19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홍콩 대학교육의 특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홍콩에는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는 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지리적인 크기나 인구 규모로 보았을

때 홍콩만큼 우수한 대학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드물다.

둘째, 홍콩은 대학문이 좁은 것으로 유명하다. 대학진학율이 70%를 넘는 한국과는 달리 홍콩의 대학진학율은 30%를 넘지 않는다. 특히 홍콩내 정규 대학(8개) 입학률은 2013년의 경우 18%, 2014년의 경우 15% 정도로 홍콩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홍콩내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학에 성공한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한 경우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

홍콩시험평가국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7만 9천여명의 학생이 HKDSE에 응시하여 2만 8천여명이 합격했으나, 공립대학들의 입학 정원수 때문에 1만 2천명 만이 공립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 해에 대학입학 정원이 정규대학(8개)과 기타 대학(11개)을 포함 2만 2천여명 정도라고 하니, 홍콩에서 대학교육은 상당히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홍콩의 학부모들 사이에는 좋은 대학 입학 을 위해서는 일찌감치 좋은 유치원에 보내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한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어 치열한 유치원 입학 경쟁, 비싼 학비, 높은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해외유학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유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홍콩의 정규대학들은 학비가 매우 저렴하다. 홍콩대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2014/2015 학기 학비는 1년간 HKD 42,100불로 USD 5,500불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대학교육을 이 같은 낮은 학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사학이 전체 대학의 80%를 넘고 그 대부분이 족벌경영을 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액학비를 내고도 부실한 교육환경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국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하위권이며 교육비 지출에서 사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달하는 반면, 홍콩은 공적재원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 교육당국은 8개의 홍콩내 정규대학의 수를 늘리는 대신 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학의 난립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전문기술인력 부족 및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전체 비용을 늘리고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기본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한국 교육당국은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질을 높여겠다는 장기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GDP, 인구, 사회적 인식 등에서 홍콩과 한국의 교육 현실은 엄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홍콩의 교육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홍콩 교육시스템의 성과**

QS(Quacquarelli Symonds) : 아시아 대학순위
 홍콩대(2위), 홍콩과기대(5위), 홍콩중문대(6위), 시티대(9위)
 THE(Time Higher Education) : 아시아 대학순위
 홍콩대(3위), 홍콩과기대(7위), 홍콩중문대(13위)



3. 영어사용 인력 공급 확대 노력

홍콩정부가 일찍부터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홍콩 내에는 현재 104개의 국제유치원과 75개의 초중등 국제학교가 있다, 또한 현지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콩에는 세계 100대 대학에 랭크된 3개 대학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정규대학이 있는데, 모든 대학이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1) 국제학교를 통한 영어교육

2014년 말 현재 홍콩의 유치원 및 초·중·고 과정의 국제학교는 총 179개로 홍콩 전체 교육기관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학교에는 미국·영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교과과정을 채용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가 있으며, 주요국의 대학 진학도 현지 학교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의 국제학교 학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학교간의 학비 차이도 매우 크다. 홍콩 교육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국제학교 초등과정 학비는 매년 HKD 5,800불부터 HKD 155,700불까지 격차가 무려 26배에 달한다. 중등학교의 경우는 1년 학비가 HKD 33,600불부터 HKD 173,400불까지 다양하고 그 차이가 5배에 이른다.

● 국제학교 비중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수	비중	학교수	비중	학교수	비중
현지학교	874	89%	526	92%	479	94%
국제학교	104	11%	45	8%	30	6%
합계	978	100%	571	100%	509	100%

자료 : 홍콩 교육국 홈페이지, 2014/2015학년도 기준

홍콩정부는 국제학교를 단지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글로벌화된 세계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편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현지학생들도 입학시험만 합격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어 상당수의 홍콩 학생이 국제학교에 재학중이다. 홍콩 부모들도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에 선호한다. 유명 국제학교의 경우 약 10~30%의 학생이 홍콩 국적인데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의 국적을 가진 홍콩학생들이 많아 실제 홍콩학생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국제학교의 인기가 높아 국제학교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선호도가 있는 유명한 학교들은 입학을 희망하는 홍콩 학생들이 상시 대기 중이다.

(2) 일반학교도 수업언어를 자율적으로 선택

홍콩정부는 국제금융중심지와 국제도시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9년 5월 중등학교 수업 언어와 관련한 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9월 시작 학년도부터는 영문중학교와 중문중학교로 나누는 분류정책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수요, 교사의 역량, 학교 차원의 지원방안 등에 따라 학급별,

그룹별, 또는 과목별로 자율적으로 수업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일부 중문중학교가 영어로 가르치기로 전환함에 따라 영어 사용 학교가 거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

4. 앞으로의 과제

(1) 빈부격차와 대학진학률

홍콩교육대(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는 1991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부모가 각각 빈곤소득선 이하인 경우와 상위 10%인 경우 그 자녀들의 대학 형태별 진학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20년간 빈부격차에 따른 대학진학률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4년제 대학의 경우 빈곤소득선 이하 가정의 자녀들의 진학률은 8.0%에서 13%로 소폭 상승한 반면, 상위 10% 소득 가정의 자녀들은 9.3%에서 48.2%로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 소득별 대학진학률 변화

구분	1991		2011	
	빈곤소득선 이하	상위 10%	빈곤소득선 이하	상위 10%
4년제대학(학사)	8.0%	9.3%	13%	48.2%
전문대(부학사)	16.0%	16.4%	30.0%	23.6%
대학 입학 포기	20.8%	9.1%	19.2%	7.7%

자료 : 홍콩교육대 발표, 2013년 1월 31일

- ※ 빈곤소득선(Poverty threshold, 가구별 평균소득의 50%)
 - 1인가구 평균소득 HKD 7,300불 : 빈곤소득선 HKD 3,650불
 - 4인가구 평균소득 HKD 30,500불 : 빈곤소득선 HKD 15,250불

홍콩내 국제학교의 섬머스쿨이 약 7천 달러, 해외 캠프의 경우 1만 7천 달러 수준이다. 유명 국제학교인 CIS^{Chinese International School}의 2015년도 여름방학 해외여행 프로그램 참가비는 일인당 HKD 16,500불(항공편, 비자, 보험 등 불포함)이라고 한다. 2013년 기준 4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HKD 30,500불이고, 빈곤소득선이 HKD 15,250불 정도라고 하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홍콩 인구 800만 명 중 97만 명이 빈곤층에 속한다. 홍콩정부는 빈곤층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책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2) 국제학교의 부족 우려

홍콩의 학부모들은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해외 입시 준비가 용이한 국제학교를 더욱 선호하여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려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정 국제학교와 제휴가 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기 때문에 좋은 국제유치원에 보내면 그 계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국제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조기교육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홍콩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홍콩인들도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제학교 입학 경쟁률과 학비가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영어학교재단^{English Schools Foundation} 소속 학교들의 경우 지원자가 너무 많아 일부 학생들은 면접조차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있다고 한다.

● 국제학교 전체 학생수 대비 홍콩학생 차지 비율

구분	전체 입학 수	홍콩학생	외국국적 학생
2012 / 13	34,374	4,998(14.5%)	29,376(85.5%)
2013 / 14	35,580	5,650(15.9%)	29,930(84.1%)
2014 / 15	36,635	6,413(17.5%)	30,222(82.5%)

자료 : 홍콩교육국 입법회 제출 자료, 2015년 4월 22일

일부에서는 이러한 국제학교 부족으로 홍콩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 경제일보는 홍콩 중산층 부모들이 국제학교의 커리큘럼 선호 및 영어학습 기회 등을 이유로 국제학교를 점차 선호하고 있는 바, 이는 당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학교 부족 현상이 거주 외국인들의 증가도 있지만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홍콩의 교육제도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제학교의 입학 공급 및 수요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는 가운데 정작 입학률은 90% 미만에 그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제학교에 대한 편향적 선호와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홍콩정부는 2016년이 되면 초등학교의 경우 4,203자리가 부족한 반면, 중고등학교는 2,439자리가 남는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홍콩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속 노력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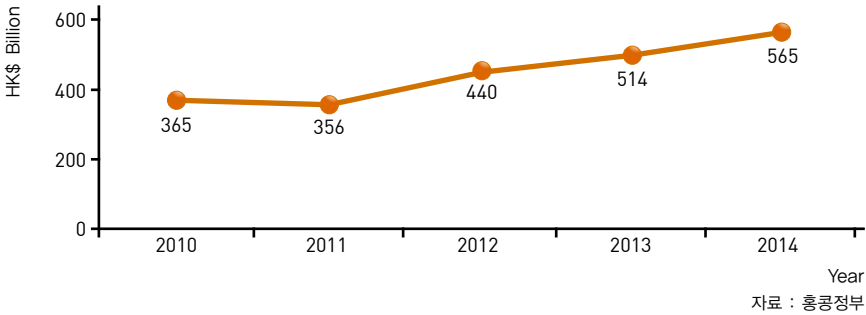
공공연금제도

- 홍콩의 연금펀드(MPF: Mandatory Provident Fund)는 퇴직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적연금 방식으로 관리되는 홍콩의 공공연금제도이다.

2013년말 기준, 홍콩 고용주의 99%(약 26만 4,000명), 근로자의 100%(약 248만 5,300명), 자영업자의 62%(약 21만 2,400명)가 연금펀드(MPF)에 가입하고 있다. 가입면제 대상을 제외한 18세부터 64세까지 60일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근로자 소득의 5%, 자영업자는 자신의 소득 5%를 납입하여야 한다.

2013년말 기준, 연금펀드의 총 순자산액은 5,140억 홍콩달러 규모로서, 연평균 4.4%의 수익률을 기록중이다.

● MPF 순자산액 추이



연금펀드의 의무기여금과 투자 수익은 연금펀드 수령권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현 직장의 고용계약 종료되거나 직장 이동시 당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scheme으로 이전은 가능한 구조이다.

한편, 퇴직연금ORSO: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Ordinance은 연금펀드 도입 이전부터 홍콩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주들이 가입하는 연금보험제도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연금펀드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연금펀드 제도의 규율·감독·교육 등을 위해 50억 홍콩달러를 투입하여 연금감독기구MPFA: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를 설립하였다. 동 기구는 운영을 총괄하고 법규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연금펀드 등록·투자펀드 및 수탁자 승인과 가입 면제대상자 승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홍콩 입법회는 연금펀드 가입자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 기존 월소득 6,500-25,000 홍콩달러 기준을 7,100-30,000 홍콩달러로 상향조정하고, 각각 하한소득 기준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상한소득 기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금감독기구는 연금펀드의 투자수익 인출의 유연성 및 편리성을

강화하고, 연금펀드 제도 운영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연금펀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단기적인 조치들을 추진 중이다.

● 연금펀드(MPF) 및 퇴직연금(ORSO) 관련 주요 지표 추이

	2011	2012	2013
MPF Enrolment			
Number of participating employers	252,500	259,800	264,400
Number of participating relevant employees	2,341,200	2,375,100	2,485,300
Number of participating SEPs	229,400	220,400	212,400
Estimated MPE Enrolment Rate (percent)			
Employers	98	100	99
Relevant employees	99	99	100
SEPs	70	65	62
MPF Schemes			
Number of registered schemes	41	41	41
Number of approved constituent funds	445	464	477
Aggregate NAV of all MPF schemes(\$billion)	356	440	514
MPF-exempted ORSO Registered Schemes			
Number of MPF-exempted ORSO registered schemes	3,804	3,705	3,601
Number of participating employees in MPF-exempted ORSO registered schemes	369,865	361,083	351,497
Aggregate NAV of MPF-exempted ORSO registered schemes(\$billion)	251	250	273

자료 : 홍콩정부

연금펀드의 행정절차 표준화·간소화·자동화, 수탁 금융기관간 투자수익 이전이 용이토록 전자결제 시스템 개발, 투자(수탁) 규모가 작거나 투자효율이 낮은 scheme의 통합, 연금펀드 scheme 운용 수수료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연금감독기구는 또한 장기적으로 연금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진행중인 바, 연금펀드 투자수익의 유동성 확대, 모든 연금펀드 scheme에 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하는 핵심펀드 설정 등을 검토 중이다.

10

의료 및 보건제도

- 홍콩주민이 일본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주요 지역의 평균수명에서 여성의 경우 일본이 1위로 86.63세, 2위가 홍콩으로 86.75세로 나타났다. 남성 수명은 홍콩이 1위로 81.17세이며, 그 다음이 아이슬란드로 80.8세, 이어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순이었다.
- 글로벌 컨설팅회사 머서Mercer가 2012년 전 세계 221개 도시를 대상으로 거주환경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홍콩은 50위권 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홍콩주민이 장수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정비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 현재 홍콩의 의료비용은 홍콩 정부가 거의 부담하고 있어 홍콩주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공립병원, 보건소 등에서 훌륭한 수준의 진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신속한 응급구조 역시 홍콩의 자랑이다. 신고가 접수된 지 12분 만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확률이 거의 90%를 육박한다고 한다.

1. 홍콩의 의료 제도

(1) 듀얼트랙 시스템

홍콩의 의료 제도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뉘어진 듀얼트랙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 부문은 홍콩 보건의료시스템의 기반으로 공동체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민간 부문은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공공의료서비스

홍콩 위생서(衛生署) Department of Health는 31개의 모자건강센터를 운영 중이고, 병원관리국(醫院管理局) Hospital Authority은 47개의 전문의 외래병원과 73개의 일반 외래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관리국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병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홍콩주민은 매번 일반 외래병원 방문시 테스트 비용이나 약처방비를 포함하여 HKD 45불만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외래병원으로 보내지는데, 초진비는 HKD 100불, 재진시부터는 매회 HKD 60불을 지불한다(약 처방 시에는 HKD 10불 추가지불).

또한 홍콩주민이 공공병원의 일반병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는 일일 기준 HKD 50불이며, 급성환자 병상일 경우 일일 HKD 100불, 비급성의 경우는 HKD 68불을 지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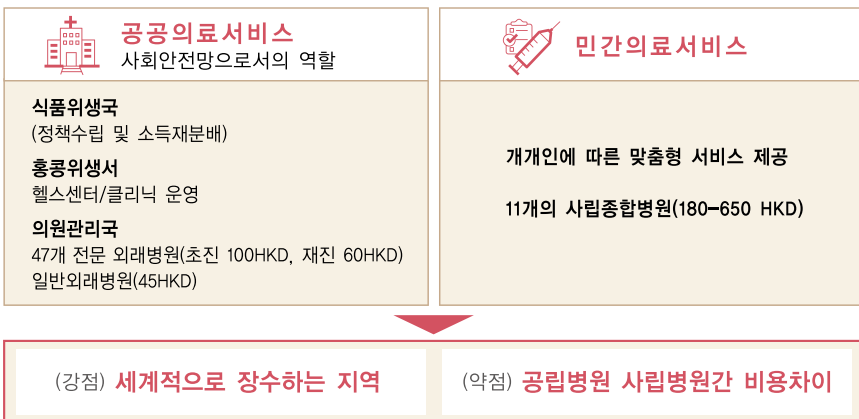
공공병원의 경우 환자가 지불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료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3) 민간의료서비스

홍콩내에는 11개의 사립 종합병원이 있다. 사립병원의 진료비는 매번 내원시 HKD 180불에서 HKD 650불까지 다양하며, 전문의 진료는 이 비용을 상회한다. 진료비에는 약처방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별도로 지불하며, 이외에도 각종 테스트, 엑스레이검사 등도 모두 별도로 청구되기 때문에 실제 진료비용은 훨씬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원비도 병실 종류에 따라 1일 HKD 수 백불에서 수 천불에 이르며, 입원환자는 의사에게 지불하는 일일진료비 외에도 각종 비용(약처방, 드레싱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홍콩의 의료시스템(Dual Track)



(4) 앞으로의 과제

가. 공립 및 사립병원 비용부담 격차 문제

1990년 이후 홍콩 공공병원의 의료수준은 사립병원 의료시스템에 능가하는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 및 사립병원간 진료비 및 입원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공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 대기자가 많아지고 서비스 대기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공공병원이 서비스 제공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즉 공공병원은 1일 입원비가 HKD 100불인 반면, 사립병원은 최소 HKD 2,000불 정도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중저소득층 인구 대부분이 공립병원을 찾는다. 통계에 따르면, 공공병원은 환자 전체의 90% 가량을 돌보는 반면, 사립병원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콩정부는 최근 5년간 병원관리국에 대한 예산을 50%이상 증편하는 등 공공의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공공병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 입원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것도 공공병원 이용시 대기시간 장기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어떻게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민간부분이 전체 의료수요를 적절히 흡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강제적인 공공의료보험 제도의 도입, 환자의 공동부담을 통한 자기부담금 증액, 은퇴 후 의료서비스를 위한 saving account등의 의료부문 개혁 논의가 그것이다.

홍콩정부는 최근 오랫동안 끌어왔던 정부지원 민간 건강보험제도

인 건강보호제도 Health Protection Scheme 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약 150만 명이 혜택을 받고 막중한 공공병원의 부담도 덜어 줌으로써 공공 보건과 민간 보건시스템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연간 45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과 세금혜택에 따른 비용 부담도 예상되고 있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홍콩정부는 양 부문이 서로 구분되어 있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범위 및 인센티브가 적었던 공공 및 민간 부문간의 협력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나. 공공병원의 인력부족 문제

홍콩의 공공병원은 홍콩 전체 환자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수는 홍콩 전체 의사의 40%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사립병원들이 유능하거나 경험이 많은 의사, 간호사들을 공공병원보다 훨씬 좋은 보수와 조건으로 채용하는 추세가 많아지면서 공공병원의 직원 이직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으려면 심하게는 100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는 자연스레 공공병원 의료수준의 질적 저하(빈번한 의료사고 등)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홍콩의 공공병원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가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최고 2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중 가장 긴 대기기간이 소요되는 분야는 정형외과와 외과로 평균 52주를 기다려야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07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로 대기기간이 긴 경우는 내과로 평균

34주, 최고 68주였으며 안과, 수술외과가 그 뒤를 이었다.

렁팍인(梁栢賢) Leung Pak-yin 병원관리국장은 “대기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부족에 있으며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홍콩 공립병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홍콩내 2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2. 홍콩의 보건제도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홍콩에서 독감으로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에도 홍콩은 1968년 세계에서 100만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홍콩독감이 시작된 곳이었다. 2003년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홍콩에서 300여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홍콩을 ‘질병의 인큐베이터’ 라고 칭했다. 홍콩에서 유달리 독감이 빈번하게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살아있는 돼지·닭이 좁은 공간에 사람과 뒤섞여 있는 홍콩 시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우준희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간, 돼지, 닭이 각자의 독감 바이러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생겨난다” 고 말했다. 1968년 ‘홍콩독감’ 도 인간독감 바이러스인 H2N2형에 조류 바이러스인 H3형이 결합해 나온 새로운 H3N2형으로 인해 발생했다. 홍콩의 높은 인구밀도는 이렇게 생긴 신종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홍콩은 1km²당 인구가 6,600여명으로 세계 4위다.

홍콩의 독감 시즌이 지구 북반구의 다른 지역보다 늦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독감 시즌이 11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지만, 홍콩에서는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홍콩에 들어오는 독감 바이러스는 이미 다른 국가에서 인간의 면역체계와 항생제를 건넌 이후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는 것이라, 홍콩은 미국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환승지로 국제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데 이 같은 특성도 홍콩이 독감에 취약한 요인으로 지적된다(국내언론 기사 발췌).

(1) 개 관

2015년 5월말 한국에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6월 9일 홍콩은 한국에 대해 홍색여행정보를 발령했는데, 홍콩은 메르스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 가장 먼저 여행정보를 발령한 지역 중 하나였다. 한-홍콩간 인적교류 규모가 크다는 점도 감안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전염성 질병에 대한 홍콩의 경계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일찍이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경험한 홍콩은 전염성 질병이 그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 홍콩에서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755명이 진단을 받았으며 29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병원을 제외하고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폐쇄되거나 문을 닫아야만 했다. 아시아의 국제도시라고 불리던 홍콩은 말 그대로 유명도시가 되었다.

홍콩 경제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관광객은 전년에 비해 60% 이상 격감했고, 호텔의 객실점유율은 3월초 79%에서 5월초에는 18%까

지 떨어졌다. 항공기 승객들도 77% 이상 줄어들었다.

아울러 피해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정부의 대응이 늦었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따라 당시 식품위생장관(食品衛生局局長) Secretary for Food and Health, 병원관리국장 등은 사임을 해야만 했다.

홍콩에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결국 사스는 홍콩의 보건·위생 시스템을 전면 개편·보완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 홍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생방역시스템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 사스 발생 이후 홍콩정부가 도입한 질병 예방 및 대응 체계



2004년 6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생서(Department of Health) 아래에 위생방역센터(Center for Health Protection)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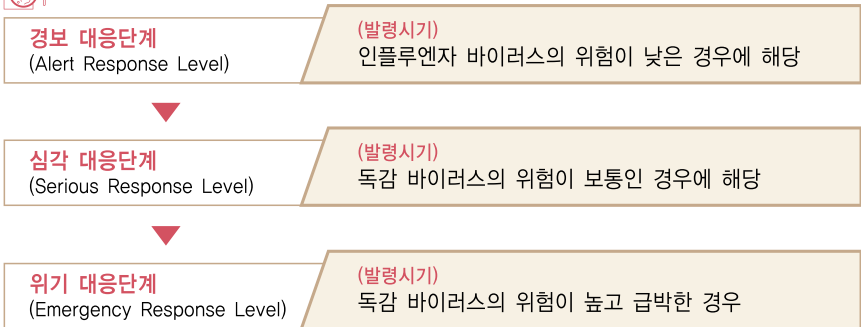


대응 플랜

- 대응레벨은 위험평가에 근거하는데, 질병의 전염력, 질병의 지리적 분포, 질병의 의학적 심각성, 주민들의 취약성 정도, 예방조치의 존재 여부, 국제보건기구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응 단계



(2) 질병 예방 및 대응 체제

사스 발생 이후 홍콩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질병 예방 및 대응 체제는 다음과 같다.

2004년 6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생서(Department of Health) 아래에 위생방역센터(衛生防護中心) Centre for Health Protection가 신설되었다. 위생방역센터는 ①실시간 감시 ②신속한 개입 ③즉각적인 위기 전달을 기본원칙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령탑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이나 국가, 국제기구와의 연락체계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병원관리국은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질병의 전염성과 의학적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계수준을 구분하는 제도인데, 처음 도입시에는 세가지 색(초록/노랑/적색)으로 경계수준을 구분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Alert/Serious/Emergency로 경계수준을 구분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Prevention and Control Disease Ordinance를 제정, 특정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의사들이 보건당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현재 신고의무가 있는 전염성 질병은 총 48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홍콩정부는 범정부적 협업 메커니즘 및 비상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다.

- 위기 발생시 **홍콩정부의 대응플랜** Preparedness Plan for Influenza Pandemic 은 경보→심각→위기Alert→Serious→Emergency 3단계로 구성된다. 대응레벨은 위험평가에 근거하는데, 질병의 전염력, 질병의 지리적 분포, 질병의 의학적 심각성, 주민들의 취약성 정도, 예방조치의 존재 여부, 국제보건기구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시적으로 인플루엔자 발생시 대응플랜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보 대응단계Alert Response Level]

- 발령시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 해당
- 홍콩 인접 지역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보다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경우로써, 홍콩 내에서 사람간 감염을 야기할 만한 긴박한 위험은 없는 경우

발령주체 동물간 전염의 경우에는 농어업자연서장Director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의 권고, 사람간 전염의 경우에는 위생서장Director of Health의 권고에 따라 식품위생장관Secretary for Food and Health이 발령 또는 해제

[심각 대응단계Serious Response Level]

- 발령시기** 독감 바이러스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에 해당
- 홍콩 내에서 새로운 인플루엔자에 의한 심각한 사람간 전염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로써, 심각한 전염이 단시간내에 광범위하게 퍼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 경우

발령주체 상기와 동일

[위기 대응단계Emergency Response Level]

- 발령시기** 독감 바이러스의 위험이 높고 급박한 경우
- 심각한 사람간 전염의 위험성이 높으며, 심각한 전염이 광범위 할 경우

발령주체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이 식품위생장관의 권고에 따라 발령 하거나 대응레벨 조정.

식품안전, 환경위생, 농업 및 어업

- 홍콩은 농식품 소비의 90 퍼센트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동물성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식품위생 관련 정부 조직

식품위생국 Food and Health Bureau은 식품안전, 환경위생, 동물위생, 농업과 어업에 관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 집행기관으로는 식품환경위생서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농수산보존서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정부화염소 Government Laboratory를 두고 있다.

식품환경위생서는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식품안전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담당한다.

농수산보존서는 농업과 어업을 관장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집행기관으로 농수산업 시장조성, 기술지원, 금융지원, 동물 질병 예방을 관

장한다.

정부화업소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혹은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으며, 식품환경위생서의 식품안전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2. 식품안전관리

(1) 식품 유통 · 판매에 관한 면허와 허가 시스템

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식품환경위생서는 식품을 유통 혹은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식품 유통과 판매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한방 차, 우유, 냉동 과자와 같이 일반적인 판매가 제한되는 식품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극장, 영화관, 오락실, 수영장, 목욕탕 등의 공공이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면허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2) 식품 안전 및 라벨링

식품환경위생서의 산하조직인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는 수입 및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을 원칙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수입, 도매유통, 소매유통 단계에서 샘플링하여 연간 7만건의 식품 표본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화학적 관점, 미생물학적 관점, 방사능 관점에서 실시한다.

홍콩은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영양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는 식품이 함유한 열량과 특정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을 제조하는 공급자가 건강한 식품을 제조하도록 장려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재래시장과 행상인

홍콩에는 식품환경위생서가 운영하는 101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신선 제품, 조리 식품, 다과류, 가정용품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식품위생국은 재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영업 환경, 경쟁 요인, 소비자 유인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홍콩에서 약 6000개의 고정식 행상과 약 500개의 이동식 행상이 지정된 행상인 판매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행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환경위생서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고정식 행상인에 대해서는 2013년 6월부터 5개년 지원계획이 시작되어 43개 행상인 판매지역에 있는 4,300명의 행상인을 대상으로 화재위험 방지 등을 위해 영업장 위치를 옮기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 금융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화재위험이 극심한 경우 행상인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하면 이에 대한 위로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도축장

홍콩에는 3개의 도축장이 성수이 Sheung Shui, 취엔완 Tsuen Wan, 청차우 Cheung Chau에 있으며 도축장에 대한 면허발급과 위생기준 감독업무는 식품환경위생서에서 맡고 있다. 도축장에서 제공하는 고기는 시장에 판매하기 이전에 위생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소변과 피부조직 샘플을 이용하여 잔류 약물 여부 등을 검증한다. 연간 도축규모는 돼지 160만 마리, 소 2만 마리, 염소 6천마리 수준이다.

3. 환경위생

(1) 공공 청결 서비스

식품환경위생서는 거리 청소, 생활 폐기물 수집 및 공중 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콩 내 모든 거리를 하루 한번에서 여덟 번까지 청소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거리청소는 외부용역업체에 의해 행해지며 외부용역 비중은 약 77% 수준이다.

또한, 행인이 많이 사용하는 길, 행상거리,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세척 서비스를 식품환경위생서 주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환경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매일 수거되며, 일일기준 약 5,340톤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식품환경위생서는 공공장소에서 침 뱉기, 쓰레기 투척, 기타 비위

생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 위생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통지를 발급하고 이러한 시정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다.

(2) 해충 방제

해충을 매개로 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식품환경위생서의 주요 업무이다. 설치류와 모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 텅기열의 주요 점염원인 흰줄 숲모기 *Aedes albopictus*에 대해서는 특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모기 박멸팀은 모기 번식 장소에 대해 연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박멸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3) 묘지 및 화장장

식품환경위생서는 여섯개의 공공 화장터, 열개의 공공 묘지, 여덟개의 공공 납골벽감을 운영하고 있으며, 27개의 민간 묘지에 대한 관리상황을 감독하고 있다.

식품환경위생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통해 재를 처리하는 동시에 망인에 대한 경례가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골 재를 바다에 뿌리는 경우 무료 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 메모리얼 기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4) 환경위생교육

식품환경위생서는 위생 교육 전시장 및 자원센터를 구룡공원 내에 운영하고 있고 이곳을 통해 연간 2천4백건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식품안전과 환경위생에 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식품안전센터는 식품안전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자와 대중을 상대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23개의 식품 관련 민간조직과 1,660개의 판매점과 소매점이 식품안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4. 동물 질병 예방

(1) 조류 독감 대책

홍콩 정부는 조류독감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판매에 이르는 가금류 공급망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한 H5 조류독감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와 협약을 맺어 수입되는 모든 가금류는 공급하는 가금류 농장에서 H5 조류독감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으로 수입되는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는 조류독감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시장판매가 가능하며, 특히 수입량이 많은 중국 농장에 대해서는 정부 수의사가 파견되어 조류독감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닭, 오리, 거위, 비둘기, 메추라기와 기타 가금류를 마당에 키우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만 달러(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애완 조류 상인은 위생증명서를 위생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조류 원산지, 공급자 성명과 주소 등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원천 정보를 알 수 없는 조류에 대한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조류 상인은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조류의 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공공 시장 노점과 정육점의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는 오후 8시 이전에 도축해야 하며 살아있는 가금류는 오후 8시와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공공시장 노점과 정육점에서 보유할 수 없다.

살아있는 가금류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죽은 가금류는 발견 즉시 식품환경위생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살아있는 가금류 판매자는 과잉 제고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고객과 가금류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기 위해 가금류 케이지에 아크릴 패널을 부착해야하고 고객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만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식품환경위생서는 효과적으로 조류독감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가금류 농장, 도매상, 소매상으로부터 건강하거나 병든 조류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정기적으로 조류독감 테스트를 실시한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공원, 애완 동물 상점 및 야생 조류 습지 등에서도 관련 샘플을 채취하여 조류독감 여부를 수시로 테스트한다.

정부는 병들고 죽은 야생 조류를 수시로 수집하여 조류독감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2013년에 수집한 약1만5천개의 야생 조류 사체 중 한 건의 H5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홍콩정부는 조류독감 방지를 위하여 중국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홍콩으로 공급되는 가금류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조치에는 (a) 살아있는 가금류 판매점에서 배설물과 음용물을 수거하여 H1~H16 바이러스 테스트 (b) 살아있는 가금류 판매점의 조류독감 관련 규제사항 준수여부 현장조사 (C) 식품환경위생서로부터 허가받은 공공시장에 대한 일일 3회 소독 실시 (d) 영업시간 후 가금류 시장 노점에 대해 세정 및 소독 실시 (E) 시장 청결 및 환기 시스템 청결 유지 (f) 야생조류가 모이는 공공장소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강화하고 야생 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엄격히 제한·단속하고 있는 것 등이다.

(2) 해외 반입동물 질병 통제

농수산보존서는 해외로부터 전염되는 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와 검역을 담당하고 있다. 수입되는 동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간 수입되는 개, 고양이, 말, 파충류, 조류 등에 대해 약 6천2백건의 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 원산지, 동물종류, 반입목적 등을 기반으로 홍콩으로 반입되는 동물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동물 질병을 차단하고 있다.

(3) 검역 탐지견 프로그램

검역 탐지견 프로그램은 불법적인 동물 수입을 적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탐지견은 살아있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동물성 제품을

적발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5. 동물 복지와 관리

(1) 동물 복지

농수산보존서는 12개의 동물 복지 단체와 협력하여 개, 고양이, 토끼, 조류와 파충류를 대상으로 새로운 주인 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보존서는 동물복지단체와 합동으로 동물입양의 날을 개최하고 있으며 입양된 동물에 대해서는 거세 서비스도 제공한다.

동물 학대 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 등과 같은 부서간 합동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경찰, 식품환경위생서, 농수산보존서가 합동으로 동물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자문그룹을 확대 개편하여 동물복지단체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애완견을 사육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농수산보존서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조건을 위반할 시 벌금부과 혹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동물 관리

농수산보존서는 동물질병예방, 동물거래 규제, 동물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동물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애완동물 상점은 농수산보존서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여 정기적으로 면허 조건의 위반 여부를 점검받는다. 또한 애완동물 상점은 승인된 곳으로부터 애완동물을 구매해야 한다. 농수산보존서는 동물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연간 약 60회의 간담회, 23회의 전시회 등을 통해 애완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광견병 예방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6. 농업과 어업

(1) 1차 산업

홍콩의 농업과 수산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정부보조금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약 1만 6천명이며 부가가치는 연간 33억 달러 수준이다. 홍콩의 전체 소비에서 채소는 약 2%, 화훼는 27%, 돼지는 7%, 가금류는 60%, 신선어류는 3%, 수산물은 28%를 차지하고 있다.

(2) 농업

홍콩의 농업은 경작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품질의 신선 작물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계지역의 약 1% 내외의 경작지

를 활용하여 채소와 화훼를 생산하고 있으며 두 작물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연간 2억5천만 달러에 이른다. 돼지와 가금류 사육을 통해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도 연간 2억8천만 달러와 2억5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농수산보존서는 농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높은 야채를 재배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경쟁력으로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다. 농수산보존서는 유기농채소기관 및 채소마케팅기관과 협력하여 유기농 채소 생산과 시장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동 부서는 224개 지역농장에 유기농업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집약적 작물 재배를 위하여 온실 기술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농수산보존서와 채소마케팅기관은 높은 품질과 안전한 야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인증농장제도를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2,759 헥타르 297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최근 레저 농장이 휴양을 위한 인기 있는 장소가 되고 있으며 농수산보존서에서는 홍콩 레저 농장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웹 사이트 (http://fedvmcs.org/farm_index.php)를 운영하고 있다.

(3) 수산업

신선 어류는 홍콩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생산품 중 하나이다. 연간 자연산 및 양식 어획량은 17만톤, 25억 달러에 이른다.

홍콩의 어선은 3,980 대이며 어부는 홍콩인 8,800명과 본토인 4,800명이 종사하고 있고 큰 선박은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작은 선박은 인근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농수산보존서로부터 면허를 받은 987명의 양식업자들이 26개 지정된 어류 양식장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양식을 통해 연간 1천톤, 9천4백만 달러의 어류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신계 북서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양식장에서 민물고기가 양식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2천톤으로 민물고기 전체 소비량에 약 3%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농수산보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의 발전과 어장 보호를 위해 파괴적인 어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손상된 해저를 복원하고 어업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저인망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농수산보존서는 홍콩어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어업종사자에게 금융거래편의 제공,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업장구 변경, 연료소비 감소, 양식장 영업 개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료 교육 과정이 어부들에게 제공되며 약 5백만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 기금을 통해 어민들이 지속가능하고 고부가가치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수산보존서는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양식어민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류 질병의 예방과 진단,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농수산보존서는 인증양식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12개의 양식장이 자발적으로 동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다. 양식장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합한 위생기준과 어류 품질관리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주로 약물잔류치와 중금속함유치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된다. 인증양식장에서 생산된 어류는 시장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태그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다.

IV. 미래의 성장동력

: 주요 프로젝트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와 홍콩

1.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와 홍콩의 역할

(1)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의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과 세계가 더 깊고 넓게 연결(connectivity) 되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일대일로는 전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60여개국을 포함하면서 향후 새로운 시장과 부를 창출하는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무역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이미 주요 인프라 스트럭처 분야에서 투자가 착수되었으며, 교통 및 운송, 금융서비스 등 여타 분야에서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는 현재진행형으로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에 인프라 스트럭처 투

자 경험이 축적된 중국기업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하에서 그 동안의 중국내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기업들은 해외시장으로부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인재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구조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2)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

2 Track 접근방식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중국기업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가고 있는 바, Track 1은 중국 고속 성장의 주력이었던 인프라 투자경험

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 외연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일대일로 관련국 신흥국들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한편, Track 2는 기술과 브랜드 파워 확보를 위한 선진국 기업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Track 1과 Track 2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

가. Track 1 : 중국내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 모델과 경험을 해외 적용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는 근본적으로 중국 내의 사업 기회와 이익 창출 기회가 감소하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중국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해외투자와 해외진출에 총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과 건설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충분히 중국 내에서 경험과 기술, 전문성이 축적된 분야인 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그 동안 중국내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 모델과 경험을 해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충분한 사업수행능력과 철강, 시멘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에서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 경험을 대외적으로 수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즉,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 내에서 축적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경험을 활용하여 중국에 과잉생산설비(overcapacity)를 해소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국가간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철도, 고속철 등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및 건설에 대한 중국의 풍부한 경험은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신흥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로 대표되는 중국의

자본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수요가 절실한 지역에 투입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추정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인프라스트럭처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미화 기준으로 8조 달러에 이른다. 일대일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는 그 성격상 대부분 초기에 대규모 투자자본^{start-up capital}이 소요되는 데다, 투자자금 회수에도 장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홍콩기업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실패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중국 정부의 보증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간의 조세협정 및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안전장치인 만큼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정교한 전략과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기술확보 및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전략에서는 지배지분보다는 Joint Venture 형태가 바람직하지만, 일대일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는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나. Track 2 : 선진기술과 브랜드 파워의 확보

현재, 중국 경제는 기존의 양적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기술^{technology}, 브랜드 확보 및 판매 채널을 구축하는 등의 질적 성장모델로 전환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성장모델을 추구하여 왔는데, 그 결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은 결국 원자재 확보를 우선하여 진행하여 왔지만, 이제는 해외시장 개척과 판매 채널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시점이다. 중국의 기술력 제고와 브랜드파워 구축도 매우 절실한 상황이

다. 이와 같은 기술력과 브랜드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다.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중국기업은 해외진출시 기업가치를 공유하고 위험성향이 서로 잘 맞는 해외 파트너를 만나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R&D, 기술개발 및 마케팅 역량을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진정한 해외진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의 제조업 허브로서 입지를 확고한 중국은 이제 향후 10년간 중국의 해외투자^{ODI} 규모는 미화 1.2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바, 해외투자는 중국기업이 보다 진화하고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는 훌륭한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4년부터 중국의 해외투자^{ODI} 규모가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투자^{FDI} 규모를 상회하는 가운데,

특히, 해외투자 모멘텀은 2015년 상반기 들어 강화되면서 2014년에 비해 50% 수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대상도 호주와 아시아를 필두로 유럽연합, 아세안 및 미국 등 다각화하면서 중국기업이 빠르게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국내생산과 수출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성장모델에서 탈피하여 중국의 제품, 설비가 업그레이드되고 제조업과 금융서비스업이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 중국 경제 업그레이드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중국
국내
성장



One Belt One Road Projects

해외
진출

- Track 1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 확대 및 Over-capacity 해결
- Track 2 중국의 Brand Building 및 신기술 확보

(3)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추진목표 및 중점정책방향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질서 있고 자유로운 경제적 자원의 이동과 역내의 다양한 시장간의 깊은 연계와 통합-integration을 통해, 동 지역내의 원활한 경제정책조정과 긴밀한 지역내 국가간 협력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방적이고, 균형잡힌 지역협력 체계-architecture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지향하는 기본 원칙은 평화적인 공존, 국가간협력 증진을 위한 개방성, 조화와 포용-inclusiveness,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market operation, 상호간의 이익 증진이다.

가. 정책협력과 조정-policy coordination

역내 국가 정부간 협력 및 정책조정·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간 발전전략 공유 및 정책조율을 강화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추진 등 지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계획을 마

련한다.

나. 인프라 스트럭처 연계 facility connectivity

고속도로, 철도, 해상운송, 해운항만 인프라, 정보통신 및 에너지 등 분야의 지역내 국가간 상호연계와 협력 촉진이 주력 분야이다.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파이낸싱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을 설립하였다.

다. 막힘없고 자유로운 교역 unimpeded trade

역내 국가간의 투자와 교역 촉진을 위해 역내 지역의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와 교역상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나가야 한다. 관련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역내국가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산업체인 industrial chain상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과제이다.

라. 금융협력과 금융시장 연계강화 financial integration

역내 국가간의 금융협력을 강화해나가면서 아시아 지역내의 통화안정시스템, 투자, 파이낸싱 및 신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양자간 통화스왑, 위안화를 통한 무역결제 확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중국 밖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및 여타 통화 표시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AIIB와 브릭스 Brazil, Russia, India, China; BRICS 은행 설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실크로드 펀드를 조성하고, 실크로드

펀드의 역할과 각국의 주요 국부펀드간의 역할 분담방안도 확정하였다. 상업적 베이스 차원에서 사모펀드 등의 지분투자를 통한 주요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고 신디케이션론, 신용공여 등의 방식을 통한 중국-아세안 은행연합 China-ASEAN Interbank Association, 상하이 협력연합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국가간 금융규제 협력을 통한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보유한 금융기관-eligible seed financial institutions들이 역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등의 활동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참여국가간의 인적 유대와 상호 공감대 People to people bond

참여국가간의 인적 유대와 상호 공감대는 각국내의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서, 양자간·다자간 협력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각국은 각자 고유한 역사와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평화적 협력, 개방 및 포용을 통해 상호 이해와 이익을 촉진한다. 이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정신적 토대로서 이를 기반으로 보다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각자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다.

(4)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실질적 목표와 동기

첫 번째는 정치적 동기로, ①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하고 ‘중국꿈(中國夢) Chinese Dream’에 대한 열망이다. ②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Pivot to Asia Initiatives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같은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 containment policy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다. ③ 중국 중심의 교역·투자에 대한 아시아 지역경제블록 regional economic trading and

investment bloc을 창설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동기로, ① 기존의 수출과 투자주도형 성장모델이 소비중심형 성장모델로 점진적으로 이행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투자에 소비를 더하는 신규국내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중국의 이니셔티브는 아시아 지역 등의 인프라 스트러처 건설 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일거에 투자형 성장모델에서 소비형 성장모델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투자수요가 필요하다.

● 일대일로 전략의 수혜자 : 생산과잉(overcapacity) 부문과 중국서부

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중국의 overcapacity를 수출

-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의 철강·시멘트 산업은 과잉설비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국은 심각한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갭(Gap)이 발생한 것이다.
- 중국은 이러한 갭을 메꿀 수 있는 충분한 자본과 전문성, 과잉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바, 아시아 인프라 진출 및 투자를 통해 중국내의 과잉설비 해소 및 아시아 경제발전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

중국 서부지역 개발 및 산업 업그레이드

- 중국의 서부지역이 큰 수혜대상이 될 것이며 수송 및 선박산업을 비롯한 농업·섬유·통신·금융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

②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되어 나갈수록 위안화 결제수요 증가 및 위안화 통용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된다. 예를 들어, 해외 인프라 스트러처 프로젝트에 대한 위안화 파이낸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가 촉진되고 아시아지역 채권시장을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③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 중국정부는 AIIB 설립을 추진,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수립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민간 인프라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이 주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5) 중국의 생산과잉 등 국내정책이슈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가. 미국, 유럽 등 전통적 수출시장 침체와 고질적인 생산과잉 해소

수출·투자주도형 성장모델을 지속하여 왔던 중국경제에서 생산과잉은 경제 운영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중국의 전통적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및 일본에만 의존하여서는 더 이상 수출수요가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은 대외여건은 결국 수출주도의 대외개방형 성장전략을 구사하였던 중국의 향후 성장과 발전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주요국 경제의 성장정체를 감안할 때 전통적 주력수출시장만 의존해서는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내 국내시장 확장을 통해 생산과잉을 해결하기도 어려운 만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예컨대 10,000 Km 규모의 철도를 건설할 경우 대규모의 철강 수요가 유발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철도교통 시설, 집적 회로 *integrated circuits*, 광전 디스플레이 *photoelectric display* 등 관련 산업분야의 수출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 고속철의 경우 km당 3,000톤의 철강수요가, 일반철도의 경우 km당 300톤의 철강수요가 유발된다. 중국의 수출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표준 *standard*과 기술까지도 해외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커지는 효과도 있다.

나. 중국경제의 산업구조조정 및 고도화 Upgrade and Restructuring에 기여

생산과잉 이외에도 중국은 현재 산업업그레이드와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서비스 산업과 같은 3차 산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2014년말 기준 GDP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 USD 3.8조불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결과로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외환보유고는 결국 미 국채와 같이 유동성은 매우 높지만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위안화 강세로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중국과 신흥국 간의 교역은 중국이 신흥국에 저렴한 소비재를 수출하고 신흥국은 천연자원을 중국에 수출하는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이와 같은 교역방식은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관련 국간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산업과 교역에서의 협력기회를 창출하게 되었다.

다. 관련국 협력방향 : 역내 산업보완성 industrial complementarity 제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하에서의 건설, 교통 인프라 스트럭처는 천연 자원과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역과 투자기회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최우선 순위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내 산업 연계성 강화 및 재배치 relocation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호적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당사국간의 협력을 통해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건설에 대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

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투르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들 국가 상호간, 중국 및 인근국가와의 교통망이 단절된 국가로서, 인적자원, 물류, 자본, 정보 유통 등의 활발한 교류가 막혀 있는 바, 수출비용도 높아 경제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풍부한 에너지, 농산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취약한 상태이다.

중국 및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동 및 유럽지역을 잇는 고속철이 연결될 경우, 중앙아시아 5개국은 에너지, 농산물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길이 열리게 되고, 중앙아시아 5개국의 기간산업 강화 및 교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통해 관광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

지역내 산업 보완성(industrial complementarity) 측면에서 교통망 개선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국은 중국과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구조로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제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은 3천만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과 면화 방적(spinning) 생산기지로서 협력 기반이 크다.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상 제품디자인, 마케팅, 물류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일대일로로는 새로운 교역네트워크를 창설하면서 보다 나은 자원배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이다. 다만, 동 이니셔티브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정치적·경제적 위험요인은 결국, 중국이 국제적 기준과 시장규범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를 촉진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판단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은 쉽고 가까

운 이슈부터 시작하면서 복잡하고 멀리 있는 이슈로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초기단계에서는 철도, 고속도로, 항만, 전력망^{power grid}, 오일 배관^{oil piping}, 산업단지, 통신망 등 향후 협력기회를 강화해 나가는 기반을 먼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평 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생산과잉,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산업구조조정 등 국내 이슈를 해외시장 창출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역내 산업·업종간의 상호보완성을 제고함으로써 일대일로 협력국에 저부가가치 부문을 맡기고, 중국은 고부가가치 부문인 설계, 디자인, 마케팅 등에 주력함으로써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6)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가. 위안화 국제화의 의의

위안화 국제화는 위안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광범하게 인정되는 가운데, 위안화가 거래수단, 가치저장수단으로 활용되는 한편, 무역결제, 투자 및 준비^{reserve} 통화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국제화는 과도한 USD 의존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중국의 경제력에 부합하는 국제금융질서에서의 중국의 위상 제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 참여확대^{engagement}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경우 미 달러화 등 기축통화 보유국이 갖는 화폐주조차익^{seigniorage}을 갖

게 된다.

나. 현 위안화 국제화의 수준

위안화 국제화 수준은 크게 다음 3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역외 위안화 거래 및 유통규모가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위안화를 통한 무역결제에 충분한 수준에 이를 경우 국제 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다양한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즉 투자상품이 주요 금융기관, 중앙은행 등의 투자 대상으로 정착되었는지 여부이다. 셋째,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무역측면에서 지난 2009년 이후 위안화는 국제적 무역결제 통화로서 빠르게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바,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비중은 2010년 2%에서 2014년 20%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제금융 및 투자 측면에서 위안화는 아직 USD, 유로화에 비견될 수준은 아니지만, 역외 위안화 예금, 대출, 채권,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펀드 등에서 그 깊이와 넓이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자본계정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적격위안화 기관투자자^{RQFII} 제도 및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제도를 통해 홍콩시장과 본토시장 간의 연계가 깊어지고 금융거래에서 위안화 활용이 제고되고 있다.

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위안화 국제화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관련 국가들과 공동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위안화가 결제통화로 지정될 경우 위안화가 해외로

수출되고 해외자산을 취득하는 데 활용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2014년에 중국은 USD기준 1,400억불 규모의 해외투자를 진행하였는 바, 아직 본격적으로 해외투자가 글로벌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해외투자의 외연을 확대하고 투자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가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라. 평 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관련 국가들과의 위안화를 통한 거래 확대를 통해 위안화 유통 규모는 물론, 위안화가 통용되는 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스트럭처 프로젝트 추진시, 관련 금융기관 등이 소요재원을, 예를 들어 홍콩 딥섬본드 등 위안화 채권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당해 위안화 자금이 중국 기업 등에 유입되고,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시 위안화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경우 지역통화로서 위안화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7)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위험요인 및 도전과제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매우 대담하고 비전을 담은 계획이지만 정치적·경제적 위험요인도 상존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기반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 호혜적·우호적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 일대일로 전략 추진상의 위험요인

일대일로 참여국가중 일부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에 시달리는 펀더멘털(Fundamentals) 측면에서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에 대한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는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해외사업에 대한 경험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대중국 이미지에 대한 흠집 또는 수혜국의 정치불안 유발 위험이 있다. 수혜국 관점에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 수용 여부에 대한 정치적 논란(political complication)도 일고 있고, 수혜국내의 근로자의 권리, 노동규율 및 문화측면에서의 갈등도 있다. 일대일로 참여국가가 많아지고,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등 외연이 커질수록 갈등과 분쟁 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나. 정치적 위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는 다양한 관련 국가가 존재하는 바, 이들 국가의 정치시스템은 중국과 매우 상이하고 지역내 정치적 상황도 매우 유동적이다. 근본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경제발전의 대전제임을 감안할 때 프로젝트 추진상의 정치적 위험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관련국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공통분모를 모색하면서, 상이한 관점과 사고를 인정하는 가운데,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의 이익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여전히 민감한 문제(acute)로서,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이 중국의 평화적인 영향력 확대(peaceful rise)에 대해 불필요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의 60%, 30%를 각각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바, 세계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처로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 석유 수입의 50%가 중동지역에, 25%가 아프리카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 에너지 수입선은 매우 제한^{unitary}되어 있으며 수송경로가 불안정^{insecure}하다. 말라카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지역내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기반을 확대해나가고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면서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한다. 예컨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천연가스 공급원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공급은 중국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은 에너지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위험을 감축하고 에너지 안전 능력을 제고한다. 2015년 1월부터 중국과 미얀마간 원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미얀마측은 771km, 중국측은 1,631km이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중동 원유수송을 위한 말라카해협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며,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해 나갈 것이다.

다. 경제적 위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관련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데다 서로간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다. 상이한 경제발전단계로 인하여 필요한 인프라 스트럭처도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신흥국의 특성상 급격한 환율변동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대다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관련 국가는 자본이 부족한 바, 이들 국가의 개발사업에 대해 중국은 금융지

원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해 나가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추정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스트럭처 사업에 매년 USD 7,300억 불이 소요된다. 일부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프라 스트럭처 사업에만도 USD 2조불이 소요된다.

2014년 11월 중국당국은 실크로드펀드를 조성하면서 USD 400억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동 실크로드 펀드에 중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도 참여가능한 개방된 구조이다. 실크로드펀드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운영하는 바, 인민은행은 초기 출자금 100억불을 투입하고, 이중 65억불은 외환보유고를 통해, 35억불은 중국투자공사,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개발은행을 통해 조성된다. 2015년 2월부터 운영이 시작된 실크로드펀드 운영구조는 사모펀드와 유사한 바, 장기적 투자수익을 목표로 전문성, 국제적 관점 및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된다. 초기단계의 실크로드펀드 투자는 주로 교통, 수송, 전력, 통신 등 인프라 스트럭처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며 점차적으로 철도, 고속도로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4년 7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프리카 등 브릭스 국가는 새로운 개발은행 창립을 선언했다. 초기 자본금 1,000억불을 각국은 균등하게 투입할 것이며 중국은 이미 100억불을 투입하였다.

라. 법적 위험

해외투자시 투자자는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법적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정부와 중국 기업은 이들 국가들의 법률과

제도 및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바, 투자자 이익을 지키기가 곤란하다. 예컨대 멕시코 국토부는 멕시코시티 고속라인 중국철도회사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을 프로젝트 계약자로 선정하였다가, 이후 동 중국철도회사의 자격미달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중국 기업은 해외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현지법규, 절차 및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치밀한 위험평가가 필요하다.

(8)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및 홍콩의 역할

가. 슈퍼커넥터로서의 홍콩의 지위

홍콩은 중국경제의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중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슈퍼커넥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콩은 무역 및 금융서비스 등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위한 전략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홍콩은 중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superconnector로서 홍콩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은 전통적으로 서구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중국 본토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디딤돌(springboard)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콩 무역발전국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투자중 60%가 홍콩을 통해 진행되는 등 홍콩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의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다수의 본토기업이 일대일로 인프라 스트럭처 프로젝트에 뛰어 들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홍콩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지난 30년간 외국자본이 중국

으로 진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 중국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도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아시아의 전략적 거점로서의 홍콩의 경쟁우위

홍콩내에는 다국적 기업 및 글로벌금융회사, 로펌과 같은 국제적인 플레이어가 밀집하여 있고,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headquarter를 홍콩에 두고 있다. 국제적인 플레이어들은 홍콩의 자유로운 정보유통, 인적자원과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한 활발한 거래플랫폼 및 파이낸싱 기회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들을 통해 홍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핵심기능key function과 역량을 한 데 묶어 기업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즉 홍콩은 홍콩 진출기업들이 지역본부를 두고 글로벌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계약이행global transaction을 총괄하는 전략적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홍콩은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과 파이낸싱 역량을 보유하면서 높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필요한 인적자원과 분쟁 해결 절차 및 투명한 규제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적 자원과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은 매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홍콩만이 가진 장점과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홍콩은 자금조달fundraising과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 value chain상

의 각종 활동을 조직화하는 데, 홍콩의 강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관련 국가와 지역의 자금조달능력과 전문성은 홍콩에 비해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홍콩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같은 공백을 메꾸고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게 해 준다는 홍콩만이 가진 경쟁우위를 의미한다. 이는 홍콩에게는 기회이며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홍콩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unleash the tremendous potential}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홍콩은 채권발행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상의 중국기업이 필요한 파이낸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환율변동 위험 등 각종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많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두고 전체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 홍콩의 과제와 준비할 사항

홍콩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사업에 대해 독보적인 인적자원과 서비스 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본토 기업은 규모는 크지만 여전히 인적자원과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홍콩은 이러한 점을 보완할 경우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와 기업이 국제화되고 중국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일대일로라는 큰 그림^{architect}에서 받쳐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에 이르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의 대중국 직

접투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이와 같은 추세를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을 위해 광둥성 등 중국지역과의 협력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난 1980년대부터 홍콩의 제조업은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왔지만 최근 각종 비용요인 상승으로 인해 제조기지를 재배치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국가 및 지역에서 보다 저렴한 노동력과 인프라 스트럭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홍콩은 주강삼각주 지역으로부터 이들 지역으로 제조기지를 재배치하는 기회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

현재 일대일로는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사업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바, 홍콩에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아직 논의만 진행될 뿐이지 실제 투자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3차 5개년 계획에서 홍콩의 역할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할 것이지만,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기업들이 새로운 정책을 활용-capitalise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비전 수준에 그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세부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서 보다 구체화된 계획이 제시될 경우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충분히 준비하고 기회가 도래하였을 때 기회를 잡아나아가야 한다.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사업은 멀리 보고 접근하여야 하고 해외투자인 만큼 관련된 정치적 위험, 자원, 운송 및 건설상 수반되는 위험요인

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홍콩이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홍콩의 슈퍼커넥터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은 서구 국가 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등 신흥국과 유사한 비즈니스 환경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익숙하지 않은 홍콩은 광둥과 같은 타 지역과 협력해 슈퍼커넥터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홍콩이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솔직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홍콩 당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홍콩의 기업들이 타당한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프로모션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홍콩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를 명확히 포착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홍콩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니즈에 어떻게 부응^{fit}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모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 시장여건이 변화^{game changing}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홍콩이 성공할 수 있는 경로가 될 것이다. 홍콩은 이들 지역의 문화와 언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

라. 홍콩이 포착할 수 있는 기회와 파트너십 구축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반드시 초대형 인프라 스트럭처 프로젝트에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리테일 수요, 엔터테인먼트, 생필품 공급 등 각종 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홍콩의 중소형 기업에게도 기회요

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포털과 플랫폼을 창출되면서 디자인 및 테크놀로지 수요도 동반하여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은 국제무역·금융 허브이자 중국과 전 세계를 잇는 슈퍼넥터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및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반면, 중국기업의 국제화(going global)는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과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ition)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해가면서 중국의 해외투자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일대일로 관련 국가와 지역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기 전까지 일대일로 관련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끊임없는 준비일대일로에 놓인 개발도상국의 관료 제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으로 해외시장 진출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현지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홍콩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관련 투자기회를 포착(identify)하고 이를 전세계 투자 파트너들과 통합시키는 작업이 바로 홍콩이 할 일이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해외기술과 브랜드 확보 과정에서 해외 파트너들과의 신뢰 구축이 긴요한데, 중국기업에 이전된 기술과 브랜드가 중국 내수시장에 투입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이 해외 현지기업의 몰락과 실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라는 점이 강조되

어야 한다.

해외진출에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한데, 최근 멕시코 프로젝트가 실패한 바와 같이 현지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사, 법규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는 바, 특히 선진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각종 법규준수의무 등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중국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마. 일대일로 파이낸싱 센터로서의 홍콩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거대한 장기비전 프로젝트로서 홍콩은 동 이니셔티브의 허브로서 슈퍼 커넥터(Super-connector), 최고지식경영자(Chief Knowledge Officer)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은 매우 견고하고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바, 채권발행, IPO, 증자, 은행대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대일로 관련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raising capital)할 수 있다. 특히, 홍콩은 인프라 스트럭처 파이낸싱과 민관합동 파트너십(PPP)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저터널, 아시아월드엑스포(Asia World Expo) 등이 있다. 인프라 스트럭처 파이낸싱, 다양한 법적 이슈해결, 분쟁조정, 정부의 역할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홍콩의 성공적인 PPP 추진 경험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PPP 참여기업에 대한 자본조달 지원, 둘째, 다양한 PPP 프로젝트에 대해 적합한 금융서비스 제공, 셋째, PPP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성공적인 경영 기법 제공 등이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실크로드 펀드, New Development Bank 만으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국제적 은행과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참여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요건이 된다. 즉,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과 현실적으로 충당 가능한 재원간의 Funding Gap 해소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성공의 핵심적 조건으로 홍콩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보유함으로써 필요한 금융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재원과 자금 조달 Fundraising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과정에서 홍콩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서 홍콩의 은행들은 은행여신, 신디케이션 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홍콩의 자본시장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채권 발행, 주식발행과 유동을 통한 파이낸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즉 홍콩의 금융시장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제적 금융 거래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준비된 시장이다. 중국의 본토기업은 홍콩이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다국적 해외기업과 해외투자자들은 홍콩의 Rule of Law와 투명한 규제관행으로 인해 홍콩을 신뢰하고 홍콩으로 찾아 오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 역외에서 최대의 위안화 시장인 홍콩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상하이 주식시장 connect와 홍콩-센젠간 주식시장 connect를 통해 역외 위안화 시장으로서의 홍콩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바. 홍콩 소재 은행들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지원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 본토 은행들의 지원이 없을 경우,

현지 은행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중국기업의 사업 모델과 경영전략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일대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국가들에 더 많은 중국 본토 은행들이 지점 설립 등을 통해 진출할 것이다. 중국기업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행들이 일대일로 경로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며, 중국기업들은 파이낸싱 단계에서 명확한 사업모델, 현금흐름, 기술과 고객기반에 대해 은행에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투자기간이 길고 중장기적 전망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파이낸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스트럭처 파이낸싱을 지원할 공적 기구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이다. AIIB의 주요 미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스트럭처 지원에 주력할 것이다.

사. 일대일로와 역외 위안화 센터로서의 홍콩

위안화^{RMB}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중국당국은 위안화 예금, 대출, 자산운용 및 지급결제기능 수행이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역외 RMB 센터가 필요한 바, 홍콩은 가장 핵심적인 역외 RMB 센터이다. 역외 위안화 예금의 60%, 역외 위안화 거래물량 70%가 홍콩에서 진행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홍콩의 역외 RMB 센터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반대로 홍콩의 역외 RMB 센터를 통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보다 탄력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아. 일대일로와 자산관리서비스, 보험서비스 및 Treasury 센터로서의 홍콩

아시아 지역내 역내교역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부와 자산이 축적되어 가면서 자산관리서비스 및 위험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홍콩은 아시아 역내 자산관리서비스 허브로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위치이다. 또한 홍콩은 다수의 국제적 보험회사가 진출해 있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사업과 관련된 위험관리 및 보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과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련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중국본토 기업들의 해외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자유로운 자본유출입 및 자금흐름, 국제적 금융네트워크, 홍콩의 고도화된 금융인프라, 탄탄한 전문인력, 건실한 법률 시스템, 낮고 간결한 세제 등을 보유한 홍콩은 중국본토기업의 효율적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홍콩은 이들 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국고Treasury 센터를 두기에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다.

주강삼각주 경제권 발전전략과 홍콩

1. Pearl River Delta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 성장동력 확보

주강삼각주 지역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래 줄곧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적 공장밀집형 factory floor 제조기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과거 35년 이상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둥관(東莞) 등 이 지역 도시들은 섬유, 의류, 완구, 전기 등 제품을 생산하여 전세계 상품시장으로 수출하였다.

1978년 이후 홍콩은 광동지역에 소재한 중국기업에서 제조된 상품이 전세계로 팔려나가는 창구shop window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주강삼각주 소재 중국기업들에게 은행의 신용공여, 홍콩증시상장IPO, 사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홍콩 소재 대학을 통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우수인력이 주강삼각주 지역에 공급되고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과 경영기법^{entrepreneurial know-how}이 전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홍콩의 기여^{input}은 주강삼각주 지역의 기업들이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뻗어 나가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주강삼각주 지역은 최근 수 년간 첨단제조업, 하이테크산업,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주강삼각주 지역의 산업구조가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홍콩은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홍콩의 입장에서 주강삼각주 지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 향후 수년간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주강삼각주 지역의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은 홍콩의 핵심지식허브^{knowledge hub}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강삼각주 지역과 홍콩은 서로간의 win-win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홍콩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전체 GDP의 0.7%에 그치는 등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고,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광동지역과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홍콩은 고령화/성장동력 상실을 해소하고 벤처 캐피탈, 기업가정신의 부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주강삼각주 경제권의 정의

주강삼각주 Pearl River Delta: PRD 경제권은 중국 화남(華南)지역 주강수계(珠江水系)에 인접한 광둥성 9개 도시 및 홍콩·마카오를 지칭한다. 1994년 광둥성 정부에 의해 동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단일 경제권역으로 최초 언급되었다. 중국 남부에 설치된 경제특구 5곳 중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두 곳이 주강삼각주 권역에 포함된다.

● 주강삼각주 권역도



자료 : 홍콩정부

주강삼각주 경제권은 시기 및 포함 지역의 범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소(小) 주강삼각주로 1994년 10월 광둥성 정부가 이 지역 7개 도시에 경제구역을 설치하면서 형성되었으며, 이후 9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 소(小)주강삼각주 범위 내 도시

설정 범위		도시명
최초	7개 도시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포산(佛山), 주하이(珠海), 둥관(東莞), 중산(中山), 후이저우(惠州)
확대 후	2개 도시 추가	장먼(江門), 자오칭(肇慶)

둘째, 대(大) 주강삼각주는 기존 광둥성 9개 도시에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9+2’ 개념이다. 광둥성을 제조기지 성격의 배후지로 두고, 홍콩·마카오의 글로벌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마카오의 중국 반환이후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끝으로, 범(泛) 주강삼각주 Greater Pearl River Delta: Greater PRD는 광둥성을 포함한 인접한 9개 성(省)권역과 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이다. 내륙지역 성(省)이 보유한 천연자원, 노동력 등 요소를 기존 광둥성의 제조 능력과 홍콩·마카오의 소프트 파워와 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 7월 당시 광둥성 당서기 장더장(張德江, 現 전인대 상무위원장(서열3위))이 처음 제안하였다.

● 범(泛)주강삼각주 범위 내 성(省)

9개 성(省)	광둥(廣東), 푸젠(福建), 장시(江西), 후난(湖南), 광시(廣西), 하이난(海南), 꾸이저우(貴州), 윈난(雲南), 쓰촨(四川)
---------	---

3. 발전 배경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보유한 홍콩·마카오 및 해외 화교 기업들로부터 자본·기술·경영기법 등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홍콩기업들의 ‘전점후창(前店後廠)’ 방식의 진출은 주강삼각주 지역이 중국의 대표적 제조업 기지이자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전자, 의류, 완구 등 제품은 전 세계 상품시장으로 수출되어 ‘Made in China’의 본산지로 성장하였다.

중국 정부는 1980년부터 주강삼각주 지역을 포함한 남부 연해지역에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샤먼(夏門), 산터우(汕頭), 하이난(海南)을 아우르는 화남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특혜 및 우대조치를 제공하였다. 특히 세제(稅制)와 금융제도 분야에서 파격적 수준의 우대조치를 부여하였다. 주요 금융·세제지원 내용은 다음 <표 II-10>과 같다.

● 경제특구 설립 초기 주요 정책적 지원

구분	주요내용
세제	당시 법인세는 55%(후에 33%로 조정)였으나,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15% 적용
	‘양면삼감반(兩免三減半: 첫 2년은 법인세 면제, 이후 3년은 50% 감면)’ 정책 실시
금융	대출이 어렵던 당시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 지원
	경제특구 내 탄력적 금리정책 운영

한편, 이 시기 홍콩은 주로 제품판매의 장소로, 주강삼각주 지역은 생산기지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성장하였다. 생산방식은 대부분

‘중간재 수입→가공·조립→제3국 수출’ 과정을 거치는 가공무역방식 중심이었다. 1990년까지 주강삼각주 지역에 투자된 자본은 홍콩 및 화교계 자본이 9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홍콩자본의 비중이 80%로 매우 높았다. 또한, 2000년 이전까지는 중국 내륙지역의 풍부한 농촌 잉여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주강삼각주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장강삼각주(長三角) 경제권, 환발해만(環渤海灣) 경제권과 함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견인한 3대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주강삼각주 지역(9개 도시)은 광둥성 전체 면적의 28.9%에 불과하지만, GRDP 규모는 성(省) 전체의 82.7%(중국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경제규모로 보면 인도네시아 연간 GDP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 2014년 주강삼각주 및 주변지역의 G(R)DP 비교

(단위: USD)

구분	중국	한국	주강삼각주	인도네시아	홍콩
G(R)DP	10조3,804억	1조4,169억	9,409억	8,886억	2,896억

*출처: IMF database, 광둥성통계국

또한,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외무역과 외자유치 규모는 각각 광둥성 전체의 95.0%(중국 전체의 25.1%), 90.6%(중국 전체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강삼각주 경제권은 광둥성 경제의 핵심요소이자, 중국 경제 전체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는 개혁개방 초기 중국 정부에 의한 다양한 우대조치 이외에도 홍콩·마카오와 인접한 지리적 입지조건에 영향을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 지역이 다수의 성공한 화교들의 고향이라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4. 새로운 환경 도래

2000년대 진입 이후 주강삼각주 지역은 제조업 경기 하락에 따른 성장 둔화세 출현 및 장강삼각주(長三角) 지역 등 중국내 타 경제권역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 이전까지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외교역 및 외자유치 규모는 장강삼각주 지역에 앞서 있었지만, 2010년 기준으로는 장강삼각주 지역에 2.5배 뒤쳐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 중국 내 경영환경이 변화하며 다수의 외국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상하이(上海)를 중국지역 경영본부로 삼는 전략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된다.

또한, 주강삼각주 지역 내 도시들간 중복투자, 산업구조의 유사화, 자원낭비 현상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며, 주강삼각주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 주강삼각주 지역 제조업은 생산비용(임금 등) 상승,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 등 요인으로 인해 다시 한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정부 주도로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노동집약적 생산기지 성격의 주강삼각주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출시장인 EU,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주문량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하방압력 및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구인난까지 겹치고 있다. 이로 인해 동관(東莞), 후이저우(惠州) 등 광둥성 내 대표적 제조기업 밀집지역은 최근 공장의 동남아 이전 또는 파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5. 발전 전략

(1) 발전 목표

주강삼각주 경제권은 광둥성 내 주강(珠江)에 인접한 주요 도시와 홍콩·마카오 간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의 정체된 성장을 타개하고, 자원공유, 시장창출, 경제활성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구성 지역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강삼각주 경제권 전체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떠오르는 경제구역이자 제조업 중심지로 광둥성의 제조업, 홍콩의 금융, 마카오의 관광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남중국 최대의 경제권인 주강 삼각주 지역을 전자 및 가공산업위주에서 첨단과 바이오산업같은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각 지역(도시)별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광둥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중심지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홍콩은 국제금융과 물류,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형 서비스산업 중심지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마카오는 기존 카지노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관광 및 MICE 산업의 중심지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2) 전략적 조치

가. 지역 특성에 따른 상호 보완체계 확립

홍콩과 마카오는 금융·물류 분야에서 세계적인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회계·법률·컨설팅 등 서비스업이 발달하였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반면, 광둥성은 개혁개방 이후 방직·가전제품 등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서비스 산업에 대한 노하우와 인력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간 기능의 보완을 통해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나. 시장중심의 산업구조 재배치

광둥성은 그동안 저렴한 토지비용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지가(地價)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또한, 여러 도시가 특정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하거나 설비투자의 중복이 있었다. 이는 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산업구조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다. 단일시장체제 형성을 통한 경제적 통합 추진

광둥성은 상주인구가 1억 명이 넘고 외래 유입 유동인구 비율도 높아 독립적인 소비시장으로 육성 및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홍콩과 마카오는 오랜시간 국제적인 무역·관광 도시의 지위를 유지하여 우수한 인재풀과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광둥성이 보유한 내수시장과 홍콩·마카오가 보유한 경쟁우위적 요소를 결합하여 단일시장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 광둥성 자유무역지구(FTZ) 활용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2월 광둥성(廣東省)을 포함하여 텐진(天津), 푸젠(福建) 등 세 곳의 신규 자유무역지구 설립을 비준하였다. 이후 2015년 3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범위 확대 및 광둥·텐진·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총체방안이 심의 통과되었다.

국가급 전략으로 추진되는 광둥성 FTZ는 광저우 난샤(南沙), 선전 첸하이(前海), 주하이 형친(橫琴)의 세 곳의 개별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16.2km²에 이르고 있다. 광둥성-홍콩-마카오 세 지역은 FTZ 전략을 통해 금융협력체제 구축, 서비스무역 자유화, 제도 혁신을 통한 교역규범 통일의 효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경쟁 우위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둥성의 경쟁우위는 제조업 인프라, 풍부한 노동력, 자체 내수시장 보유라 할 수 있다. 홍콩은 선진 금융기법, 법률·회계 등 전문서비스 지원 등 서비스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다. 마카오는 관광·레저 산업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 주강삼각주 지역 도시 주요 산업

도 시	핵심 산업
광저우	자동차 및 부품, 운송설비,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의류·방직, 소프트웨어, 완구
선전	전자제품, 컴퓨터제품, 통신설비, 집적회로, 완구, 손목시계, 향만서비스, 물류, 금융
중산	등(燈) 관련 제품, 금속제품, 오토바이, 음향설비
후이저우	디지털전자제품, 광학디스크, 전화, 전지, 회로판, 정밀기계,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포산	공업도자기, 도자기예술품, 방직제품 및 아동의류
동관	전자제품, 컴퓨터부품 및 악세서리, 가구, 가죽제품, 완구, 손목시계, 주방제품
장먼	방직품, 의류, 전지, 종이제품

6. 지역간 협력 방식

(1) 시기별 협력 방식의 변화

가. 1997년 이후 : 고위급 협의체 활용

홍콩·마카오의 중국 반환 이후 광둥성은 두 지역과 각각의 협력연석회의(合作聯席會議) 기제를 마련, 광둥성 성장과 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이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고위급 협의체의 방식으로 광둥성-홍콩-마카오간 협력 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고위급 협의체는 산하에 20여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간 협업 현황 감독 및 인프라·관광·보건방역 등 우선 협력영역의 관련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2003년 이후 : 새로운 협력 기반으로 CEPA 활용

중국은 2003년 6월과 10월에 홍콩, 마카오와 각각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주강삼각주 지역은 이를 계기로 경제적 협력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CEPA 체결로 홍콩·마카오가 원산지인 인정된 상품은 중국 수입시 영(0)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두 지역의 서비스공급자가 중국 시장 진출시 필요한 조건을 완화한다.

같은 시기 개발이 시작된 형친(橫琴), 첸하이(前海), 난샤(南沙) 등은 주강삼각주 지역 협력의 새로운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주하이(珠海) 형친신구(橫琴新區) 개발 프로젝트는 주하이-마카오 경제협력의 핵심 사업으로 승격하였다. 2003년 12월 국무원 비준을 획득하고, 2006년 운영을 개시한 ‘주하이-마카오국경간산업단지(珠澳跨境工業園)’는 중국 최초의 국경간 산업단지의 위상을 획득하였다.

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 산업구조의 재배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동관(東莞)을 비롯한 광둥성 내 제조업의 과잉생산능력(over capacity)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품 및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주강삼각주지역 산업별 구성비 변화추이

구분	1980	2008	2013
1차산업(%)	25.8	2.4	2.0
2차산업(%)	45.3	49.9	45.3
3차산업(%)	28.9	47.7	52.7

광둥성 소재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 시 홍콩의 금융시장을 활용하고, 마카오의 레저산업 발전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또한, 홍콩 정부는 주삼각상무위원회(香港大珠三角商務委員會)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 지역간 협력 강화 조치

가. 인프라 구축 : 교통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홍콩-주하이-마카오를 연결하는 총연장 50km의 세계 최장 교량 강주아오 대교(港珠澳大橋)는 총 투입예산 790억 위안(한화 약14.2조원)으로 2009년 착공하였으며 2016년 완공 예정이다. 대교가 완공되면 기존 선박으로 1시간 소요 거리를 30분대로 단축할

수 있어 지역간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광저우-심천-홍콩을 연결하는 총연장 142km의 고속철도(廣深港高鐵) 건설도 진행중인데, 홍콩 구간은 26km으로 2010년 착공하였으며 2018년 3분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기존 광저우-홍콩간 열차 소요시간 1시간40분을 50분으로 크게 단축하여 중국 본토와 홍콩 간 연결성을 제고하게 된다.

광저우 바이윈(白雲)국제공항, 홍콩 첵랍콕(赤鱗角)국제공항 등은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대비하여 제3활주로 신설 등 수용능력시설을 확대하는 공정을 진행 중에 있다.

● 주강삼각주 지역 도시 주요 산업

연결성	인프라	건설/계획 중인 주요 프로젝트
주강삼각주 지역 내 교통 및 운송 네트워크	철도	- 난닝, 구이양, 시아먼, 마오밍 시를 잇는 고속철도 - 주강삼각주 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 광저우, 선정, 동관의 지하철
	고속도로	- 제12차 5개년계획내 1110km의 국가 도로와 3410km의 성 도로
범 주강삼각주 내 교통 및 운송 네트워크	철도	- 광저우 - 선전 - 홍콩 고속철도 - 홍콩 - 선전 서부 고속철도
	고속도로	- 홍콩 - 주하이 - 마카오다리 - 리앤탕/형웬와이(蓮塘/香園圍) 입경소 건설
국제 교통 및 운송 네트워크 연결	공항	-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제3·4·5활주로와 주변경제지대 - 홍콩 국제공항 제3활주로 - 선전 바오안공항 제3활주로
	컨테이너 터미널	- 광저우 난산신구 3단계 개발사업 - 옌티안부두의 컨테이너선과 선전 다찬완부두 2단계 개발

자료: KOTRA global window

나. 통관 간소화

광둥성 지역의 소형선박이 홍콩과 마카오를 왕래할 경우, 해당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통관 간소화 제도 도입 이후 사전에 적하목록을 세관에 신고하면 중간검사역에 정박할 필요없이 GPS를 통해 자동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운항시간이 평균 2-3시간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의 수운물류 운송속도가 빨라지고, 소형선박의 환적업무가 증가하여 주강삼각주 지역 전체의 수운물류사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광둥성 정부는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해 해당산업의 경제적 이익이 연간 3.5억 위안(한화 약63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기타 노력

주강삼각주 지역 내 노동력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지역간 의료보험 협력협의체 체결을 통한 의료보험 연계, 인력 이동에 따른 사회보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우수 노동력의 유인 효과를 가져온다.

7. 기대 효과

(1) 경제적 효과

대형 인프라 사업, 레저용 복합 리조트 단지 개발 등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은 최근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홍콩과 카지노 산업 침체로 인해 위기를 맞은 마카오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둥성과 홍콩·마카오는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의 경제협력체를 건설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간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시켜 ‘지역경제협력체’로 확대 발전이 가능하다. 아울러, 홍콩·마카오 경제를 내륙경제와 더욱 긴밀히 연결시켜 지역 통합의 가속화가 추진된다. 또한, 이를 통한 주강삼각주 경제권 전체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콩은 ASEAN 국가들과 교류가 긴밀하고 빈번한 지역으로 향후 중-ASEAN FTA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며 중국-ASEAN 자유무역의 거점 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사회적 효과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간의 연결성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대만을 포함하는 대중화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최근 정치적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홍콩

사회 내 반중국 정서를 감소시키고, 중국 본토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광둥성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 활성화

광둥성 자유무역지구는 난샤(南沙), 첸하이(前海), 형친(橫琴) 세 지역을 향후 무역·물류·금융·관광 산업의 국제적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해당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홍콩·마카오와의 긴밀한 협력 및 교류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간 협력 과정에서 물적·인적 자원의 활발한 이동이 예상된다.

글로벌 교역 규범 및 질서가 자유무역화 추세로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자유무역지구의 성공적 운영 여부는 향후 주강삼각주 경제권 활성화 노력에도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8. 도전과 한계

(1) 대내외 환경의 변화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의 둔화, 대외수요 감소,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동관(東莞)을 비롯한 동 지역 내 다수의 제조업 종사 기업들은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미 파산을 신청하고 청산(清算)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복 투자로 인한 과잉생산능력(over-capacity)과 이로 인한 산업의 비효율성 문제는 구조적 문제인 바, 관련 산업정책 방향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고부가가치 중심의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 사법·행정 제도상의 차이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단일시장체제로의 통합은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을 의미하는데, 체제를 달리하는 중국과 홍콩·마카오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홍콩·마카오의 자본주의 체제간 결합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각 지역간 상이한 사법·행정 제도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한다.

지역 내 경제활동 과정에서 분규·마찰·소송 발생 시 사법·행정상의 해결 과정이 복잡해 질 수 있다. 또 지급시(地級市: 광저우·둥관 등), 경제특구(주하이·선전),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 등 각기 다른 행정구역은 지역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새로운 사회적 문제

지역간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임산부의 홍콩 원정출산 시도 증가, 본토인에 의한 홍콩 내 분유사재기 바람, 선전(深圳) 거주자에게 부여된 홍콩 방문 혜택을 불법적 상

거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추세에 있다.

대형교량·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민의 수렴 절차의 불충분으로 인해 지역민 또는 환경단체의 거센 저항을 야기하여 해당 공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9. 향후 전망

우선, 주강삼각주 지역은 화남(華南)지역 경제발전 및 지방통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간 협력 및 통합 발전전략(integration development strategy)은 광활한 중국 영토의 효율적 경제발전과 효과적인 지방 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주강삼각주 경제권은 지역내 총생산(GRDP) 등 경제규모면에서 독립적인 시장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경제적 협력이 긴밀해지면 정치·사회적 유대도 깊어질 수 있어, 보유자원의 공유와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은 범(泛) 주강삼각주 발전 전략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둥성을 포함한 인접한 9개 성(省)과 홍콩·마카오 권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내륙지역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광둥성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 감소, 투입가능한 자원요소의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사천, 귀주, 운남 등 내륙지역의 노동력 및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홍콩의 슈퍼커넥터(Superconnector)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과거 글로벌 투자자들이 홍콩을 중국시장 진출을 전초기지로 활용하였던 일방적 기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광둥성 지역 투자자(또는 기업)들을 글로벌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매칭^{matching}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홍콩은 매년 4천만명 이상의 본토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소비활동을 하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의 마케팅 무대로 홍콩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홍콩이 중국 본토와 글로벌 시장의 쌍방향 투자·거래의 장으로 활용되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은 홍콩을 비즈니스 및 혁신을 논의하는 장소로 더욱 자주 찾을 것이다. 투명한 법체계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갖추어진 홍콩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논하고 발굴하는 거점으로 재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V. 홍콩을 활용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진출 효율화 방안



한국기업의 중국 및 아시아 진출 현황

1. 진출현황 및 추이

우리나라의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해외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는 174.5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86.9%), 제조업(1.4%), 광업(7.3%)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했으나, 부동산임대업은 28.9%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전체 투자 중 아시아(46.6%) 비중이 가장 크고, 북미(3.8%), 중남미(11.2%) 등을 나타내는데, 이들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9.2% 감소하는 등 기타 지역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주요 투자대상국 중 미국(16.9%), 홍콩(293.5%), 베트남(51.9%)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중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10.5%)하였다. 2000년부터 2015년(9월)까지의 누적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 외 아시아 국

가 중에서는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대 중국 투자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 및 대 중국 투자는 한중 수교(1992년) 이후 본격화 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한국의 제1위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현지 법인)은 23,000개를 돌파했으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 FTA의 체결로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진출 및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독려 정책을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외자기업에 대한 개방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한국기업들의 진출 시장 확대 가능성도 있다.

2. 업종별/지역별 특징

(1) 업종별 투자 특징

2000년부터 2015년(9월)까지의 누적투자실적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서비스 업종이 제조업보다 더 많은 신규(현지)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투자금액 기준으로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홍콩 투자의 업종별 특징

홍콩을 대상으로 한 2000년부터 2015년(9월)까지의 누적투자실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업종이 제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신고금액 및 투자금액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세부 업종으로는 도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순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3) 한국기업의 홍콩투자진출 특징

KOTRA의 해외시장정보 내용에 따르면, 통계상은 제조업 투자가 많으나 실제 제조업 투자는 전무하다고 한다. 홍콩에 제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나타난 것은 먼저 홍콩에 제조업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만 중국 내 재투자 시 공장설립 내지는 제조업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대금결제가 홍콩투자의 주요 이유라고 한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투자의 경우 단순 트레이딩 목적 외에도 중국에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중국 거래업체와의 대금결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결제가 홍콩 투자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한국투자기업들의 95% 이상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홍콩 금융시장 호조로 금융업 투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2014년 2년간 금융시장이 호조를 띄면서 금융 및 보험업 투자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지주회사 설립이 늘어나면서 투자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진출이 활발하다고 한다. 한국 주요 화장품 브랜드의 성공적인 홍콩 시장 진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4) 한국기업의 홍콩투자진출 이유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중국과의 지역적 접근성으로 홍콩이 중국의 관문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낮은 법인세(16.5%)와 단순한 조세구조, 투명한 정부(부패지수 세계 최저, 규정과 시스템에 의한 운영), 세계 최고의 자유경제, 대금결제의 편리함, 자유로운 정보 공유가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홍콩법인의 중국 투자 시 배당소득세율과 이자소득세는 0%를 적용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 투자회사에 대여금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중국자회사에 재투자할 때에는 외국환거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송금이 용이하다는 이유 등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과 홍콩

1.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

(1)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가치사슬(value chain)이란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구상(conception), 조달(sourcing), 생산(production), 판매 및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기능·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운송·통신 수단의 발달로 가치사슬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특정국가가 최종재를 생산하면, 이를 위해 부품소재를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등 같은 산업내에서 국가간 분업관계가 확산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상품의 제조부분뿐만 아니라 상품의 기획, 연구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과정이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상품의

기획, 연구개발, 원료·부품 조달, 생산·판매 활동의 50% 이상을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생산 활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한 상품 안에 내재된 부가가치 역시 사슬처럼 국제적으로 얽혀 있다.

홍콩 Li & Fung 사의 Victor Fung 회장은 이와 같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한 기업의 생산 및 판매 패턴을 “전 세계에서 조달하고,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전 세계에서 판매한다”(Source everywhere, manufacture everywhere, sell everywhere)라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란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의 산업들이 투입되어 각자의 생산활동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는 경기변동, 중간재가격 변동, 임금상승 등의 경제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조직자의 재구성을 통해 계속 변할 수 있고 이때 그 GVC에 참여한 산업들이 가져가는 부가가치와 노동투입량의 크기도 같이 변하게 된다. 이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기획, 디자인, 원료부터 부품생산, 반제품 생산, 완제품 생산, 포장, 수송, 판매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단계를 거치는데, 이 각각의 단계들이 각기 경쟁력이 있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국제무역은 더 이상 상품의 교역이 아니라 역할의 교역으로 변화하고 있고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이러한 국제적인 국가간 역할의 배치가 글로벌 가치사슬이라고 할 수 있다.

(2)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

최근 OECD는 OECD 각료급회의 무역세션과 동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WTO비공식 통상장관회의, G20-OECD 공동 글로벌가치사슬^{GVCs} 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회의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역·투자 촉진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속적·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SMEs}, 최빈국^{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LDCs}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촉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WTO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은 생산의 국제적 분업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으며 상품·기업·노하우·인력은 함께 국경을 이동하고 있다는 점, 무역과 투자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개도국들이 GVC 고도화를 통해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계교역환경을 고려하여 국내적 요인만 보지 말고 무역투자과 기술에 개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세계 무역 성장률은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6.8% → 2012년 2.8% → 2013년 3.4%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도 약 3%의 성장률만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G20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개발의 주요 동력으로 무역을 선정하였으며 무역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산업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생산과정이 여러 나라에 분할되는 소위 국제 생산분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금속 및 금속제품, 전자기기 및 기계장비, 운송기기, 기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다국적기업이 관련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세계의 총액 기준 수출(global gross exports)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총액기준 수출(100%)중에서 42%는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이고, 16%는 아웃소싱과 OEM 등 비주식방식(NEM:Non-EquityMode)의 무역이며, 나머지 42%는 제3자 무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3)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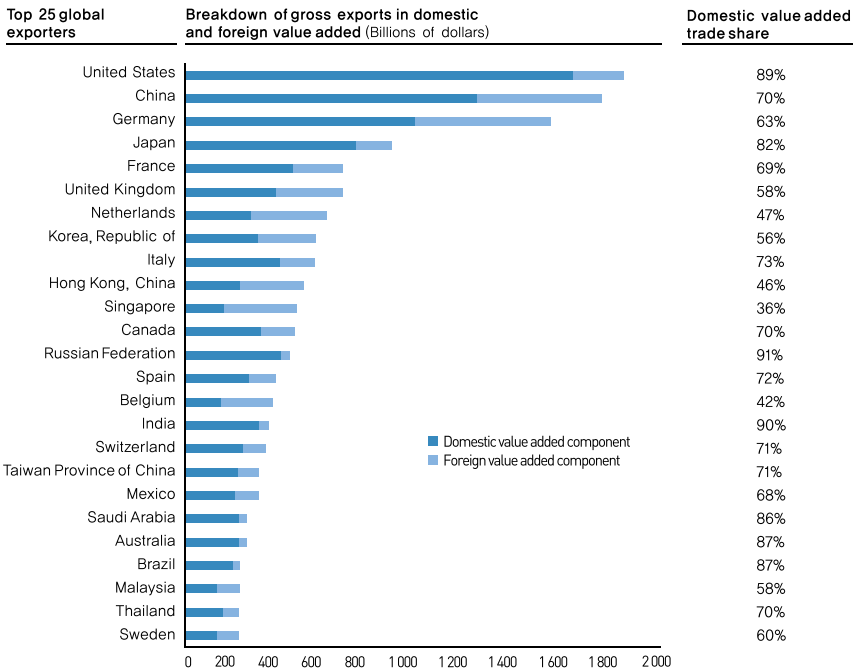
가. GVC 참여지수

최근 국가간 무역 통계의 발달로 국가 및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 Output Table)가 최근 체계적으로 작성되면서 각 국가 및 산업별로 부가가치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GVC에 참여한 국가와 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였는지 알고 있다면 투입된 각 생산요소들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 국가의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와 해외부가가치를 나누어 보면, 그 국가가 국제가치사슬에 얼마나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지 가능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국내부가가치가 78.2%를 차지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독일이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가 특정산업에서 밸류체인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는 통계적 분석보다 산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인 분석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국가별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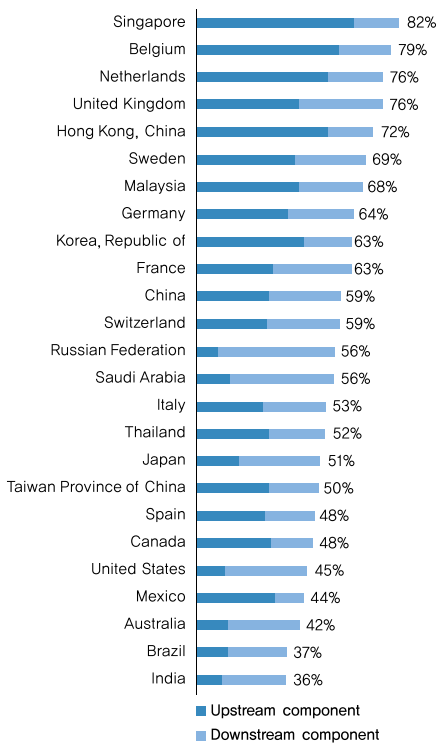
자료 : UNCTAD-Eora GVC Database, UNCTAD(2014)

한편, 2010년 기준 수출 상위 25개국의 GVC 참여율은 싱가포르가 82%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은 72%, 우리나라는 63% 수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WTO의 2014 국제무역통계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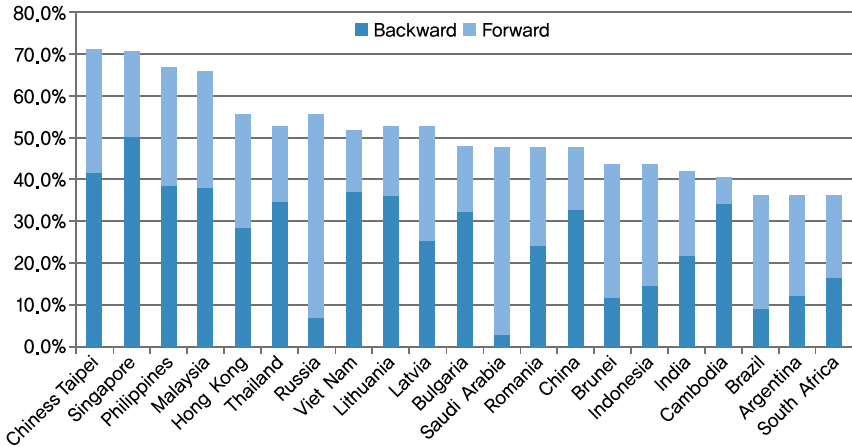
치사슬을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0-2009년 필리핀, 홍콩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s)에 대한 참여도(participation index)가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는 국내 시장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대만은 중국과 ASEAN 국가에 대해 제조 중간생산물 수출에서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 사슬과 연관된 무역은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높은 발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 생산

● 수출 상위 25개국의 GVC 참여율 (2010)



자료: UNCTAD(2014)

● OECD 비회원국의 GVC 참여지수 (2009)



자료: OECD(2013)

된 중간생산물의 수출은 해외 투입물input의 점유율보다도 더욱 증가 (16.6%)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GVC와 부가가치

1995년과 2009년의 기간 중 주요 개도국의 제조업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해 유발된 부가가치를 산출해 보면 중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부가가치는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개도국들의 경우에도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한데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서비스부문의 역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정책 등이 중요하다. 무역이 원활해지면서 이로 인한 무역비용감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개도국의 경우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율적인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중요한데, 서비스는 G20국가

의 부가가치 수출의 42%에 달하며, 몇몇 국가에 있어서는 50% 이상을 넘는다. 또한 유통 및 수리, 운송 및 창고,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기타서비스의 경우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비중이 23~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글로벌 가치사슬과 홍콩의 역할

(1) 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아시아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대표적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치사슬은 기획→연구개발→원료조달→부품/소재→조립/생산→마케팅→유통/수출→사후관리 등 세부단계로 구성되는데, 동아시아 지역은 제조 및 소싱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아울러, 상호 교류가 활발하며 최근 제도적 통합이 급진전되고 있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산업분야의 부품 및 원자재를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최종재의 조립공정도 담당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다.

1996~2009년 기간의 12개국, 16개 산업에 대한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수준은 여타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6~2009년 동안 한국(0.37→0.48), 대만(0.43→0.61), 중국(0.24→0.34), 일본(0.20→0.38),

인도네시아(0.29→0.38)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지수는 크게 상승한 데 반해 미국(0.19→0.26), 캐나다(0.33→0.32), 멕시코(0.37→0.38) 등 NAFTA 경제권과 EU(0.16→0.22)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교역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가치사슬은 제조업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역내 국가간의 교역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의 역내 교역비중은 1990년의 33.0%에서 2000년에 40.6%로 높아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1년 현재 43.8% 수준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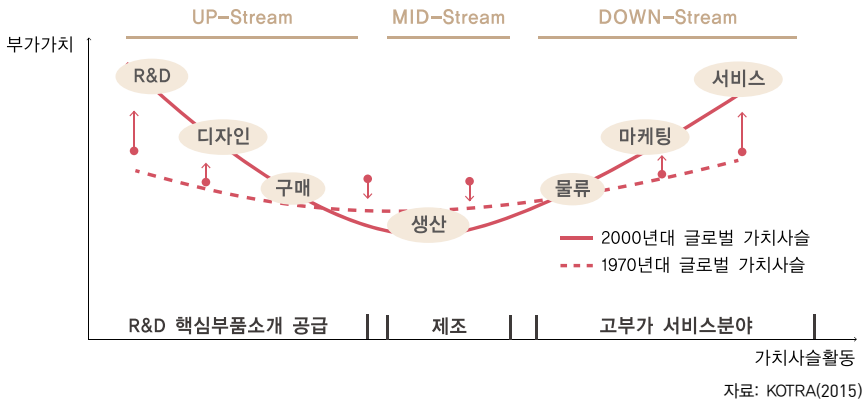
또한, 동아시아의 중간재교역 추이가 1996년의 6,533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2조 1,95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중간재수출이 동아시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의 60.9%에서 2009년에는 60.7%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중간재의 동아시아 역내수출은 1996년의 1,686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6,64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역내 중간재수출 비중은 1996년의 26.5%에서 2009년에는 30.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지수는 동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중국(-0.05→-0.12)과 대만(-0.19→-0.12)이 한국(-0.11→-0.12)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0.08→0.09)과 호주(0.02→0.11)는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지수의 값이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대만, 한국 등의 경우 중간재 수출비중에 비해 중간재수입 비중이 더 높은 데 반해 일본 등의 경우에는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가가치 창조 스마일 커브에서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GVC

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 스마일 커브는 가치사슬에 따라 수익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R&D, 제조, 유통, 서비스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상의 수익성을 분석할 때, 과거에는 제조업의 가치사슬 상 제조, 조립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고, 연구 및 부품 생산, 서비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산업들에서 이와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반도체 등 R&D 및 부품 생산하는 산업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유통 분야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GVC는 2000년대를 1970년대와 비교해볼 때 가공, 조립 등 중간부문의 부가가치가 더욱 낮아져서 더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부가가치와 가치사슬의 스마일 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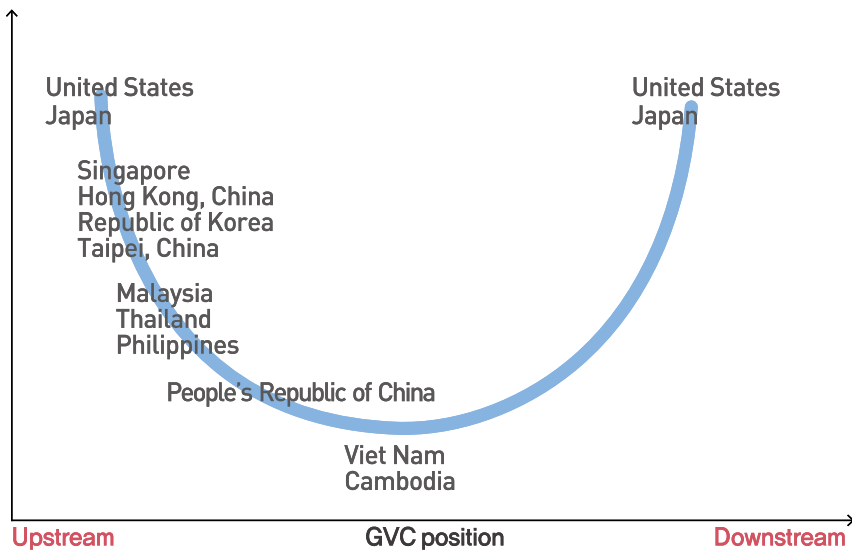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보고서(2014)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 창조 스마일 커브에서의 주요 국가별 GVC 위치를 살펴보면 선진국일수록 기술혁신, R&D, 디자인, 브랜드화, 마케팅 등 보이지 않는 자산에 특화된 산업이 발달하고, 이 분야에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 및 단순 조립 등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GVC는 신개념, R&D, 디자인 등 상류부문(upstream activities)과 서비스, 마케팅 등 하류부문(downstream activities)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중간부문인 생산활동이 부가가치가 낮은 스마일 커브 형태를 보인다. GVC에 참여하는 개도국 또는 기업들은 초기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s) →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s) → R&D 및 디자인 등으로 고부가가치로 이동하게 된다.

● 부가가치 창조 스마일 커브에서의 국가별 GVC 위치

GDP per capita, value added



GDP = gross domestic product, GVC = global value chain.

자료: ADB(2014)

(2)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우리나라는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글로벌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GVC하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왔다.¹⁾ 그러나, 연구자들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으나,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대상국 중 한국의 가치사슬 참여지수는 2009년 65.0으로 61개 조사대상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²⁾ 우리나라보다 GVC 참여지도가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71.6), 대만(71.0), 싱가포르 (70.7), 필리핀(66.6), 말레이시아(65.6) 5개국이었다. 한국은 가치사슬의 전방 및 후방참여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수출 중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을 의미하는 후방 참여도가 높지만, 제3국 수출에서 한국산 중간재 투입 비중을 뜻하는 전방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방참여 비중은 일본(33.0), 미국(28.5)은 물론 대만(29.5), 인도네시아(29.3)보다도 낮아, 중간재 수출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VC 참여지수가 높다는 것은 한국산 제품이 제3국 수출에 재사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제3국 수입 제품을 가공하

1)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이 1995년 약 40%에서 2009년 약 62%로 증가했다(OECD)

2) 가치사슬 참여지수는 한 국가의 총수출 중에서 수입 중간재 비중(후방참여)과 제3국 수출에서 국내생산 중간재 투입 비중(전방참여)의 합으로 도출함.

여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G20중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고(2014년 기준 98%) 특히, 국제분업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전자제품, 기계, 운송장비 등 조립가공 제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2010년 기준 54.1%).

동아시아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비교해볼 때,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적극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며, 제조업 업종별로는 특히 전기전자, 화학 및 비금속, 운송기기,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류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 제조업부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선도적인 활용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전기 및 광학기기(10.1→20.4), 화학 및 비금속(6.4→12.2), 운송기기(2.4→7.9), 금속(3.6→5.3), 기계류(1.4→2.8)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의복 및 신발류(5.0→1.6), 식음료(0.4→0.3)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낮고 1995년 대비 축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세계산업연관표 World Input-Output Data: WIOD를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및 산업 구조 등을 보면 첫째, 우리나라에 있어 해외 특히, 중국 수요가 중요하다. 둘째,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제조업 오프쇼어링으로 인한 일자리 이탈이 규모효과보다 더 큼에 따라 오프쇼어링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부품·소재와 같은 핵심기술에 있어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기업 및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및 가치사슬상의 기능에 집중하여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무역상대국이 우리나라

라와 얼마나 보완적인가를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국경을 넘어 효율적 국제분업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글로벌 가치사슬과 홍콩의 역할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단순히 무역 및 현지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판매, 부품조달,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OECD 회원국 및 신흥국 모두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현상 및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계획, 부품 조달, 생산, 유통 및 판매, 애프터 서비스 등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각 단계별로 비용, 시간, 불확실성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운송, 통신, 금융 등 인프라 서비스 시장의 원활한 작동 역시 원활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

OECD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무역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시장 자유화가 필수적이다. 관세, 통관, 환급 등 국경 조치 border measures와 더불어 국내규제, 투명성, 경쟁 등 국경내 조치 behind the border measures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은 기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장애요인으로 외부환경적인 요인(자연재해, 기후 악화, 유행병 등), 지정학적인 요인(정치사회적 불안, 수출입제한, 테러리즘, 부패, 불법무역/조직범죄, 해적, 핵/생물/화학 무기 등), 경제적 요인(수요 쇼크, 원자재가격 급등, 통관 지연, 환율급변, 세계 에너지 부족, 소유권/투자 제한, 노동력 부족 등), 기술적 요인(정보 및 통신장애, 운송인프라 실패 등)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주는 관세인하, 서비스·투자 자유화, 투명한 무역규범 등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 국제분업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부가가치 창출로 직결된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하에서는 다자간 시장개방이 중요하며, 개방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GVC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서는 재화, 기술, 정보, 노하우 등이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물류, 교통, 통신, 영업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기업은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에 결부된 서비스, 디자인, 마케팅, 판매 후 품질보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제고, 향후 제조업의 경쟁력은 제조업과 결부된 서비스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OECD는 SMEs와 LIDCs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크게 5가지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무역과 무역관련 정책) GVCs 심화로 무역장벽으로 인한 비용은 점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정책은 수출지향적이 아닌 수입·수출 양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이는 중간재/

원자재 수입이 다음 단계의 생산 공정으로 이어지며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 인한 비용이 더 증가한다. WTO 무역활성화 방안(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도입, 다자 및 양자 간 협업을 통한 비용축소가 중요하다.

② (물류, Logistics) 중소기업의 경우 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에 특히 취약한 데, 이는 대기업에 비해 재고보관 및 처리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운송망 개발 등 로지스틱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③ (제품 인증 및 기준) 세계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필수 인프라, 지역내 생산설비 및 공급업체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 규격에 따르는 데 큰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국제 규격에 맞는 인프라 개발 및 지역 내 생산설비를 제공하고 관련 자문기관 설립하는 등의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④ (인적 자원) 기업 생산성에 있어서 경영 능력은 주요한 요소이나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해 기업 관리 능력 및 경영 기술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인적 자원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벤치마킹과 e-learning 등의 글로벌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기업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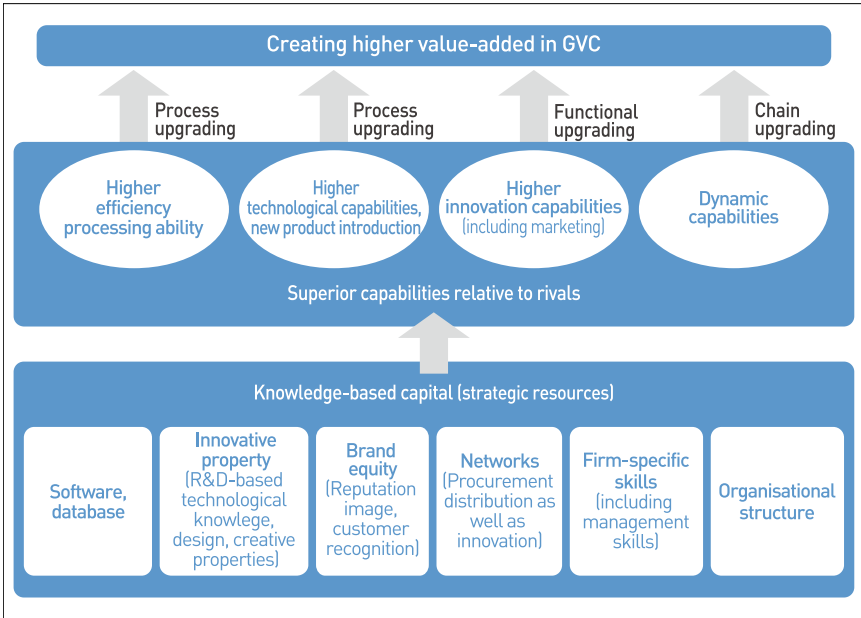
⑤ (기술 혁신 및 도입)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상류부문으로 upgrading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이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 보장을 통해 기술혁신에 적합한 법률기반을 제공하

고 중소기업에게 외국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기술 도입 및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재정규모 등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대기업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동반한다. 따라서 기술 혁신에 필요한 재정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보다 주식발행, 은행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홍콩은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시장 자유도가 높고, 무역에 대한 제약이 적어 홍콩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우호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홍콩은 OECD-G20의 GVC 회의 내용처럼 중소기업과 아시아 저소득 국가들의 GVC 참여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글로벌 가치사슬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나라는 GVC에서의 위상과 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GVC 편입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선진 기술도입, 산업·물류 기반구축,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등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다만, GVC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식기반자본(KBC)에 대한 투자, 제조업에서 서비스의 비중 및 경쟁력 등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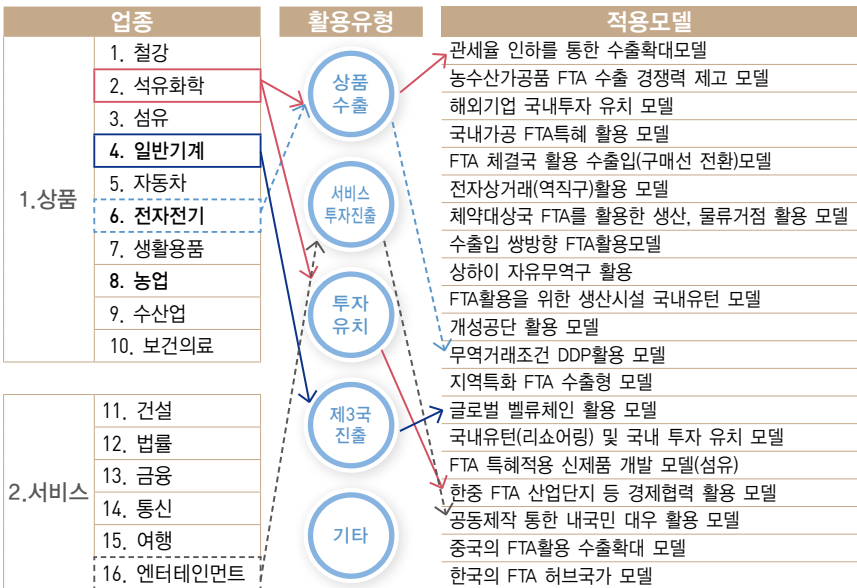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 최근 산업 및 무역의 특성인 가치사슬 상에서의 역할 분업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국가간의 협력 및 진출전략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국가가 중요산업에서 밸류체인 상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은 또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기업의 해외사업 전략과 정부의 대외통상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화 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GVC에 편입될 수 있는 다양한 국제화 행태를 이해하고, 기업 국제화에 대한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다국적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연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GVC에 편입될 수 있

도록, 나아가 국내 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역할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정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의 GVC 유형을 파악하여 FTA에 활용하려는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중 FTA는 양국 기업 간 상호보완적 글로벌 생산·유통관계를 격상시키고 양국 분업구조를 보다 고차원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 한국 기업은 이전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필요에 따른 상호투자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은 중국과 한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구개발(R&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 거점을 한국이나 홍콩에 둘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분야는 홍콩을 경유하거나 혹

● 한중 FTA 비즈니스 활용 모델



자료: KOTRA

은 직접 동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역할 분담으로 보다 고도화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으로 중소기업은 기획, R&D, 디자인, 마케팅,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업 협업 확대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KOTRA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활용모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품 혹은 서비스 업종별 글로벌 가치사슬의 유형을 파악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즉, 상품수출 확대를 위한 모델을 적용할 것인지, 서비스 투자진출을 할 것인지, 제3국 진출을 추진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비즈니스 활용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1. 홍콩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홍콩은 4개국과의 무역협정(FTA 또는 CEPA)을 체결하고 있으며, 2개국과는 협상 검토 단계에 있다. 기체결 무역협정은 중국-홍콩 CEPA, 칠레-홍콩 FTA, EFTA-홍콩 FTA, 뉴질랜드-홍콩 CEPA 등이 있으며, 페루-홍콩 FTA 및 GCC-홍콩 FTA는 추진 검토중이다.

(1) 중국-홍콩 CEPA

중국·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는 양국이 2003년 6월 29일 기본합의서(main text) 및 6개 부속서(annexes)에 서명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이다. 동 협정은 2001년 11월 홍콩특별행정장관 도날드 창이 중국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1년 6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2003년 6월 협정이 체

결되었다. 중국·홍콩 CEPA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대외경제 협력 협정 가운데 개방 폭이 가장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기본협정 이후 지속적인 보충협정을 통해 개방의 범위와 깊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심화하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보충협정이 체결되었다.

가. 중국·홍콩 CEPA의 구성

중국·홍콩 CEPA는 상품무역^{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무역투자촉진^{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등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상품무역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273개 홍콩산 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2006년 1월 1일(2차 보충협정 발효일)부터는 이를 모든 홍콩산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철폐는 CEPA II(2차 보충협정)에서 모든 홍콩산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면서 완료되었다. 여기서 영세율 적용을 받는 홍콩산 제품이란 CEP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ROOs}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을 의미하며, 2015년 1월 7일 현재 1,812개의 홍콩산 제품이 영세율 혜택을 받고 있다.

중국으로의 상품수출에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본사가 홍콩에 있을 필요는 없다. 본사가 홍콩에 있는 회사든 홍콩 밖에 있는 회사든 CEPA 원산지규정만 충족하면 수출상품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CEPA의 원산지규정 하에서 홍콩산 제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제조과정 중 주요한 공정^{principal processes}이 홍콩에서 이루어지거나 홍콩에서 제품의 부가가치 중 30% 이상이 생산

되거나 홍콩에서 추가적인 생산으로 동 품목이 완전히 다른 품목이 되는 경우 change of tariff heading에 속해야 한다.

수출상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외에, 중국과 홍콩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홍콩산 제품에 관세쿼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중국·홍콩 CEPA의 3대 구성

구성	내용
상품무역	CEPA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홍콩산 제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
서비스무역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홍콩 서비스제공자에게 중국시장을 개방
무역투자촉진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서비스무역의 경우, 최초 협정에서 중국은 홍콩 서비스제공자에게 경영컨설팅, 전시컨벤션, 광고, 회계, 건축, 부동산 및 관련 전문 서비스 등 총 18개 분야를 개방하였다. 서비스무역의 개방은 이후의 보충협정에서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심화되었으며, 가장 최근 체결된 10차 보충협정으로 총 5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조치가 취해졌다.

무역투자촉진 분야의 경우, 기본합의서 체결 시 무역투자촉진, 통관 간소화, 상품검역·식품안전·품질표준, 전자상거래, 법률법규 투명성, 중소기업협력, 산업협력, 지적재산권 보호, 브랜드 협력, 교육협력 등 10개 분야에 대해 조치가 취해졌다. 가장 최근 체결된 10차 보충협정에서는 상품검역·식품안전·품질표준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나. 중국·홍콩 CEPA 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

■ 적용 분야

2013년 체결된 중국·홍콩 CEPA 10차 보충협정에 따라 중국은 총 50개 서비스 부문을 홍콩 서비스 공급자(Hong Kong Service Supplier; HKSS)에게 개방하고 있다. <표 3>은 중국·홍콩 CEPA 서비스무역 협상 결과 개방된 업종들이다.

■ 자격 요건: 홍콩 서비스 공급자(HKSS)

CEPA에서 사용되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 요건을 보기 전에 먼저 서비스 공급자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해당된다. 자연인이란 중국(본토)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을 지칭하며, 홍콩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영주권자를 의미한다. 법인이란 중국 및 홍콩 특별행정구의 관련 법 하에서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조직된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법인은 영리일 수도 비영리일 수도 있으며, 사적 소유일 수도 정부 소유일 수도 있다.

법인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특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부문의 경우,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회사법(Companies Ordinance)이나 다른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외국기업(overseas company),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폐이퍼컴퍼니(mail box company), 또 기업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설립된 회사는 홍콩에 등록된 회사라 하더라도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라이선스나 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의 경우, 홍콩 로펌(법률사무소)으로서 설립·등록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로펌(법률사무소)의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와 모든 파트너들은 홍콩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중국·홍콩 CEPA에서 홍콩 서비스 공급자 조건에는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영업기간, 홍콩직원 비중 등에서 조건이 있다. 영업기간의 경우 특별하게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부문은 홍콩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3년 이상 해야 한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5년 이상, 항공지상서비스 air transport ground services는 5년 이상, 제3자 국제해운대행업 third party international shipping agency services은 5년 이상이다. 그리고 은행 및 금융서비스(보험업, 증권업 제외)도 5년 이상인데, 지점 branch 일 경우에는 2년간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면 되며 홍콩 은행법 Banking Ordinance에 따라 통화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은 지역 법인인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받은 후 3년 이상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면 된다. 보험업은 5년 이상이고 로펌(법률사무소)은 3년 이상이다. 부동산 서비스의 경우 영업기간에 제한이 없다.

홍콩직원 비중과 관련해서는 로펌(법률사무소)을 제외한 서비스 부문에서, 홍콩에서 고용한 전체 직원 중 50% 이상이 홍콩 거주자(체류기간 제한 없음)이거나 One Way Permit을 받아 홍콩에 정착한 중국본토 출신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중국본토인은 허가를 받아 홍콩에 정착할 수 있다. 대신 이들은 중국거주권인 후코우(戶口)를 포기하고 그에 따른 중국 거주민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해야 한다. 이 외에 홍콩 서비스 제공자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법인

세 profits tax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장소를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서비스 부문별로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신청 및 승인 현황을 살펴 보면, 2013년 11월 기준 총 1,827개 기업이 홍콩 서비스 공급자로 승인을 받았다.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WTO 규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홍콩정부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약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 중국 · 홍콩 CEPA 서비스 분야별 양허내용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 · 홍콩 CEPA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 분야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한 · 중 FTA에서 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분야와의 비교를 위해 그에 한정하여 양허내용을 살펴본다.

• 법률서비스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홍콩 로펌은 중국 로펌과 합영형태로 제휴할 수 있다. 단, 합자형태는 금지된다. 중국에 대표사무소가 있는 홍콩 로펌은 1~3개의 중국 로펌과 제휴하여 영업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사무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중국 로펌과도 가능하다.

중국 로펌은 홍콩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데, 사무변호사(solicitors)와 법정변호사(barristers) 모두 가능하다. 중국 로펌에 고용된 홍콩 변호사는 중국법률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홍콩 거주자는 오직 한 개의 중국 로펌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타 국적의 다른 로펌 대표사무소에 동시에 고용될 수는

없다. 중국 공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에서 법률자격시험을 칠 수 있고 법률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중국 로펌에서 비소송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변호사자격증이나 법률전문가자격증을 취득한 홍콩 거주자는 홍콩과 관련된 혼인 및 상속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홍콩인은 중국에서 인턴 및 비소송 법률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 공민권이 있는 홍콩 법정 변호사는 중국 민사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5년 이상 경력의 홍콩 변호사는 중국 국가사법시험과 1개월 이상의 변호사협회 훈련과정을 거쳐 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중국·홍콩 CEPA 양허에서는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홍콩 로펌은 중국 법률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중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0차 보충협정에서 광둥성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 설립한 홍콩 로펌의 대표사무소는 중국 로펌에 소속된 중국 변호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홍콩법이나 양국간 법률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홍콩 로펌에 소속된 홍콩 변호사를 중국 로펌에 파견할 수도 있다. 또한 광둥성 지역에서는 중국 로펌과 중국에 설립된 홍콩 로펌의 대표사무소가 상호 협정을 맺고 협력을 할 수 있다.

•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건축·엔지니어링·통합 엔지니어링·도시 계획·조경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에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건축 엔지니어링 비용 컨설팅 기업도 독자기업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

다.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기업과 합자형태로 건축·엔지니어링 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 측 파트너의 등록자본 비중에 제한은 없다.

중국에 설립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 서비스 기업에 대해 면허등급을 판정할 때 홍콩과 중국에서의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중국에서 둘 이상의 홍콩기업이 합자하여 설립한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의 면허등급을 판정할 때는 해당 기업들의 홍콩과 중국에서의 실적을 모두 합산할 수 있다.

중국에 독자기업으로 설립된 홍콩 건축·엔지니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외자기업에 대한 요구조건을 완화하였다. 즉, 독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건축가나 엔지니어 자격을 갖춘 홍콩인 수과 해당 설계 경력이 있는 홍콩인 수가, 자격등급기준(qualification grading criteria)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과 주요 기술인력 총수의 1/4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합자기업인 경우에는 1/8보다 적으면 안 된다.

홍콩의 전문가와 기술인력에 대해 요구되는 중국 거주기간 요건도, 이들의 홍콩 체류기간을 중국 거주기간에 포함함으로써 완화하였다.

상호인정을 통해 중국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홍콩 전문가는 광둥 지역에 등록하고 영업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자격을 가진 중국 전문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의 도시계획사 자격을 취득한 홍콩 전문가는 홍콩에서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광둥지역에 등록할 수 있다. 독자 또는 합자 형태로 설립된 도시·농촌 계획 기업에 대해 광둥지역에서 면허등급을 판정할 때, 동 기업에 고용된 인력 중 양국 상호인정을 통해 중국에 등록된 계획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전문가들을 주요한 등록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의 감리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홍콩 전문가는 홍콩에서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광둥

지역에서 등록하고 영업할 수 있다. 또한 광둥지역에서 감리회사에 대해 면허등급을 판정할 때 이들은 등록전문가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의 1급 등록건축사 자격이나 1급 등록구조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홍콩 전문가는 관련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건축·엔지니어링 설계 사무소를 설립할 때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설립된 기업에 대해 중국 파트너 수에 대한 홍콩 파트너 수의 비율, 총 자본 대비 홍콩 파트너 자본 비중, 홍콩 파트너의 중국 거주기간에서 제한은 없다.

상호인정을 통해 중국의 1급 등록건축사 자격이나 1급 등록구조공학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홍콩 전문가는 홍콩에서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광둥지역에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다. 광둥지역에서 엔지니어링 기업에 대해 면허등급을 판정할 때, 상호인정을 통해 중국의 1급 등록건축사 자격이나 1급 등록구조공학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홍콩 전문가는 등록전문가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을 통해 중국의 등록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홍콩 전문가는 홍콩에서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광둥지역에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다. 광둥지역에서 엔지니어링 기업에 대해 면허등급을 판정할 때 이들은 등록전문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시험을 통해 중국의 등록구조공학엔지니어, 등록도시공학엔지니어(항만 및 운하), 등록공공시설엔지니어, 등록화학공학엔지니어, 등록전기공학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홍콩 전문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광둥지역에서 건축·엔지니어링 기업을 설립할 경우 홍콩에 등록된 (중국에서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건축사와 구조공학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있다. 이들은 해당 기업의 면허등급을 판정할 때 주요한 전문·기술인력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등

록인력으로 취급하지는 못한다.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에 설립하거나 투자한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비율에 상관없이 중외합작투자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에 설립한 건설회사에 대해 면허등급을 판정할 때 홍콩과 중국에서의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건설계약 실적의 경우 중국에서의 실적과 그 외 다른 나라에서 거둔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중국에 설립된 건설회사에 고용된 경영진과 기술 인력 숫자는 실제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수로 산정한다.

- 유통 서비스(위탁중개,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에서 독자기업의 형태로 상품중개와 도매, 소매를 할 수 있으며, 대외무역회사도 설립할 수 있다. 중국에서 독자 또는 합자 형태로 도매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설립 신청 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이고(중서부지역, 2천만 달러), 직전 연도 자산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 최소 등록자본금이 5천만 위안(중서부지역, 3천만 위안)이어야 한다. 소매기업이 경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업설립 신청 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이고, 직전 연도 최소 자산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 최소 등록자본금이 1천만 위안(중서부지역, 6백만 위안)이어야 한다. 대외무역회사의 경우, 기업설립

신청 전 3년간 중국과의 연평균 거래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중서부지역, 5백만 달러), 최소 등록자본금은 2천만 위안(중서부지역, 1천만 위안)이어야 한다.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점포를 개설한 단일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 품목에 의약품, 살충제, 제초필름, 화학비료, 식물성 오일, 식용설탕, 면이 포함되어 있고 이 상품들의 브랜드가 서로 다르고 상이한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면,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독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50개 이상의 점포를 개설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최대 지분율 65% 제한 하에서 지배주주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점포를 개설한 단일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 품목에 책, 신문, 잡지, 주식(主食)이 포함되어 있고 이 상품들의 브랜드가 서로 다르고 상이한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면,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최대 지분율 65% 제한 하에서 지배주주가 될 수 있다.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자동차 유통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차 판매를 할 수 있는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독자기업 형태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다. 출판유통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등록자본금은 중국 기업에 적용되는 요건을 따른다.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에 설립한 유통기업은 홍콩에서 출판된 책을 유통할 수 있으며, 이 책들은 중국의 국가공인 출판 수입 에이전트가 수입해야 한다.

- 환경서비스 (하수,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자연 및 환경보호, 기타 환경보호, 위생 서비스; 환경모니터링, 오염 원조사는 제외)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에서 환경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광둥지역에서는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여부를 광둥성에서 결정할 수 있다(그 외 지역은 불가).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에서 환경오염통제 시설을 운영할 자격을 판정할 때 동 기업의 홍콩과 중국에서의 환경오염통제시설 운영 실적이 인정될 수 있다.

- 보험 및 관련 서비스 (생명·상해·건강보험, 비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보험 관련 서비스)

홍콩 보험회사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그룹 구성, 전략적 합병을 허용하며, 시장접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총자산 미화 50억 달러 이상, 그룹 내 한 개 기업의 30년 이상 영업 경력, 그룹 내 한 개 기업의 2년 이상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 중국 보험회사에서 홍콩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비율은 24.9%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 공민권이 있는 홍콩 거주자가 중국 보험계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홍콩 거주자가 중국 보험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국 보험기관에 고용되거나 임명될 경우, 관련 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한편, 홍콩 보험대리회사 insurance agency companies도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하고 중국 보험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증권 및 선물

홍콩거래소(Hong Kong Exchange and Clearing Limited)는 베이징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중개사가 중국 증권규제위원회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중국에서 합자형태의 선물중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때 홍콩 중개사의 지분율은 49%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관계사 지분 포함). 합자 선물중개회사의 사업범위,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한 조건은 중국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다.

외자증권기업의 외국주주로서 자격을 갖춘 홍콩 증권사와 지점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 중국 증권사는 중국에 합자 증권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동 회사는 중국 증권사의 자회사가 되며, 사업범위는 증권투자자문 업무에 맞추어진다. 이 경우 홍콩 증권사의 최대 지분율은 49%이다. 단, 중국이 승인한 “시범금융개혁”을 위한 일정한 금융개혁실험지역에 있는 합자 증권투자자문회사의 경우 홍콩 증권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홍콩 금융기관은 중국에서 관련 요건에 따라 합자 펀드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때 홍콩 금융기관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할 수 있다.

외자증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홍콩 금융기관은 일정한 금융개혁실험지역에서 관련 요건에 따라 new full-licensed 합자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중국 측 주주는 증권사로 제한되지 않는다. 합자회사에서 홍콩 금융기관들이 보유할 수 있는 총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하이에서는 최대 지분율이 51%이다.

중국의 증권 및 선물업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2) 기타 무역협정

가. 홍콩-뉴질랜드 CEPA 협정 (2013년 발효)

홍콩·뉴질랜드 CEPA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홍콩은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제품의 54%에 대해 관세 철폐(협정 이전 53.1% 무관세), 나머지 46%에 대해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 뉴질랜드 제품에 대한 대 홍콩 관세는 기존과 동일한 0%로, 종전에는 홍콩 당국이 관세를 징수할 권리가 있었으나 이번 협정에 뉴질랜드 제품의 대 홍콩 수출 시 무관세를 보장한다. 또한 양국은 사업가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대지역에 무비자 3개월 입국을 허용함

기존의 외자 형태,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업무의 수량, 서비스 교역가치, 고용직원수,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의 제한이 모두 철폐되었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된 2015년 이전에는 홍콩-뉴질랜드 CEPA 협정이 국내 기업의 뉴질랜드 진출 검토 시 홍콩을 거점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며 뉴질랜드 진출 검토의 용이성으로 검토되기도 하였다.

나. EFTA(유럽 4개국)-홍콩 FTA (2012년 발효)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중국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홍콩과 FTA 체결식을 하였다(2011년 6월). EFTA-홍콩 FTA 협정은 2010년 1월에 시작돼 2011년 3월에 타결되어 약 14개월의 협상기간을 거쳤으며, 국가별로 비준을 마치고 2012년 6월에 발효된다.

EFTA-홍콩 FTA 협정의 범위는 광범위한 편으로 일반재화(공산

품, 가공농산물, 어류, 기타 수산물), 용역,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공정경쟁, 환경, 근로기준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특히, 유럽 측은 서비스산업, 지적재산권 보호, 농산물 보호,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 규정하며 장차 있을 중국과의 FTA의 전제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겼다.

다. 칠레-홍콩 FTA (2014년 발효)

칠레-홍콩 FTA는 2012년 1월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시로 제3차 협상(2012년 8월)까지 단 3번의 협상을 통해 양국 간 FTA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였다. 칠레-홍콩 FTA는 상품 무역, 무역 서비스,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및 공동 작업,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 무역기술장벽, 무역구제, 정부조달, 금융서비스, 환경, 투명성, 관리 및 분쟁 해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상품 무역과 관련해서 칠레 정부는 칠레-홍콩 FTA가 홍콩과의 경제 협력, 상호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며 위생, 기술 규정 및 통관절차를 단순화하고 주요 금융센터와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칠레로 수입되는 약 88%의 홍콩 제품은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할 예정이며 3년에 걸쳐 관세 철폐 가능 제품을 97.7%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나머지 2.3%는 협정에서 제외했으나 최혜국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협정에서 제외된 제품은 곡물, 설탕, 섬유, 의류, 철강 제품, 콘크리트, 타이어와 가전제품 등이다. 칠레-홍콩 FTA를 통해 칠레산 와인, 과일, 구리 등이 중국과 홍콩으로 활발하게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칠레-홍콩 FTA 서비스 협정은 기존 WTO

서비스협정 범위를 넘는 것이 특징으로 홍콩이 전반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큰 금융 서비스, 통신,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회계, 감사 및 회계 서비스,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 컨설팅 등),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환경 서비스, 혁신 기술 서비스 분야 등을 아우르고 있다.

라. 추진 중인 홍콩-아세안 FTA 협정

■ 홍콩-아세안 무역 현황

아세안은 홍콩에 두 번째로 큰 상품 무역 파트너로 2013년 홍콩 전체 무역액의 10%에 달하는 7,500억 홍콩달러 규모의 양자무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홍콩의 20대 교역국 중 ASEAN국가는 총 5개국으로 싱가포르(3050억 홍콩 달러), 태국(1210억 홍콩달러), 말레이시아(1140억 홍콩 달러), 베트남(980억 홍콩 달러), 필리핀(640억 홍콩 달러)이다.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아세안은 홍콩의 4위 서비스 무역 교역 대상지(2012년 기준)으로 양자 서비스 무역규모는 약 141억900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홍콩의 서비스 무역 전체 규모의 8%를 차지한다.

2012년 기준 홍콩의 10대 서비스 교역국 중 ASEAN 국가는 총 6개국으로 싱가포르(약 63억2000달러), 말레이시아(약 23억2000달러), 태국(약 21억9000달러), 필리핀(약 14억2000달러), 인도네시아(약 12억9000달러), 베트남(약 6억5000달러)이다. 홍콩-아세안 서비스 교역은 2008~2012년 사이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주요 서비스 교역은 교통, 여행 등으로 나타남.

■ 홍콩-아세안 투자 현황

2012년 기준 아세안은 홍콩에 약 2624억5000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집행(아세안→홍콩 직접 투자)해 투자대상국 중 홍콩에 6번째로 많이 투자를 했다. 홍콩의 투자대상국 중 상위 20위 안에 드는 유일한 아세안 국가는 싱가포르로 약 2589억7000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홍콩에서 아세안으로의 FDI 금액은 2011년 약 18억1000달러에서 2012년 약 36억1000달러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2005년 태국에서 홍콩-아세안은 양 지역 간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 간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인 투자보장협정(IPPA)에 서명했으며 2013년 홍콩은 미얀마와 IPPA를 체결하였다.

■ FTA 협상 주요 내용

홍콩은 아세안 국가와 2013년 4월 FTA 협의에 동의하고, 2014년 7월 공식적으로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홍콩은 아세안 국가와 중국시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홍콩-아세안 FTA를 통한 홍콩과 아세안 간 더욱 긴밀한 경제 융합은 상호 보완성 및 협동 효과를 가져다주어 아세안과 홍콩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와 관련하여 홍콩은 담배, 와인, 유류계 탄화수소, 메틸 등 특수 소비품 이외의 홍콩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아세안 회원국은 홍콩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한 관세 폐지 혹은 인하에 대한 세부 원칙을 협의할 것이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서 홍콩과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이 될 예정이며, FTA 협상

에서 양측은 홍콩과 ASEAN 간의 상품 무역에 간단하고 투명한 원산지 규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서비스 무역] 2012년 기준 수출입, 소·도매 무역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무역분야는 GDP의 25.4%를 차지했으며 공공행정, 사회 및 개인 서비스분야(16.8%), 금융·보험 서비스분야(15.9%), 부동산 및 전문·사업 서비스분야(11.5%), 교통·저장·우편 및 택배 서비스분야(6.0%), 정보통신 서비스분야(3.5%)로 나타났다.

[투자] 투자시장의 허브인 홍콩은 2012년 FDI 유입·유출이 각각 세계 3, 4위를 차지하였다. 양 지역 간 FTA 투자협정의 목적은 홍콩과 ASEAN 회원국 간의 투자를 촉진·완화·보호·실현하는 것으로 홍콩-아세안은 상호 중요한 투자파트너이며 빠른 경제성장의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식재산권] FTA협정에서 아세안-홍콩 양 측은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WTO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기타] FTA 협정은 비관세장벽의 감소, 개선 무역구제조치,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상호 관심분야의 경제 및 기술 협력 증진 강화 등 작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 FTA 체결 관련 기대 효과

홍콩은 아세안-중국 사이에서 무역 조력자로서의 중심축이 되는 역할을 하고, 아세안 수출업자는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출하기 전에 홍콩을 저위험, 저비용의 테스트마켓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홍콩^{CEPA} 사이의 튼튼한 경제 접점은 중국-홍콩-아세안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홍콩의 법치주의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법독립은 아세안 사업가에게 매력적이다.

상품무역에 있어서 아세안 기업은 홍콩에서 CEPA의 원산지규명 요건에 적합한 상품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CEPA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홍콩은 인건비 절감 추세에 맞추어 아세안 지역으로 공장 이전 시 동남아의 저임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중심지 홍콩은 아세안 기업들이 홍콩에서 사업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세안 기업들 대상 홍콩에서의 자금 모금, 기업 공개 등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금융권 비즈니스 확대,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아시아 지역 경제공동체

■ 아세안의 지역 통합 및 기타 지역과의 통합 활성화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2015년 11월 출범하면, 세계 3위의 인구(6억 4천만 명), 세계 7위의 국내총생산^{GDP}(2조 7,700억불), 연평균 7%대 성장률의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AEC는 인구 6억 이상의 시장을 기초로 유럽연합^{EU}과 같은 단일시장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전문노동인력 등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아세안-동아시아 간의 통합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사이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국가와 기업에 아세안의 통합을 위해 물리적(교통, IT, 인프라), 제도적(교역, 통관 등), 인적(관광, 교육, 문화)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연계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를 열었다. 홍콩은 특히 교통, 통신, 인력과 관련한 연계성 향상 부분에서 앞서 사전준비 역할을 할 수 있다.

2. 한·중 FTA 활용

한·중 FTA는 2014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이 선언되면서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 협상은 2005년부터 시작된 민간 공동연구에서 시작하여 2012년 5월 ~ 2013년 9월에 이루어진 1단계 협상에서 협상지침^{modality}을 확정, 민감성 보호방안과 협정문 구성 요소에 합의하였고, 2013년 11월 ~ 2014년 11월에 이루어진 2단계 협상에서 협정문과 양허안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2015년 6월 1일에는 한·중 FTA 정식서명이 이루어졌다. 양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한·중 FTA는 상품의 경우 일반/민감 품목군과 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품목수 90%, 수입액 85%, 후자는 각각 10%와 15%를 포함하였다. 서비스는 GATS plus 수준으로, 투자는 한·중/한·중·일 투자협정 plus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재권·경쟁·투명성 등이 규범 협상에 포함되었다.

(1) 한·중 FTA의 구성

한·중 FTA는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은 상품무역(관세철폐), 서비스·투자 분야, 비관세장벽 분야이다.

상품무역의 경우 한·중 FTA로 전체 품목의 90% 이상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중국의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불)이고, 우리나라의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1,1272개), 수입액 기준 91.2%(736억불)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DDA plus 수준의 양허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투자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용(收用) 시 보상의무, 송금 보장 등 투자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법률, 건축설계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DDA 수정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를 확보하였다. 금융 및 통신은 중국 FTA 최초로 별도 챕터로 포함하였으며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해 금융당국 간 별도의 협의채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 가장 많은 규범과 협력내용에 합의하였다. 통관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48시간 내 통관원칙을 명시하고, FTA 이행을 위한 ‘관세위원회’ 및 ‘통관 및 무역 원활화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공인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 기간 및 비용축소 협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험인증 관련 애로와 같은 기술장벽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그 외 원산지, 경쟁, 지적권 분야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2)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

한·중 양국은 이번 한·중 FTA에서 포지티브 방식에 따른 서비스 개방을 우선 규정하고 이후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포지티브 방식은 개방하려는 분야를 양허에 모두 열거하고, 열거한 분야에 시장 개방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GATS 방식)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 특정 분야에 대해 시장 개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유보에 기재하고 유보에 기재하지 않은 분야는 개방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NAFTA 방식)이다. 후속협상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고, 개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후속협상에서이기는 하지만 한·중 FTA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 네거티브 방식에 합의한 최초의 FTA이다. 또한 이번 한·중 FTA에서는 금융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독립된 챕터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최초이다.

가. 한·중 FTA 서비스 분야별 양허내용

한·중 FTA는 양측 모두 전반적으로 DDA 수정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하였다. 중국은 DDA 수정양허안에서 완전 개방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한·중 FTA에서도 완전 개방하였으며(6개 업종), DDA 수정양허안에서 개방하지 않았으나 한·중 FTA에서 일부 제한을 두고 개방한 업종(엔터테인먼트)도 있다. DDA 수정양허안에서 제한을 두고 양허한 84개 업종 중 이번 한·중 FTA에서 개선된 업종은 16개이다.

한·중 FTA 양허 업종 중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에 비해 개방 수준이 높은 업종은 법률, 건설, 소매, 환경 일부, 금융 일부,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일부 등 16개 업종과 미개방 업종이었다가 일부 제한을 두고 개방한 엔터테인먼트 1개 업종으로, 총 17개 업종이다.

■ 법률서비스

한국 법무회사는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대표사무소는 이윤 추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중국 내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는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에서 중국 법무회사와 공동 운영 형태로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기 체결 FTA에서 최초로 허용된 것이다. 공동 운영의 기간 동안 양 당사자의 법적 지위, 명칭 및 재정 상태는 독립적이며, 그 각 당사자는 그 자신의 민사책임을 진다. 공동 운영의 고객은 상하이로 한정되지 않고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 운영 하에서 한국 변호사의 중국 법률 사무 취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 내에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와 중국 법무회사는 서로에게 법률 자문가로서 변호사를 보낼 수 있다. 다만, 한국 대표사무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a) 그 법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된 그 나라/지역의 법률과 국제 협약 및 실무에 관한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
- (b) 고객 또는 중국 법무회사에 의하여 위탁된 경우 그 법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된 그 나라/지역의 법률 사무의 취급

- (c) 외국인 고객을 대리하여 중국 법무회사에 중국 법률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
- (d) 법률 사무를 위하여 중국 법무회사와 장기 위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
- (e) 중국 법률 환경의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위탁은 한국 대표사무소가 위탁된 중국 법무회사의 변호사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국 법무회사의 대표는 WTO 회원국내 변호사협회의 회원이며 중국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실무를 한 변호사이어야 한다. 수석대표는 한국 법무회사의 파트너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예, 유한법무회사의 구성원)로 중국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 투자 기업과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된다.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은 다음 5가지 형태의 건설 프로젝트만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 투자 및/또는 원조로 전액 출자된 건설 프로젝트
2. 국제 금융 기관의 용자로 출자되고 용자의 조건에 따라 국제적인 입찰을 통 하여 낙찰되는 건설 프로젝트
3. 외국인 투자가 50% 이상인 중국인-외국인 공동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와 중국 건설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투자가 50% 미만인 중국인-외국인 공동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

4. 중국 건설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중국인 투자 건설 프로젝트는 성(省) 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과 외국 건설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5.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 내에 설립된 건설 기업으로서 상해에서 중국인-외국인 공동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한 요건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위의 5가지 형태 프로젝트 중에서 1~4까지는 기존에도 가능하였으나, 다섯 번째 형태는 이번 한·중 FTA에서 허용된 것이다. 또한 중국은 외국 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 시 중국 내의 건설 실적만 인정하였으나, 한국 건설기업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 지역에서 올린 실적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 **건축·엔지니어링·통합 엔지니어링·도시계획(일반도시계획 제외) 서비스**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투자기업과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외국 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 시 중국 내의 실적만 인정하였으나, 한국 엔지니어링 디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 지역에서 올린 실적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 **유통(위탁중개업(소금·담배 제외), 도매(소금·담배 제외), 소매(담배 제외), 프랜차이즈)**

위탁중개, 도매, 소매 분야에서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소매업에서 3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체인점이 다수 공급자로부터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다음의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신문, 잡지, 의약품, 살충제, 멸칭필름, 가공유, 화학 비료와 중국 WTO 가입 의정서 부속서 2a에 열거된 상품. 한국 체인점 사업자들은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중국 내에 설립된 어떠한 파트너도 택할 자유가 있다.

그간 중국은 중국 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외국계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대형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허용하였다. 한편,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장접근에서 어떤 제한도 없다.

- **환경 (폐수처리, 고형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자연 및 경관 보호,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환경품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조사 제외)**

중국은 DDA 수정양허안에서 폐수, 고형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합작기업 설립만을 허용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순 한국기업(100% 지분)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환경보호 서비스 분야의 경우 환경 서비스에 종사하는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투자기업 형태로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는 허용된다.

■ 보험 및 관련 서비스 (생명·건강·공적연금/사적연금 보험, 손해 보험, 재보험, 보험 부수 서비스)

• 설립형태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지점이나 완전 소유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즉, 설립형태에 제한 없음). 한국의 생명보험업자는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와 50% 외국인 소유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에 대한 중개 및 재보험 중개,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및 재보험 중개의 경우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합작투자 보험회사나 완전 소유 자회사를 중국에 설립한 한국 보험회사는 중국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를 설립한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에 대한 중개 및 재보험 중개,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및 재보험 중개에 대해 중국 내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 사업 범위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일괄보험증권 Master Policy” 보험/지리적 제한이 없는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을 공급할 수 있다. 내국민 대우에 따라, 한국의 보험 중개인은 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중국의 중개인보다 늦지 않게 “일괄보험증권”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외국인과 중국인 고객 모두에게 완전한 범위의 손해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국의 보험업자는 외국인과 중국인에게 건강보험, 개인/단체보험 및 공적연금/사적연금 보험을 공급할 수 있다.

한국의 보험업자는 발급되는 허가의 수에 대해 지리적 또는 수량적

제한 없이, 지점, 합작투자 기업 또는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로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대한 재보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 허가

허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나 허가에 대한 수량 제한 없이 발급되며, 한국의 보험기관설립을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투자자는 WTO 회원국에서 30년을 초과하는 설립 경험이 있는 한국 보험회사여야 한다.
- 해당 보험회사는 중국에 2년 연속 대표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 해당 보험회사는 신청 전년도 말 미화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총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보험 중개인은 제외.
- 보험 중개인은 미화 2억 달러를 초과하는 총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중국은 기존에 보험회사만 중국 내 지점 설립을 허용하였는데, 한·중 FTA에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중개업의 중국 내 지점 설립을 허용하였다.

■ 증권업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가진 한국 증권기관은 모든 중국의 증권거래소의 특별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증권투자펀드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최대 49%까지인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규제요건 및 조건을 충족하는 합작투자 증권회사는, 승인을 받을 때 증권중개, 자기자본거래 및 자산관리를 점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증권사의 외국인지분율을 1/3로 제한하였으나 한·중 FTA에서 지분율 상한이 49%로 완화되었다.

■ 엔터테인먼트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를 대만과 홍콩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에 개방하였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공연중개기관이나 공연장법인회사를 합작투자회사나 합영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때 외국인 지분율은 49% 이하여야 하며, 합영회사의 경우 중국 측이 의사결정권을 보유한다. 공연중개기관은 상업적 공연 참여가 가능하며, 공연장법인회사는 상업적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3. 한국의 홍콩 활용 시사점

(1) 중국-홍콩 CEPA의 활용

상품교역과 관련해서 한국의 홍콩 경유 대 중국수출 주요 품목은 대부분 저율 관세품이므로 홍콩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 기업은 시계, 보석, 가죽 제품 등 고율 관세품에 대한 진출을 통해 CEP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홍콩 CEPA를 이용해서 서비스 교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홍콩의 서비스공급자(Service Supplier)라는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한국기업의

동 서비스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홍콩회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과 제3국 기업에 비해 홍콩기업이 누리게 되는 상대적 이익을 비교 검토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홍콩은 CEPA 적용에도 제3국 기업에 대해 차별이 없으며 오히려 외국기업의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므로 CEPA가 주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 발굴이 필요하다. 중국-홍콩 CEPA에서 양허분야와 개방 수준을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 FTA와 비교하여 기체결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부분들을 파악하여 서비스 무역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물류 및 유통 서비스 분야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홍콩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진출이 유리하며, 한국 제조업체와 관련된 업무가 상대적으로 해당지역에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문화산업(영화 배급, 콘텐츠 판매 유통 등) 분야에서 홍콩과 협력하여, 중국 내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을 시험적인 시장(테스팅 마켓)으로 여기고 우선적인 진출노력을 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지역을 확장하거나 투자수준을 확대해 가는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2) 한중 FTA의 활용

한중 FTA 서비스 협정은 서비스 관계 법령의 입법 및 개정 시 충분한 사전 예고기간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법령에 대한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기업의 대 중국시장 진출 관련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최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실제 서비스산업에서의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분야에서의 한중 FTA는 양국간 서비스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증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즉, 한중 FTA로 상품 교역량이 증대되면 이에 수반한 서비스 교역·투자 역시 증가하는 부차적인 효과가 발생하며, 운송서비스, 항만서비스, 도매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의 국경 간 교역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시장은 서비스 공급 및 대가의 정당성 차원에서 중국에 비해 진출이 양호하다. 따라서, 진출 방법에 있어서도 직접투자외에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홍콩-아세안 FTA의 시사점

홍콩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의 대다수는 최종적으로는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되므로 홍콩-아세안 FTA를 통해 홍콩은 한국제품을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홍콩-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해 아세안 개별국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아세안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진출 유망업종 검토 및 진출 전략

1. 진출 유망업종 검토

(1) 인프라 관련 사업

기관에 따라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향후 아시아 인프라 시장을 추계한 통계들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아시아 시장은 산업화Industrialization, 도시화Urbanization, 연결성Connectivity 등 3대 수요 요인 있다. 그러나,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수익률은 높지만,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들이라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투자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구체화되고 추진될 경우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업이 주요한 수혜 업종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되는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도 관련이 클 것으로 보인다.

(2) 유통/물류 관련 산업

아시아 국가들이 발달된 교통물류 인프라로 연결성이 강화되고 아시아 지역 구가들간의 FTA 혹은 지역경제공동체 논의가 확대되면 무역규모의 증가에 따른 물류와 유통 분야의 성장과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ICT와 결합한 유통/물류 서비스업의 발달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 고고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화물주와 차주를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재 홍콩, 싱가포르 등 4개국 12개 도시에서 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3) 화장품 산업

아시아 지역으로의 ‘한류’ 열풍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 관광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구매에 이어 온라인 시장 및 현지 유통채널이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4) 프랜차이즈 산업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경제발전에 따른 중산층 형성 및 도시화의 진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글로벌 브랜드에 대

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홍콩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중요한 쇼케이스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엄청난 규모의 중국 관광객이 홍콩에 유입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 홍콩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낳으면서 이런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홍콩은 서방 프랜차이즈 기업에게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아시아 프랜차이즈 기업에게는 아시아 및 서방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2. 화장품 산업

(1) 화장품 산업 현황

가. 화장품 시장 규모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2,495억 달러(2013년 기준)이며, 지역별 시장규모는 유럽이 936억 달러로 가장 크며, 이어서 아시아/태평양 786억 달러, 북미/중남미 708억 달러 순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화장품산업 시장규모(2013년 기준)는 71억 달러로 세계시장 10위로 전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했다. 제품별로는 스킨케어 시장이 788억 달러(31.6%)로 가장 큰 규모이고, 헤어케어(20.1%)와 개인위생(16.8%) 순으로 나타났다.

나.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입 실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장품 생산액은 2013년 7조 9,721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1조 4,122억 원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하였고, 수입은 1조 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다. 화장품 수출입 시장에서 뚜렷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2012년에 흑자로 전환된 이후 흑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상위 10개국 수출은 11억 5,888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89.9%에 해당하고 있다.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2억 8,744만 달러 규모이다. 그 다음은 홍콩(2억 6,692만 달러), 일본(2억 2,020만 달러), 미국(9,279만 달러)등 순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화장품 수출현황

국가명	2013년 금액	점유율	2014년 금액	점유율	증감률
중국	300,693	24.4	581,708	31.0	93.46%
홍콩	215,716	17.5	410,752	21.9	90.41%
미국	106,251	8.6	154,130	8.2	45.06%
일본	151,106	12.3	144,727	7.7	-4.22%
대만	93,896	7.6	125,201	6.7	33.34%
태국	79,646	6.5	86,982	4.6	9.21%
싱가포르	41,172	3.3	47,945	2.6	16.45%
말레이시아	39,573	3.2	44,941	2.4	13.56%
베트남	38,191	3.1	43,896	2.3	14.94%
러시아 연방	23,631	1.9	37,628	2.0	59.23%

자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다. 화장품 산업 해외투자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해외투자 규모(2013년)는 신고금액 기준 7,435만 달러, 투자금액 기준 6,369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투자액이 6,901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92.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북미 지역으로 513만 달러 투자가 이루어 졌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494만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그 다음은 싱가포르(1,562만 달러), 홍콩(1,069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목적별로 살펴보면, 신고건수 기준으로 현지시장진출(90건)이 가장 많으며, 수출촉진(18건)이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라. 아시아 화장품 시장 분석

아시아 주요 국가 중 화장품 시장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며 그 다음은 일본,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화장품 시장규모를 화장품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전체 시장규모는 중국이 가장 크지만 메이크업 부문과 남성용 제품에서는 일본이 더 규모가 크다.

2013년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도가 18%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베트남(17.45%), 인도네시아(16.90%)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스킨케어 제품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스킨케어 비중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10개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규모가 1억 5631만 달러로 가장 크다. 한편, 국가의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11.44%)이다.

(2) 화장품 산업의 홍콩활용

가.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

첫째, 이른바 ‘한류’ 열풍이 아시아 시장의 화장품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이 화장품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출 및 내수시장에서 중국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류 열풍 및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늘고 미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산 화장품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둘째, 한중 FTA 타결로 화장품 수출 제1위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중국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으로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GMP 인증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추진, GMP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의약외품 중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의 전환 등 화장품분류 체계 국제 조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 간소화, 중국 등 주요 수출국간 정례 교류협회 추진, 한국 화장품 산업의 해외 시장 홍보 등이 진행되고 있다.

넷째,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화장품 유통에서 백화점과 방문판매, 화장품 브랜드숍 등 전통적 유통채널의 비중이 감소

하는 반면 소셜커머스를 포함한 온라인 쇼핑, 관광객 대상 면세점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아울러, 편집숍, 멀티숍 등 다양한 유통채널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다섯째, 국내 유통업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소셜커머스 및 모바일 시장 성장이 두드러졌다. 또한 해외 제품 쇼핑을 위한 해외직구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나. 홍콩시장 특성

한국무역협회 홍콩 화장품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홍콩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2년 대비 24.3% 증가한 21억4900만달러(USD)로 추정되는데, 홍콩 내 자체 생산량은 9500만 달러로 전체 홍콩 시장의 4.4%에 불과하며 수입 제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³⁾ 홍콩 내 화장품 제조업체는 중저가형 제품을 생산하는 90개사에 불과한 반면 화장품 수출입업체는 1660개사로 18.4배나 많다.

또, 수입된 화장품은 마카오, 중국, 미국, 일본 등지로 재수출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홍콩의 화장품 수출입업체는 중국 본토, 미국, 마카오, 일본, 동남아, 유럽 등지로 판매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에 재수출된 화장품(세면용품 포함)은 117억 홍콩달러(HKD)에 달하고 있다. 홍콩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는 2013년에 프랑스가 5억82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 한국은 1억9600만 달러로 중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3) 홍콩무역발전국(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013년

● 한국의 대홍콩 화장품 수출 실적

(단위: 천 달러,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월
수출액	17,287	21,278	26,007	29,371	39,433	54,811	86,958	127,998	191,251	106,519
증가율	59.8	23.1	22.2	12.9	34.3	39.0	58.7	47.2	49.4	53.8

주: HS 코드 3304.99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에 따른 중국인 개인관광객의 홍콩 입국 허용 및 화장품 무관세 혜택 덕분에 관광객 수와 화장품 교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홍콩 관광청에 따르면 2012년 홍콩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의 28%가化妆품을 구매했으며, 이 중에서 71.8%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다. 진출전략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현황 및 해당국가의 시장현황, 수입동향, 시장의 경쟁환경 및 유통채널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국가별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홍콩은 화장품산업에서 중국 진출의 통로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별다른 규제가 없는 특유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위생허가가 까다로워지는 중국 대신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홍콩에 미리 진출함으로써 중국인들의 구매 성향 등 중국 시장의 정보를 파악하려는 해외브랜드들의 전략적인 입점에 따라 각 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유통채널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홍콩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화장품 구매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

수의 브랜드 제품을 한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뷰티박스 Beauty Box’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제품 수요와 관련해서 한국 화장품 중에서는 특히 항노화 Anti-aging, 미백 Whitening 등 특정 기능이 강조된 기능성 화장품 제품이 홍콩 소비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소비자들이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울러, 천연재료 또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시장 진출의 진입장벽과 관련해서는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없고 부가가치세, 물품세도 없다는 특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홍콩 시장시장 진출을 위해 획득해야 하는 필수 화장품 인증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원료 규정에 있어서 의약품 포함 유무에 따라 다르게 관리되는데, 미국, 호주, 일본, 기타 국가의 규격인증 기관이나 동등한 유사기관이 정한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 기준에 적합할 경우 홍콩에서도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홍콩을 통한 중국 및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경로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Type 1: 에이전트 및 수입상을 통한 간접 수출

홍콩 화장품 시장 진출 시 가장 선호되는 유통방식으로 홍콩은 이미 다양한 국적의 화장품 브랜드가 진출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이며, 높은 임대료 때문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유통채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숍인숍’ 형태의 대표적인 유통채널인 드럭스토어(Drugstore)는 저

가부터 고가까지의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특징 때문에 진입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현지 에이전트가 확보한 유통망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

· Type 2: 뷰티소매점의 PB상품으로 직접 진출

다수의 해외 브랜드가 경쟁 중인 홍콩시장에서 에이전트 혹은 유통상의 유통망을 이용하지 않고는 드럭스토어, 뷰티 전문가 숍과 같은 뷰티소매점으로 직접 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에이전트 없이 직접 홍콩 뷰티소매점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각 유통채널의 PB(Private Brand) 상품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쌓을 수는 없으나 현재 구축된 유통업체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프랜차이즈 산업

(1) 아시아 지역, 프랜차이즈 시장 부상

2014년 기준 전 세계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약 38억 달러이고, 국가별 프랜차이즈 시장점유율은 미국 기업이 63%, 아시아 기업이 16% 수준이다. 현재 미국 기반 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향후 아시아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부 서유럽의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은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한편으로 경제발전으로 중산층이 점차 형성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70개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87%가 향후 3년 이내에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콩(46%), 싱가포르(36%), 말레이시아(33%)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진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대단히 크다. 한때 중국은 사기 사건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부재, 가맹점주(franchisee)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가맹본부(franchisor) 등의 문제로 인해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이 진출하기 꺼려하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여전히 중국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현재 중국에는 4,000여개의 자국 기반 브랜드(local brands)가 출현하였다. 중국의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85%가 자국 기반 브랜드이고 해외 브랜드는 15% 정도이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중국 시장이 결코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가장 큰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HKTDC에 따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로 이는 미국이 3%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 아시아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홍콩의 역할

홍콩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중요한 쇼케이스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엄청난 규모의 중국 관광객이 홍콩에 유입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 홍콩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낳으면서 이런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홍콩은 서방 프랜차이즈 기업에게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아시아 프랜차이즈 기업에게는 아시아 및 서방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HKTDC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70개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과 80개 홍콩 및 중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HKTD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 대만, 북미, 유럽 및 ASEAN 등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홍콩은 서방 프랜차이즈 기업의 아시아 진출에서 테스트 마켓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미국의 맥도날드와 KFC가 최초로 진출했던 곳 중 하나가 홍콩이었다. 현재에도 홍콩은 전 세계 기업들의 테스트 마켓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진출해 있다. HKTDC에 따르면, 홍콩 내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로컬 브랜드 54%, 해외 브랜드 46%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KOTRA 등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 특히 아시아 진출에서 홍콩을 교두보로 삼는 것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은 프랜차이즈 쇼케이스로서 역할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서양과 동양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서방 브랜드는 아시아로 아시아 브랜드는 다른 아시아 지역 및 서방으

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홍콩은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엄청난 규모의 중국 관광객 유입, 국제 전시 및 엑스포 등을 통한 정보 교류의 장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신제품과 신규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마켓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신생기업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에게 홍콩은 제품 마케팅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HKTDC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신규 비즈니스 컨셉이나 신제품을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마켓으로서 홍콩의 역할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점 만점에 5.56점). 그리고 국제 프랜차이즈 전시 및 엑스포 개최장소로서의 역할(5.37점)과 아시아의 시장/비즈니스 정보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4.74점)도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홍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들이다.

둘째,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상당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세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인데 그 절반인 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중국으로 바로 진출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리, 중국 관료들과의 협상, 라이선스 신청, 수입조건 충족, 공급사슬 관리, 중국 현지 소비자의 욕구와 취향 파악 및 충족, 중국 지역 산업계와의 교류 등의 문제에 직면한다. 홍콩 기업들은

중국에서 수십 년간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중국과 홍콩은 체제는 다르지만 일국이기 때문에 홍콩 기업이 이런 문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홍콩 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한다면 중국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HKTDC가 70개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1%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홍콩 기업을 파트너로 임명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홍콩 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하지 않은 기업들 중 82%는 앞으로 홍콩 기업을 마스터 프랜차이지^{Master Franchisee}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대형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때에는 경험이 풍부한 현지 기업을 Master Franchisee로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Master Franchisee 계약이란 프랜차이즈 본사인 프랜차이지^{Franchisor}가 일정한 로열티를 받고 해당 지역 내 독점사업권을 주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로열티를 주고 독점사업권을 갖는 기업을 Master Franchisee라고 한다. Master Franchisee는 Sub-franchisee(가맹점)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로열티를 받는다.

셋째, 홍콩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 HKTDC의 70개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회계/세무(85%), 법률(76%), 시장/소비자 조사(66%), 제품 현지화(53%), 프랜차이즈 중개(51%), 제품 및 원재료 수입(51%) 등과 관련되는 서비스이다. 홍콩은 천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을 정도로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회계, 법률, 금융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며, 이는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유리하다.

넷째, 홍콩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에 장벽이 크다면 홍콩은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역할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홍콩은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적은 지역이다. 홍콩에서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기준이 되는 법률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프랜차이즈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자 등록, 라이선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또한 외환거래 규제, 독점금지법, 외국인 자본참여 또는 내국인 경영참여 등에서도 규제가 없다.

(3) 홍콩 진출시 고려사항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홍콩을 활용하려면 먼저 홍콩에 진출해야 한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홍콩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파트너 선정, 홍콩의 관련 법률 및 정책 조사 등 여러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자.

첫째는 적절한 현지 파트너 선택이다.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에 있어서 적절한 현지 파트너를 찾는 일은 비즈니스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적정 파트너를 찾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파트너는 홍콩 시장을 잘 이해하고 홍콩의 비즈니스 관행과 법적 규제

등에 능통한 개인이나 기업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 franchisee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현지 정착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HKTDC에 따르면 홍콩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 franchisee을 찾는 경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박람회나 전시가 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알선소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62%로 2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홍콩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한다면 박람회 및 전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알선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상표 및 지식재산권 IP 등록이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표 및 IP 등록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중국은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해당 상표를 아무리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중국에 진출할 예정인 브랜드의 경우 중국에서 출원을 하지 않아 나중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홍콩 파트너를 선정할 때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문제 등 법적 이슈를 잘 다룰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최신 법률 및 정책의 확인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홍콩에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기준이 되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자 등록, 라이선싱, 지

식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입법이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로 이뤄지고, 법의 특성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시로 법 관련 이슈를 확인하는 것이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중국 대륙으로 진출 시 법적 관련 이슈에 부딪힐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자격을 갖춘 고문 및 협력사를 통해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적정한 현지화 전략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해외 진출 및 확장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잘못된 현지화 전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고객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에 따른 부적절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은 불필요한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 일례로 음식의 경우 한국인과 홍콩인의 입맛이 다르므로 사전에 무료 시식 이벤트 등을 통해 현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브랜드 현지화 단계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현지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는 시장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이다. 시장 정착 초기 단계에서의 시장조사는 정착을 위한 준비단계일 뿐이다. 초기 정착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후의 시장조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고객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하며,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을 강조하거나 한류 스타가 광고

하는 물품을 취급함으로써 한류 편승 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한류에 의존할 경우 시장 흐름에 뒤쳐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류’, ‘한류스타’ 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브랜드 및 제품 자체를 통해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장기 비즈니스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는 홍콩의 고액의 상가 임차료에 대한 대비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로 없고 해외 브랜드의 현지 진출에 있어 매우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이지만 홍콩으로의 사업 진출 시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고액의 상가 임차 비용이다. 홍콩의 상가 임차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장사가 잘 되는 경우 일부 건물주는 임차 계약 연장기간 도래 시 약의적으로 임차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 후 진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안정적인 임차료를 담보해주고 프랜차이즈 기업은 이윤의 일부를 부동산 개발업체와 나누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 기업의 진출 효율화 방안

(1)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 차별화

중국진출방식은 크게 직접투자와 홍콩을 경유한 간접투자로 나뉜다. 이 두 가지 진출방식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세심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과실송금의 측면에서는 간접투자 방식이 조세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나 외환규제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는 홍콩을 이용한 Financing이나 홍콩과 중국 간 CEPA 활용을 통한 사업진출(예, 극장사업 또는 내륙 항공 운수 인허가)에 유리한 부분도 있으므로 사업성격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홍콩의 중개무역 활용

홍콩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의 대다수는 최종적으로는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되므로 홍콩-아세안 FTA를 통해 홍콩은 한국제품을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홍콩-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해 아세안 개별국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아세안으로의 진출이 기대해 볼 수 있다.

(3) 일대일로와 한중 FTA의 연결점 활용

전문가들은 한국은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와 미국 주도의 TPP의 접점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FTA는 이를 제

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선제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대일로 5대 중점협력사항에 따른 한중 FTA의 연결점을 파악하여 해당 산업의 활용을 통한 시장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한중FTA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한중FTA를 활용한 양국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중국이 기존에 해외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건설하여 온 해외경제무역합작구나 해외산업단지 조성사업 등도 일대일로 구상과 맞물려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대일로 5대 중점협력사항과 한-중 FTA 연결점

5通	구체적 방안	한-중 FTA
정책 협력 (政策沟通)	정부간 협력을 통한 정책적·법률적 차원에서의 협력기제 마련	한중FTA 공동위원회를 통한 정책·법제도 협력기제 확보
교통인프라 구축 (道路联通)	중국과 각국을 연결하는 교통·해운·항만·에너지 인프라 구축	철도(TCR/TSR), 해운(열차페리), 복합운송(페리화물차운송), 항만(렌윈강) 연결협력
무역 편리화 (贸易畅通)	자유무역지대 건설, 국경간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무역 활성화, 검역 및 인증·표준 협력	One-Stop 통관 및 TBT 시범사업 추진 및 추가이행협정 체결, 전자상거래, 신흥산업 협력 강화, 4대 PFTZ와 한중FTA 중한산업단지·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 활용 시범사업
금융 협력 (货币流通)	실물경제기반 금융·통화 협력, 통화스왑 규모 및 결제 범위 확대, 아시아 채권시장 개발, 해외기업의 중국내 채권발행	금융서비스분야 협력과 금융특구 조성을 통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후속협상의 개방폭 확대,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기금 활용
민간 교류 (民心相通)	유학생 지원, 관광협력, 실크로드관광 상품개발, 출입국간소화	자연인이동, 관광협력, 경제협력 분야 강화

자료: CSF중국전문가포럼

VI. 참고자료

홍콩의 역사, 홍콩 기본법 주요내용, 마카오 카지노산업



홍콩의 역사

- 홍콩은 19세기 작은 어촌마을로 세계역사에 등장하고, 제1,2차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남경조약(홍콩섬 할양), 1차 북경조약(구룡반도 남부 할양), 2차 북경조약(구룡반도 북부, 신계지 및 부속도서 조차)에 의거, 영국에 할양 (또는 조차) 되어 영국 지배를 받았다.
- 1941-45년 일본에 점령되기도 했으며, 1949년 중국의 공산화 이후에는 중국의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등 중국 역사적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1960-70년대는 인구증가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도 했다.
- 1984년 ‘홍콩문제에 관한 중-영 선언’에 따라 홍콩의 반환이 결정되고, 1997년 7.1 자정에 중국으로 반환, 홍콩특별행정구(HKSAR)가 설립되었다.
- 주권반환 이후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국방, 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고도자치를 유지하는 특수한 지위를 향유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홍콩'의 유래

홍콩(香港)이 Hong Kong으로 불리면서 세계역사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초반으로, 당시 중국에 주둔하던 영국군(James Bremer 사령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 약 7,000명의 어촌마을이었다.

그러나 홍콩은 그 이전에도 중국 역사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남송이 푸젠(Fujian, 福建)으로 천도한 이후, 남송의 마지막 왕이 홍콩 란타우섬(Lantau Island, 大嶼山)에서 즉위식을 가졌다고 하고(1278년), 또한 동 마지막 왕을 지킨 남송의 장군총이 홍콩에 남아있기도 하다.

'홍콩'이란 명칭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홍콩섬이 향을 만드는 데 쓰이는 향나무를 중국본토로 실어 보냈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홍콩의 역사

(1) 아편전쟁과 영국의 식민지화 (1842년-1941년 11월)

19세기 중반 중국에서 차(茶), 비단, 도자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 대량의 금은(金銀)을 지불하던 영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동인도회사를 이용,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내 아편중독자수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한편, 아편 수입을 위한 은(銀)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당시 은 본위제였던 청나라(淸朝)의 경제 근간

이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됐다.

결국 청나라는 아편거래 금지명령을 내리고 아편을 몰수하여, 바다에 버리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영국정부가 대응함에 따라, 1839년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하였다. 동 전쟁 결과 1842년 8월 29일 남경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되고 홍콩섬이 영국에 영구 할양되었다.

영국은 이후 청나라의 영국선박 애로우^{Arrow}호 압류사건을 빌미로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 승리를 거둔 후, 1860년 북경조약(北京條約)을 체결하여 구룡(Kowloon, 九龍)반도의 남부지역을 영구 할양받았다. 이후 1898년 제2차 북경조약을 체결, 카우룽반도 북부와 신계^{New Territories}지역 및 235개 부속도서를 99년간 조차(租借)하였다.

영국은 홍콩 식민통치 초기에 학교와 교회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1887년 설립된 Hong Kong College of Medicine for Chinese (홍콩대학교 의대의 전신)의 졸업생중 Sun Yat Sen(孫中山)은 1911년 중화민국 설립 혁명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2) 일본의 점령 (1941년 12월-1945년 8월)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신속히 중국 연안을 봉쇄하고, 영국과 미국의 주요 군수보급로였던 홍콩으로 군사행동을 확대하였다.

일본은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카이탁(Kai Tak, 啓德)공항(홍콩의 舊국제공항)을 폭격하면서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강행, 같은 해 12월 홍콩을 점령하여 1945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홍콩을 통치하였다. 동 기간 동안 식량부족과 이민 등으로 인해 홍콩 인구가

1940년대에 150만 명에서 약 60만 명으로 격감하기도 하였다.

(3) 중국 공산화 및 대륙의 정치적 격변기 (1946년-1972년)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시기에 내전, 공산화 등 정치적 혼란을 피해 수많은 중국인이 홍콩으로 유입되어 홍콩 인구가 1945년 약 60만 명에서 1960년에는 약 3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상하이(上海)에 기반하던 외국기업들도 홍콩으로 대거 이전하기도 하였다.

홍콩은 이와 같이 1950년대 후반부터 대량 유입된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가공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홍콩이 이전에는 중계항에 머물렀으나, 한국전쟁 발발 당시 중국 본토가 UN의 통제로 해상이 봉쇄되면서 홍콩은 중개무역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한다.

1960년대에도 중국의 대약진운동 실패, 문화혁명 후유증 등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어, 상당한 인구증가를 기록(1960년 300만 명에서 1981년 약 510만 명)했으며, 홍콩경제는 1960-70년대에 전환기를 맞이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4) 홍콩 주권이양 교섭 및 홍콩 기본법 마련 (1972년-1997년)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서방간의 관계는 해빙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1976년 마오저둥(毛澤東)의 사망 이후 실용주의자 덩샤오핑(鄧小平)의 등장으로 1979년 Mur-

ray 홍콩 총독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홍콩과 중국은 관계정상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1979년 홍콩 총독과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의 면담에서 홍콩의 주권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1982년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는 홍콩 주권 회복 선언을 하는 등 홍콩에 대한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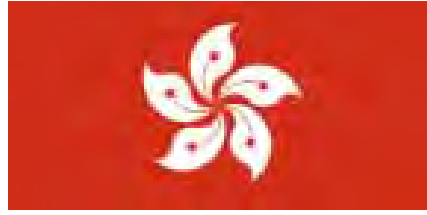
1982년 9월 영국 마가렛 대처 Margaret Thatcher 수상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홍콩의 반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중-영 협상이 개시된 후, 1997년 6월 30일 자정을 기해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반환한다는 “홍콩문제에 관한 중·영 공동선언”이 1984년 중국 자오쯔양(趙紫陽) 총리와 영국 대처 수상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5)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1997년)

1997년 7월 1일 0시에 홍콩 전역에서 영국 국기와 홍콩의 영국 식민기인 정청기(政廳旗)가 하강하고, 중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와 홍콩특별행정구기(特別行政區旗)가 게양됨으로써 홍콩은 156년간의 영국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중국의 일부인 홍콩특별행정구(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이하 ‘HKSAR’)로 탄생하였다.



주권반환 이전 홍콩기



주권반환 이후 홍콩기

홍콩특별행정구의 초대 행정수반에는 선박 재벌인 통치화(Tung Chee-hua, 董健華) 동방해운(주) 회장이 1996년 12월 11일 선출되어 1997년 7월 1일 취임하였다.

(6) 주권반환 후 18년 (1997년-현재)

주권이양 이후, 1990년 4월 홍콩특별행정구의 체계와 운영골격을 마련하기 위한 중국 본토 및 홍콩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러 홍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콩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중국 중부는 홍콩 《기본법》에 따라 1국가 2체제(一國兩制),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港人治港), 고도자치(高度自治) 등 향후 50년 간 자본주의 체제의 불변을 보장하였다.

홍콩은 현재까지 홍콩 《기본법》과 ‘일국양제’ 원칙하에 국방, 외교를 제외한 행정, 입법 및 사법권을 향유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의 대홍콩정책은 초기 ‘방임’에서 최근 행정수반 선출문제, 언론보도, 홍콩-본토간 출입국 정책 등 방면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증대하는 추세라는 평가도 있다.

2014년에는 홍콩내에서 행정수반 직선제 등 홍콩의 정치개혁 요구가 거세어 지면서, 홍콩 학생연합(학련), 센트럴점령 시민단체, Scholarism 등 학생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홍콩 중심지역을 79일간 장기 점거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동 시위의 직접 원인은 2017년 홍콩 행정수반 직선제 선거에 대해 중국이 제시한 방안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에 동 제안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으나, 심층적으로는 홍콩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 심화와 중국인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 취업기회 감소, 부의 편중 증대 등에 대한 홍콩인들의 불만 고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홍콩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 점령시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고, 2015년 홍콩 입법회에서 홍콩 정부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이 부결되면서 2017년 홍콩 행정수반 직선제는 일단 실현이 보류되었다. 결국 홍콩의 정치개혁 및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02

홍콩 기본법 주요내용

1. 기본 원칙

-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 (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고도의 자치를 부여하고,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입법 및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을 향유 (제2조)
- 사회주의체제 및 정책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며, 기존의 자본주의체제와 생활양식은 변경되지 않고, 홍콩특별행정구는 사유재산권을 보호 (제5~6조)
- 보통법, 형평법, 입법의회 제정법률 부수 법령 및 관습법 등 기존의 홍콩법령은 종전과 같이 계속 유효 (제8조)
 - 국기, 국가, 국경일, 국가휘장, 영해법, 국적법 등 예외적으로 중국법의 적용(18조 및 제3부속서)

- 중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는 홍콩특별행정구 집행부, 의회 및 사법부에 공식언어로 사용될 수 있음 (제9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지역기와 지역휘장 사용 가능 (제10조)

2. 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와의 관계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역 행정구역으로써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 (제12조)
-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관련 외교·국방을 책임 (제13~14조)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홍콩에 대외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대외업무를 승인
 -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내 공공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홍콩 주둔 중국 인민해방군은 홍콩 내 사안에 대해 간섭하지 않음
-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은 중앙정부가 임명 (제15조)
- 홍콩특별행정구 제정 법률은 기록을 위해 전인대 상무위에 보고 (제17조)
 - 중앙정부 관련 사항으로 전인대 상무위가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법률은 반려 및 무효화 가능
- 홍콩특별행정구는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적 사법권을 보유하지만, 홍콩 사법부는 국방과 외교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제19조)

-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업무에 간섭하지 아니함 (제22조)
 - 홍콩특별행정구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의 동의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홍콩특별행정구는 북경에 사무소 설치 가능
 - 중국 본토인의 홍콩 입경시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분리, 선동 및 반란 또는 국가 기밀 누설 금지와 해외 정치조직 또는 단체의 홍콩내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 (제23조)
- 홍콩 거주자는 법 앞에 평등 (제25조)
- 홍콩 영주권자는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유 (제26조)
- 홍콩 거주자는 언론, 출판, 결사 및 표현의 자유와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참여할 자유를 보유 (제27조)
- 홍콩 거주자는 임의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및 감금을 받지 아니하며, 임의의 불법적 수색을 받지 아니함 (제28조)
- 홍콩 거주자는 사생활 보호와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가 보장 (제30조)
- 홍콩 거주자는 양심의 자유가 보장 (제32조)
- 홍콩 거주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 (제33조)
- 홍콩 거주자는 학문 연구, 예술 및 문화 활동의 자유가 보장 (제34조)
- 홍콩 거주자는 변호사 선임의 자유,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 (제35조)
- 홍콩 거주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

(제36조)

- 중앙정부 관련사항으로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보유 (제158조)
- 기본법의 개정권한은 전인대가 보유 (제159조)

3. 정치구조

(1)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수반(Chief Executive)

-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대표자로서 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위 (제43조)
-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은 홍콩특별행정구내 선거 또는 협의 Consultation 을 통해 선출되고 중앙정부가 임명 (제45조)
-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의 임기는 5년, 1차 연임 가능 (제46조)
-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은 입법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홍콩특별행정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입법회에 이를 반려할 수 있으며, 입법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해 법률을 의결할 경우 이를 공표하여야 함 (제49조)
-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 Executive Council 는 행정수반의 정책결정을 보좌 (제54조)
-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 Executive Council 구성원은 홍콩정부 주요인사, 입법회 의원 및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며 행정수반이 임명 (제55조)

- 홍콩특별행정구 염정공서(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및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행정수반에 대해 책임을 짐 (제57~58조)

(2) 집행부(The Executive Authorities)

- 홍콩특별행정구 홍콩정부가 집행부 역할을 수행하며, 홍콩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보유 (제59~62조)
 - 정책결정과 집행, 행정사무의 수행, 중앙정부가 승인한 대외업무 수행, 예산안 편성 및 결산
 - 법률안 마련 및 제안, 하위규정 입안
- 홍콩특별행정구 법무부는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 등에 대해 별도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 (제63조)

(3) 입법회(The Legislature)

-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며, 입법회는 홍콩영주권자인 중국 시민으로 구성 (제67조)
 - 입법의원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국적을 소지한 홍콩 영주권자도 입법의원으로서 선출이 가능
-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선출방식은 선거에 따르며,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직선제(Universal suffrage)로 이행해 나갈 것임 (제68조)
-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보유 (제73조)

- 기본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제정, 수정 및 폐기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 및 승인
- 정부의 조세 부과 및 지출 승인
- 행정수반의 시정연설 청취 및 토론
- 정부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토론
- 종심법원 및 고등법원 법관에 대한 임명 등에 대한 승인

(4) 사법부(The Judiciary)

-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Acts of State)에 관할권이 없음(제14조)
- 홍콩 반환 이전 홍콩에서 통용되었던 사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제81조)
-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독립적으로 어떠한 간섭 없이 사법권(Judicial power)을 행사 (제85조)
-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종전에 적용된 형사상, 민사상의 사법적 절차는 지속적으로 유지 (제87조)
 - 적법절차를 거쳐 체포된 경우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유
- 홍콩특별행정구 법관은 행정수반이 법률전문가, 법관 및 저명인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직무수행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만 해임이 가능 (제88~89조)
-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여타 Common Law 국가로부터 충분한

- 전문성을 보유한 법관 임용이 가능 (제92조)
- 중앙정부의 지원 또는 승인을 받아 홍콩특별행정구는 외국정부와의 상호 사법공조지원협정 체결이 가능 (제96조)

4. 경제분야

(1) 재정 · 금융

-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시행 (제106조)
 - 홍콩정부의 재정수입은 홍콩특별행정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음
 -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과세하지 아니함
-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간결하고 낮은 세율 등의 조세정책을 유지 (제108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법적 환경을 조성 (제109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통화 및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제110조)
- 홍콩달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정화폐로서 계속 유통되며, 홍콩달러는 100% 준비기금에 의해 그 가치가 보장 (제111조)
- 외환의 자유로운 유출입에 대한 통제가 없으며, 홍콩달러는 자유롭게 태환이 가능한 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 (제112조)

(2) 무역

-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free port} 지위를 유지하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품과 자산, 자본의 이동을 보장 (제114~115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관세지역을 유지 (제116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원산지 증명 발급 가능 (제117조)

(3) 해운 · 민간항공

- 홍콩특별행정구는 기존의 해운 관리 및 해운과 관련된 규제 체제를 유지 (제124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의 승인하에 선박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Hong Kong, China'명의로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 (제125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국제적 항공 중심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조치를 시행 (제128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기존의 민항관리제도를 지속하며, 항공기 등록체제를 유지 (제129조)
 - 외국국적 항공기의 홍콩특별행정구 접근은 중앙정부의 특별허가 필요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의 승인하에 기존 민간항공서비스협약 유지, 수정 및 신규협약 체결이 가능 (제133조)

5. 교육 · 문화 · 체육 · 종교 · 노동

-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교육시스템 및 교육정책을 수립 (제136조)
-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모든 교육기관은 독자적인 자율성과 학문추구의 자유를 향유 (제137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과학 · 기술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연구개발을 지원 (제139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창의와 혁신 촉진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 (제140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종교조직에 간섭하지 않으며, 종교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제141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내의 전문직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 (제142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 (제145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노동법을 제정하고 노동정책을 시행 (제147조)
- 홍콩특별행정구 내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전문직, 의료, 보건, 노동, 사회사업 등의 민간단체는 'Hong Kong, China' 명의로 해외 유관단체와 협력이 가능 (제149조)

6. 대외관계

-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홍콩 특별행정구와 관련된 대외교섭에 참여할 수 있음 (제150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무역·금융·해운·통신·관광·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Hong Kong, China’ 명의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관계 유지 및 협정체결 가능 (제151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홍콩에 영향을 주거나, 홍콩과 관련된 사안에 한정하여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가할 수 있음 (제152조)
-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국 관리 권한을 보유 (제154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해외에 공식적인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며, 동 사무소 설립에 대해 중앙정부에 보고하여야 함 (제156조)
- 외국정부의 홍콩주재 영사관 또는 사무소 설립은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 (제157조)
 -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홍콩에 기 설립된 영사관 등은 그대로 유지

03

마카오 카지노산업

- 마카오 카지노산업은 1999년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하기 시작하였다. 마카오 카지노의 성장동력은 단연 중국인들로서 중국인 입국자 수는 2004년 953만명에서 2013년 1,863만명으로 약 96%증가하였다.
- 마카오 카지노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VIP 시장에 의존해왔다.

1. 마카오 카지노 시장 현황

마카오 카지노산업은 1999년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4년 외국자본이 투자한 첫 아시아 카지노로 Venetian, Sands, Galaxy Waldo, 2006년 Wynn, 2007년에는 Casino Crown, MGM이 개장하며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하였다.

마카오 카지노의 성장동력은 단연 중국인들로서 중국인 입국자 수는 2004년 953만명에서 2013년 1,863만명으로 약 96%증가하였다. 마

카오를 방문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육상 72%, 해상 23%, 항공 5%를 차지하며 관광객 중 마카오와 가장 근접한 광둥성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50%를 상회한다. 이와 함께 마카오 카지노 수입도 연평균 20% 이상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라스베가스 명성을 넘어 세계 최대 카지노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4년 1분기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은 HKD 992억불로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한 수준이다. 마카오는 VIP 고객 중심의 시장이나 최근, Mass 시장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출현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마카오 카지노 매출구성은 VIP고객이 70%, Mass 고객이 27%를 차지하였다.

마카오 카지노산업에서 VIP 시장은 전체 매출액의 70%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슬롯머신은 미미한 비중이며, Mass 고객의 비중은 점차 커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VIP 고객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마카오 카지노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VIP 시장에 의존하여 왔다. 중개인 역할을 하는 중개(Junket) 회사가 고객을 유치하고 차량·항공편 및 숙박 등 편의시설을 주선하고 신용도 제공하고 있다.

2. 마카오 카지노 사업모델

마카오 카지노 산업의 사업모델은 다음과 운영되고 있다. 첫째, 카지노 사업자는 게임장 운영 및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세금납부 및

카지노 프로모터와 수익을 배분한다. 둘째, 중개회사인 카지노 프로모터는 VIP 게임장 확보 및 카지노 사업자에 예치금 지불, 신용제공, 카지노수입에 대한 커미션을 수취한다. 중개회사 프로모터는 VIP 고객 모집 및 고객에 대한 자금대여·채권회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중개회사 대리인 Junket Agent는 이동·숙박 관련 사항 예약 및 VIP 고객에게 게임칩 제공, 카지노 프로모터로부터 커미션을 수취한다.

3. 마카오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마카오 주 감독기관은 게임감찰국(博彩監察協調局, Gaming Inspection and Coordination Bureau)으로서, 게임감찰국은 재정국,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Intelligence Office)와 합동으로 카지노 사업자 및 중개인을 감독한다.

(1)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감독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며 카지노사업의 총 수입에 대한 카지노특별세 세율은 35%이다. 마카오 국세청(Tax Department, Finance Service Bureau)에서 매월 징수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카지노중개인 중개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대신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한다.

카지노사업자는 게임감찰국 등에 감독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매분기별로 시산표(Trial Balance)를 게임감찰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 감사위원회, 회계분야 책임자 관련 자

료 및 이사회 보고서 및 회계장부, 감사의견서도 제출해야 한다. 게임 감찰국과 재정국은 수시로, 사전통보 또는 별도 통보 없이, 직접 또는 위탁회사를 통해 카지노사업자의 회계 또는 장부에 대해 분석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중개인 등이 카지노 사업장에서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카지노 중개인에 대한 감독

중개회사는 게임감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도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등록계약을 체결한 중개회사 명단을 게임감찰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게임감찰국은 중개회사 최대 할당량을 설정하고 면허를 발급한다. 중개회사 주요 주주는 정부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과 재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개회사는 매 3년마다 적격성 *suitability*에 대해 심사를 받으며 게임감찰국은 수시로 적격성 심사가 가능하다.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http://hkg.mofa.go.kr>



홍콩은 왜 해외의 다국적기업과 금융회사가 홍콩을 선택하는 지에 대해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Super-Connector**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홍콩은 해외 자본과 자원이 끊임 없이 홍콩으로 유입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고급 인적자원이 홍콩에 터전을 마련하고 홍콩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취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외국 사람과 해외자본이 홍콩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는 단순한 수사로만 그쳐서는 지속될 수 없으며 명확하고 분명한 제도적인 프레임워크와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홍콩은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 등이 찾아 오는 곳이 되었고 무역, 물류 및 금융의 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홍콩에 거점을 두고 모여들면서 응집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역·금융서비스 ↔ 법무·회계·IT·마케팅 등 서비스 산업간의 튼튼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업종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다. 즉, 홍콩은 법치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국 시장 진출기지라는 특성이 잘 융합되어 있다. 즉, **Super-Connector**로서의 홍콩은 아시아와 서구를 이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홍콩내와 홍콩밖 밸류체인상의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

